

202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2. 4. 13. (수요일), 14:00 ~ 17: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이재운, 김명선, 김왕직, 김우철, 김충식,
서동철, 윤주, 이승용, 이승호, 이제선,
최태선, 홍보식(이상 12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고창 무장기포지 사적 지정	(공 개)
2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해제	(공 개)
3	공주 공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공 개)
4	강화 외성 주변 초지항 어촌 뉴딜사업	(공 개)
5	관문성 주변 주상복합 신축	(공 개)
6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식묘군 보호구역 내 정원 조성	(공 개)
7	남원 만인의총 주변 자전거 도로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8	화성 마하리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신축	(공 개)
9	김해 분산성 주변 둘레길 정비	(공 개)
10	함안 말이산 고분군 주변 공장 증축	(공 개)
11	여수 선소유적 내외 전시관 신축 등	(공 개)
12	순천 낙안읍성 내외 시설물 정비	(공 개)
13	금정산성 내외 산성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공 개)
14	태안 안흥진성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공 개)

【검토사항】

15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 사적 지정 검토	(공 개)
16	고성 내산리 고분군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검토	(공 개)

【보고사항】

17	경주 월성 내 발굴조사 운영시설 주변 정비사업 계획 보고	(공 개)
18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공 개)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22-04-001

1. 고창 무장기포지 사적 지정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고창군 소재 「고창 무장기포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창 무장기포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가치 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함
 - 2021년 제12차 문화재위원회(2021.12.8.) : 조건부가결
 - 조건 : 사적 지정구역은 현재 전라북도기념물 구역으로 조정을 거쳐 지정 예고
- 사적지정 예고 결과
 - 공고명 : 「고창 무장기포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 공고일(예고일) : '22. 3. 2. ~ 3. 31.(30일)
 - 접수의견 : 해당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고창 무장기포지(高敞 茂長起包址)
 - 소재지 :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90번지 외 18필지
- (3) 지정 명칭 : 고창 무장기포지(高敞 茂長起包址/Gochang Mujang Birthplace of Donghak Revolution)
- (4) 지정 범위 : 문화재구역 19필지 7,390㎡(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5) 관리단체(안) : 전라북도 고창군
- (6) 신청사유
 -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과 부패의 척결, 반외세의 가치를 내걸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자 했던 대규모의 민주항쟁임.
 - 고창 무장(현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적 전개를 알리는 무장포고문을 선포(1894년 3월 20일)하고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인 무장기포가 일어난 곳임.

라. 참고사항

(1) 사적지정 추진경과

- 고창 동학농민혁명기포지 사적지정 신청(2013.7.30.)
- 문화재위원회 검토(2014.3.12.) : 보류(문헌조사·학술대회·발굴조사 등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시도문화재로 지정 권고)
-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2014.10.31.) : 기념물 지정
-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2020.10.23.) : 사적지정 신청 가결
- 고창 무장기포지 사적 지정신청서 제출(전라북도→문화재청 : 2020.11.10.)
- 문화재청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1.11.20.)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문화재위원회 검토(2021.12.8.)
 - 조건부 가결(사적 지정구역은 현재 전라북도기념물 구역으로 조정을 거쳐 지정 예고)

(2) 주요 학술대회

연도	주최·주관	학술대회 주제
2014	·고창군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한국사연구회	- 고창과 동학농민혁명과의 관계(문헌·사료 중심으로) -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포고문)의 사료적 가치와 위상 - 동학농민혁명 기포지에 대한 연구(사료·구전·증언 중심)
	·고창군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오지영의 『동학사』에 대한 종합적 검토 - 『동학사』의 편찬 경위 - 『동학사』와 해방 이후 동학농민전쟁 연구 - 『동학사』의 동학농민전쟁 초기 전개과정에 대한 서술내용 - 『동학사』의 집강소 시기 농민군활동에 대한 서술 내용 - 동학농민전쟁 이후 동학교단의 동향과 분화
2015	·고창군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동학농민혁명 당시 고창지역 농민군의 활동 재조명 -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에 대한 재검토(고문서와 구전 중심) - 지방유생의 시각으로 본 동학(김종풍의 『난계사집』을 중심) - 고창 선운사 석불비결 사건과 정감록 - 동학농민혁명 당시 광대집단의 활동(홍낙관·홍계관 부대의 활동) - 국왕의 赤子와 神의 아들(전봉준과 홍수전의 사상적 기반 비교)
2016	·고창군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전봉준장군 생가 터의 역사적 의의와 활용 및 보존방안 - 전봉준 생가터에 대한 실증적 고찰 - 고창지역 주요 농민군지도자 연구(송문수의 활동을 중심) - 전봉준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 - 동학농민혁명 이후 고창지역 민중운동
2017	·고창군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고창지역 동학 농민군의 활동과 기념사업의 방향 - 기초강연 : 동학농민혁명과 고창 지역 지도자들

연도	주최·주관	학술대회 주제
	사업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학술원	-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손화중의 지역적 기반과 그 활동 - 고창지역 동학농민군 참여자 - 전봉준 장군의 비서, 정백현의 『서울일기』 검토 - 고창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과 문화산업 연계를 위한 콘텐츠 연구
2018	·고창군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 사업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학술원	○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과 전봉준 장군 -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의 의의와 향후 기념사업 -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무장기포 서술 내용과 과제 - 남북한의 동학농민전쟁 연구와 전봉준 장군의 이미지 비교 - 남북한 교과서에 서술된 동학농민전쟁 비교
2019	·고창군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 사업회 ·연세대 근대한국학 연구소	○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 사적지정 토론회 - 무장기포지 사적 지정과 활용화 방안 - 무장기포의 주요 사료와 역사적 의의 - 무장기포지의 사적지정과 기포지 범위
2020	·고창군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 사업회 ·호남사회연구회	○ 무장기포지 사적지정과 기념공간 조성사업 - 조선시대 무장현의 규모와 특질 - 무장기포지 일원의 미지형 개관 - 무장기포지 기념공간조성사업 공간 구성안 - 무장기포지의 범위와 기포공간에 대한 검토

(3) 현지조사의견('21.10.10./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 ○○○, ○○○, ○○○)

① ○○○ 위원

- 1894년 발생한 동학농민전쟁은 한국 근대민족운동사에서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조선후기 이래 각 지역에서 전개되어 온 반봉건 농민항쟁의 흐름을 전국적 규모로 종합하여 봉건 모순의 척결을 요구하는 한편, 개항 이후 제국주의 침략으로 야기된 민족 모순을 극복하여 근대 민족국가를 수립하려는 반외세, 반봉건 운동이었다. 동학농민전쟁은 결국 일본군과 조선 관군의 진압으로 좌절되었지만, 양반 신분사회가 타파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 동학농민전쟁은 1)고부민란 단계, 2)무장기포 후 전주화약까지 제1차 농민전쟁 단계, 3)집강소시기, 4)재봉기 이후 우금치 전투까지의 제2차 농민전쟁 단계로 전개되었다. 제1차 농민전쟁은 1884년 3월 20일 무장에서 창의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전봉준이 무장에 잠행하여 동학의 도소를 설치한 것은 동학농민전쟁의 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종래 보은에 설치되었던 대도소에 대해 독자적인 남접도소를 설치함으로써, 동학의 조직과 활동을 종교의 범주를 벗어난 전체

국가와 사회의 개혁운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무장기포지가 갖는 사적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 현재 사적 정읍 전봉준 유적, 사적 정읍 황토현 전적, 사적 공주 우금치 전적, 사적 장성 황룡 전적, 사적 부안 백산성, 사적 장흥 석대돌 전적 등 동학농민혁명 관련으로 이미 지정된 사적이 여러 개 존재한다. 무장기포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할 때 그 유지를 사적으로 지정할 필요는 충분하다.
- 현지조사 결과 사료에 나오는 당산과 현재 유적으로 추정되는 곳이 일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인근 석교촌과 영암, 법성과의 사이에 있으면서 구암천이 옆에 흐르는 점 등이 사료에 나오는 묘사와 같다.
- 다만 중간에 마을 이름이 당산촌에서 구수리로 바뀌는 과정에 대한 사료적 근거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장기포지의 성격상 당시의 장소성이 중요하지, 그 시기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② ○○○ 위원

- 무장기포지는 동학농민운동의 포고문을 선포한 집결지이자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음.
- 동학도들이 병사를 일으킨 것을 학계에서는 기포(起包)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명칭을 ‘고창 무장기포지’로 명명하는 것은 타당함
- 무장기포지는 장소성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유적과 유물로 고증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함. 현재의 위치가 무장기포지라는 것은 기록과 증언자료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으나 자료에 근거하여 좀 더 명확히 고증하는 것이 필요함
 - 즉 『수록(隨錄)』이라는 기록에 무장기포지는 ‘(茂長縣) 冬音峙面 堂山(村)’이라고 하였는데 이곳이 현재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90번지’ 일대라는 것을 지명의 변천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필요함
 - 또 무장기포지가 구암리 현 위치라고 하는 것을 석교, 사창, 개갑, 영광, 법성, 무장현 등의 관련 지명 및 주변시설과의 거리 및 위치, 자연환경에 대한 설명 등의 자료를 토대로 상대적 위치를 가시적으로 분석하여 증빙하는 것이 필요함
 - 지정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적원도 등을 통한 당산촌(구암리) 주변 공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무장기포지의 위치를 명확히 고증할 수 있다면 현재는 동학의 전적지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그 시작점에 해당하는 기포지를 지정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③ ○○○ 위원

- 고창군 공음면 일대가 동학농민군이 포고문을 선포하고 봉기한 기포지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사적으로 신청한 지역인 공음면 구암리 590번지 일대가 기포지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는 아직 없다.
 -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민속학적 방법론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당피골(당산골) 민요’도 그렇다. ‘마래마을-당피골-들강변-일송기-송대장-구곡’으로 이어지는 동학군의 공간적 이동 과정의 종착지가 구곡(구암마을)이라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이 민요가 발굴된 2014년은 기포지의 장소 논란이 빚어지기 이전이라는 점에서도 가사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 반면 구암마을에서 구암천 건너로 바라보이는 마래마을에 12개의 고인돌을 당산으로 삼는 당산제가 옛날부터 열리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조선시대 고지도에서 일대를 ‘동음치 당산’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배경도 구암마을의 사라진 당산나무가 아니라 마래마을의 당산제 때문은 아니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당피골 민요’에도 당피골은 구암천 들강변에 이르기 전인 구암마을 개울 건너임을 시사한다. 구암마을과 마래마을을 포괄한 지역을 당산골로 불렀던 것은 아닌지 지리학적 검토가 필요하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원안가결 12명

고창 무장기포지(高敞 茂長起包址) 사적 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1.10.20(수)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사적 : 고창 무장기포지(高敞 茂長起包址)를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고창 무장기포지(高敞 茂長起包址)로 신청되었으며, 문헌에서 기포라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기포(起包)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문화재 명칭 부여 원칙에 따라 ‘고창 무장기포지(高敞 茂長起包址)’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입지환경

- 전라북도의 서남단에 위치한 고창군은 고창읍을 비롯하여 13개면, 564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북쪽은 호남정맥을 경계로 전라남도 장성군, 남쪽은 전라남도 영광군, 서쪽은 황해, 북쪽은 줄포만을 사이에 두고 부안군과 접하고 있음.
- 침식성 저구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해발 5~20m 범위에서 0~4.5°범위의 층적평탄면을 이루고 있음. 다만, 구암 마을의 배후구릉이 구암천과 인접하는 말단부를 따라 장동마을회관으로 연장되는데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높게 나타남.

○ 역사·문화 환경

- 1894년 3월 20일 전봉준 장군이 동학농민혁명을 알리는 포고문을 낭독한 역사적 현장인 무장기포지는 고창군 공음면 구수마을 주변이며, 구수마을은 1700년대 중반에 형성된 마을로 저수시설이 없을 때에는 9군데 방향에서 물이 흘러 농사를 지은 곳으로 구시내로 부르다가 뒤에 구수로 개칭되었음.

4. 연혁 유래 및 특징

-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90번지 외 5필지에 위치한 ‘무장기포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2004년 3월 제정)」에 ‘1894년 3월에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이라고 규정된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이 무기를 갖추고 무장포고문을 발표한 장소라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사건으로 확산되는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
- 동학농민혁명은 오랜 기간 동안 ‘동학란’ 또는 ‘반란’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역사발전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인식은 변화되었음. 특히 1994년 100주년을 기점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동학농민혁명이 재조명되었음. 이러한 100주년에 이루어진 기념사업의 결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4년 3월)이 제정되어 정부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과 동학농민군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음. 이와 함께 그동안 다양하게 불리워졌던 이 사건의 명칭도 법률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으로 규정되었음

-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심도 있게 이루어짐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인 사건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된 무장기포와 그 출발장소인 무장기포지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크게 증대되었음

- 신용하, 1985, 「갑오농민전쟁의 제1차 농민전쟁」
- 정창렬, 1991, 『갑오농민전쟁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신용하, 1993,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 이이화, 1994, 『발굴동학농민전쟁 인물열전』
- 김은정·문경민·김원용, 1995, 『동학농민혁명 100년』 ■
- 배항섭, 1996, 『동학농민전쟁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박찬승, 1997, 『1894년 농민전쟁연구』
- 신순철·이진영, 1998,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 배항섭, 2011, 「동학농민혁명 발발과 무장기포의 의의」

- 이상의 연구 성과는 모두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이 무장기포를 기점으로 전국적인 사건으로 확대되었으며 무장기포지가 그 출발장소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음. 이러한 흐름은 이후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하는 학계의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으며, 결국 특별법에 ‘1894년 3월에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와 같이 무장기포가 있었던 1894년 3월을 1차 봉기의 시작으로 규정하게 된 것임. 최근에 개정된 교과서의 대부분이 무장기포를 동학농민혁명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규정하고 있음도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반영한 것임
- 무장기포지가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중요한 장소로 부각됨에 따라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함께 2010년 11월 4일에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과 무장기포의 의의」라는 주제로 학술회의 개최하였으며, 2011년 11월 4일에는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무장기포지의 문화재지정과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였음
- 고창군은 2014년 문화재청에 ‘고창 동학농민혁명 기포지’(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90번지 일대, 면적 7,390㎡)라는 문화재명으로 사적 지정 신청을 하였음.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현지조사를 거친 후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창 동학농민혁명 기포지는 우선 시·도 기념물로 지정하고 추후, 검증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의 지정을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고

창군에 회신(2014. 3. 17)하였음. 이에 고창군은 전라북도에 문화재지정 신청(2014. 4. 2.)을 하였고, 전라북도는 문화재위원회를 개최(2014.10.31.)하여 전라북도기념물 제129호로 지정하였음.

- 고창군은 ‘고창동학농민혁명무장기포지’를 시굴(발굴)(2015.6)하고 다시 사적지정을 신청(2017. 2. 23)하였으나,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아(2017. 5. 23) 문화재청에 올라가지 못하였음. 고창군은 또다시 사적 지정을 신청(2019.3.28.)하였고,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는 심의를 보류하고 보완을 요청하였음
- 고창군은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와 함께 2019년 11월 15일에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의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무장기포지와 관련된 사료, 무장기포지의 범위, 무장기포지의 활용방안 등 무장기포지의 사적지정을 위해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2020년 동학 검이 발견된 장소, 당산나무 주위 등 시굴조사를 추진하였음.
- 고창군은 사단법인 호남사회연구회와 함께 2020년 7월 10일에는 「무장기포지 사적지정과 기념공간 조성사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무장현의 규모와 특질, 무장기포지의 지형적 특징, 무장기포지의 기념공간 조성 등 무장기포지의 사적지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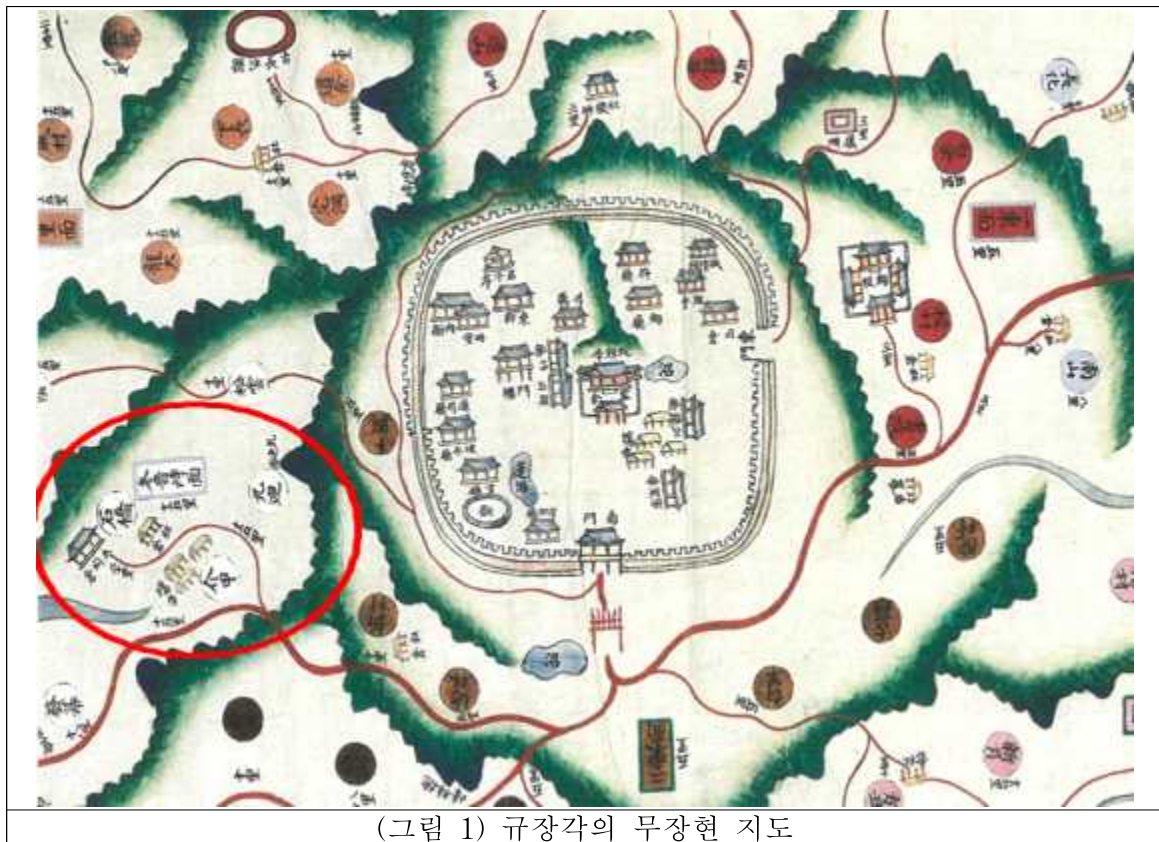
5. 고창 무장기포지와 관련된 문헌, 증언에 대한 사항

5-1. 【무장현 동음치면(冬音峙面) 당산(堂山)의 현 위치】

- 전북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90번지 일대가 ‘무장기포지’ 현장이라고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은 진기홍(1914~2010, 우정사기)이다. 고창출신인 그는 「갑오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 옛 무장 당포」, 『고창의 숨결』(고창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1998)에서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이 1894년 3월 무장기포가 있었던 장소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무장기포지의 위치와 범위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 이와 관련하여 ① 오하기문(梧下記聞) “琿準等 大會茂長縣 布告民間其文” ② 취어(聚語) “茂長東學輩布告文” ③ 나암수록(羅巖隨錄) “茂長東徒布告文” ④ 동학문서(東學文書) “全羅道東學輩布告文 茂長縣” ⑤ 동비토록(東匪討錄) “東學輩本邑布告文茂長”의 사료를 통해 동학농민군이 무장에서 포고문을 발표하고 기포하였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 무장기포지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가와 관련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는 『수록』이다.
 - 이달 22일 도착한 무장현감 조명호(趙命鎬)의 보고 내용에, “이달 16일 무장현 동음치면(冬音峙面) 당산(堂山) 땅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난류배(亂類輩) 수천 명이 무리를 모아 가까이 다가와 머무르고 있으며.”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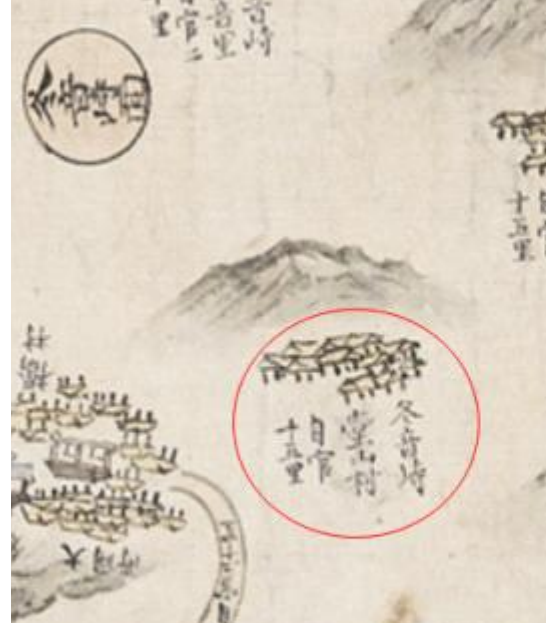
1) 「수록」,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3권,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회, 2008, 3쪽~13쪽.

- 무장현감 조명호의 보고에 따르면 1894년 3월 16일 무장현 동음치면 당산이라는 곳에서 난류배 즉 동학농민군 수 천명이 무리를 모아 머무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무장현(茂長縣) 동음치면(冬音峙面) 당산(堂山)”이라는 표현이다. 무장은 확인되었다.
- <그림 1>은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무장현 채색지도이다. 이 지도는 1872년에 제작된 것으로 무장읍성이 중심에 있고 그 왼편에 구적(九迪)이라는 표현이 있으며 그 옆에 동음치면이 확인된다. 그리고 아래에 석교(石橋), 사창(社倉), 대동창(大同倉), 개갑(介甲) 등의 지명이 표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대로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전윤오(1938년생) 옹은 ‘이마을 이름이 원래 동음치면 당산이었는데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구암리 구수마을이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림 1-1>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19세기 조선후기 전라도 무장현도에도 동음치 당산리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진기홍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당산)로 얼마 전까지 이곳에 큰 당산나무가 있어 당산리라고도 부른다. 옛 땅 이름은 무장현 동음치면 당산리이다.’¹⁾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현재 무장기포지 조형물이 있는 마을인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이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무장현감 조명호가 보고한 무장 동음치면 당산과 같은 마을이며 같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 규장각의 무장현 지도

1) 진기홍, 「갑오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 옛 무장 당피」, 『고창의 숨결 - 향토사료집 3』, 고창문화원, 1998, 진기홍(1914~2010, 전 광주체신청장)은 우정사가로서 우편관련 자료 및 한국근대사 관련된 자료를 발굴하여 세상에 알렸다.



(그림 1-1) 19세기 조선후기 전라도 무장현도 세부 (국립중앙박물관)

5-2. 【현 구수마을 내에서 「수록(隨錄)」에 등장하는 난류배(亂類輩)의 집결지】

- 중요한 것은 「수록(隨錄)」에 등장하는 난류배(亂類輩)¹⁾의 집결지 이 당산(구수)마을 어디에서 모여서 훈련하고 기포하였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자료는 무장현감 조명호의 보고이다.

‘이달 22일 도착한 무장현감 조명호(趙命鎬)의 보고 내용에, “이달 16일 무장현 동음치면(冬音峙面) 당산(堂山) 땅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난류배(亂類輩) 수천 명이 무리를 모아 가까이 다가와 머무르고 있으며, 그들의 종적이 수상하다고 전하는 이야기들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16일부터 18일까지 며칠 사이에 밤낮으로 사방에서 몰려와 천여 명이나 되었는데, 모두가 해당 촌의 앞에 있는 평야에 모여 있었습니다.’

- 이에 따르면 1894년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방에서 천 여 명이나 되는 동학농민군이 사방에서 몰려와 해당 촌 즉 당산(구수)마을 앞에 있는 평야에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세기 조선후기 전라도 무장현도에서 “당산촌”이 존재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현 구수마을 주민의 증언²⁾을 통해 “당산촌”이 “구수마을”로 명칭이 변경된 것에 근거하여 현 “구수마을”이 수록에서 언급하는 “무장현 동음치면(冬音峙面) 당산(堂山)” 땅임을 추정할 수 있으며, <그림 2> 1915년 일제강점기 제작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³⁾할 수 있다. 현재의 위치(<그림 3>)와 비교해 볼 때 마을

1) 난류배(亂類輩)는 수록에 기록된 바와 같이 동학농민군을 의미한다.(.....난류배(亂類輩) 수천 명이 무리를 모아 가까이 다가와 머무르고 있으며, 그들의 종적이 수상하다고 전하는 이야기들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영리한 서리와 장교를 보내어 몰래 조사하여 알아보니, 이들은 본 읍의 백성들이 아니었고, 거의 모두가 다른 읍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해당 촌 백성들의 집에 모였는데 동학도(東學徒)라고 칭하였습니다......)

2) 마을 주민의 증언 “당산마을은 원래 무장현 동음치면 당산이었는데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구수라는 마을명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3) 1915년 제작지도에서는 구수라는 지명이 확인되는데 이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당산이 구수라는 지명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추정

은 계속하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1915년 지도(구수지역)



(그림 3) 현 지도(구수지역)

- 또한 <그림 4>의 1954년 위성지도와 <그림 5>의 1967년 위성지도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신작로를 제외하고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와 1954년과 1967년의 사이에 이 일대에서의 지형적인 큰 변화는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 1954년 위성지도



(그림 5) 1967년 위성지도

- 보다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당산마을에 오랫동안 살았던 전윤오 용의 증언¹⁾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다.

1) 2019년 11월 1일 오후 4시, 무장기포지에서 면담



(그림 6) 전윤오 옹(1938년생,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 거주)

< 증언내용 I - 전윤오 조부 전순서의 동학농민군 기포활동 증언 >

- * 전윤오(1938년생, 고창군 공음면 구수암길 18 거주)는 천안전씨로 고조부 대(1850년 대)에 무장현 동음치면 당산(현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당산마을)에 이주하여 지금 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 * 전윤오는 10살 무렵부터 조부 전순서(1882년생)에게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들었다고 한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윤오의 조부 전순서의 나이는 12세였다고 한다. 전윤오는 조부에게 마을 앞의 수구막이 나무가 언제부터 있었는가를 물었고 조부가 이를 대답하는 과정에서 동학농민군들이 마을 앞에 모여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전해주었다고 한다.
- * 조부 전순서는 갑오년(1894년) 3월에 5일 가량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조부가 살고 있던 당산마을 앞 모래사장(평지)과 그 근처에서 모여 조총을 가지고 대포를 앞산을 향하여 쏘고 진을 짜는 등 훈련을 하였다고 한다.
- * 지휘자에 해당하는 농민군은 말을 타기도 했다고 한다. 마지막 날에는 모두 모여 함께 출발하였는데, 그 주된 장소는 <그림 6> 현재 기포지 기념 조형물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
- * 석교리에 국창(사창)이 있었고 동학농민군들이 여기에 보관된 곡식을 식량으로 조달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바닷물이 석교리에 있는 사창을 거쳐 당산마을(구수마을) 앞까지 올라 왔다고 한다.

- 전윤오 옹의 조부 전순서는 1894년 3월 5일 가량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전순서가 살고 있던 당산마을 앞 모래사장(평지)과 그 근처에서 모여 조총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산을 향하여 대포를 쏘고 진을 짜는 등 훈련을 하였으며 마지막 날에는 현재 기포지 조형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모여 출발하였다고 한다. 전윤오의 조부 전순서가 전해 준 장소는 바로 무장현감 조명호가 보고 한 '16일부터 18일까지 며칠 사이에 밤낮으로 사방에서 몰려와 천여 명이나 되었는데, 모두가 해당촌의 앞에 있는 평야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장소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 <그림 4> 1954년 위성지도, <그림 5> 1967년 위성지도에서 당산마을 앞에서 냇가(구암천)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고 평지 동남쪽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1954년 위성지도



(그림 5) 1967년 위성지도

- 이 평지 지역은 전윤오 옹이 증언한 “농민군은 마지막 날에 모두 모여 함께 출발하였는데, 그 주된 장소는 <그림 7> 현재 기포지 기념 조형물이다.”의 평지와 동일한 위치에 해당된다.



(그림 7) 기포지 기념 조형물 위치도(현재 철거 완료)

- 그리고 이 곳은 원지형 확인을 위해 발굴조사¹⁾가 시행된 구역인데에서 Tr1, Tr2, Tr3 의 지역에서 모래가 쌓여 있던 곳이었고 시간이 흘러 현재와 같이 성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



(그림 8) 당산마을 앞 발굴도면 및 결과

1) 사단법인 호남문화재연구원, 2015년 6월, 「고창 무장 동학농민혁명 기포지 관련시설 부지 내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 결국 전윤오 옹이 조부 전순서를 통해 들은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훈련을 한 당산마을 앞 모래사장과 그 근처”는 현 구수마을과 마을 앞 냇가(구암천) 사이의 지역임을 확인 할 수 있다.

< 증언내용 II- 당산나무의 위치와 수구막이 >

- * 당산나무는 수령이 4백년 된 팽나무로 22번 국도 개설 과정에서 없어졌으며 당시 당산나무가 도로 가운데에 터널처럼 드리워져 있어 제거하게 되었다고 한다. 국도 개설 전에는 신작로가 있었다고 한다.
- * 당산나무는 암 수 2그루가 있었는데 암 팽나무는 크기가 작았으며 국도 22번 국도 개설 전에 마을 사람들이 곡식을 경작하는데 햇빛을 가리어 방해된다고 하여 없었다고 한다. 현재 그 자리에 뿌리가 살아 작은 팽나무가 자라고 있다.
- * 당산나무 바로 옆에는 주막이 있었으며 이 근처에서 마을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고 한다. 주막은 도로 개설 전까지 있었다고 한다.
- * 마을 앞에 수구막이로 소나무, 수양나무 일렬로 늘어서 있었으며 그 근처에 봉기 기념비를 세웠다고 한다.
- * 수구막이는 마을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또는 마을의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건물, 나무, 탑 등을 이용하는데 당산마을에서는 나무를 심어놓았다. 당산마을에서는 마을 왼쪽에 일렬로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소나무와 수양나무 등을 일렬로 심어놓았다고 한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게다’를 만든다고 그 일부를 베어 갔다고 한다.

- 전윤오 옹의 증언을 통해 구수마을에는 수구막이와 당산나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수구막이는 당산나무와 구별해야 된다. 우선 당산나무는 수령이 4백년 된 팽나무로 22번국도 개설 과정에서 없어졌으며 당시 당산나무가 도로 가운데에 터널처럼 드리워져 있어 제거하게 되었고, 국도개설 전에는 신작로¹⁾가 있었다고 한다. 당산나무는 암수 2 그루가 있었는데 암 팽나무는 크기가 작았으며 국도 22번국도 개설²⁾ 전에 마을 사람들이 곡식을 경작하는데 햇빛을 가리어 방해된다고 하여 없었다고 하고, 현재 그 자리에 뿌리가 살아남아 작은 팽나무가 자라고 있다. 당산나무가 존재한 사실은 증언 외에도 <그림 9> 위성사진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9) 당산나무 항공사진(1966)

(9-1) 당산나무 추정위치(현 작은 팽나무 위치)

- 수구막이는 마을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또는 마을의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건물, 나무, 탑 등을 이용하는데 당산마을에서는 나무를 일렬로 심어놓았는데 그 위치는 <그림 10> 위성지도에서 확인된

1) 신작로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시점이 1933년인 것으로 보아, 1933년경에 만들어졌다고 보인다.

2) 22번 국도의 무장기포지를 지나는 구간은 1978년~1981년 사이에 개설되었다.

다. 마을 왼쪽에 일렬로 소나무와 수양나무 등을 일렬로 심어 놓았으며¹⁾, 현재 해당 위치에는 추정 수구막이 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한 그루는 고사하여 베어내고 지금은 한 그루(버드나무)만 남아있다.



(그림 10) 수구막이 항공사진(1966) (10-1) 수구막이 추정위치(수구막이 추정 현 버드나무)

- 수구막이의 위치와 관련하여 당산마을에 거주하는 또 다른 주민(차철수 용, 1946년생)의 증언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차철수 용 증언 - 수구막이 위치 >

* “현재 <그림 11> 기포지내 목조정자 위치에 본가가 있었고, 그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한다. 그 옆 수구막이 위치에 소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20대 시절 수구막이 소나무에서 찍은 사진도 간직하고 있다.”



(그림 11) 수구막이 추정위치

(11-1) 정자 현황

(11-2) 수구막이 소나무

- 전윤오 용이 언급한 수구막이 위치와 차철수 용이 언급한 위치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구막이는 기념비와 마을 사이에 위치하였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수구막이와 구암천 사이의 평지가 일대 동학농민군의 훈련, 집결 장소임을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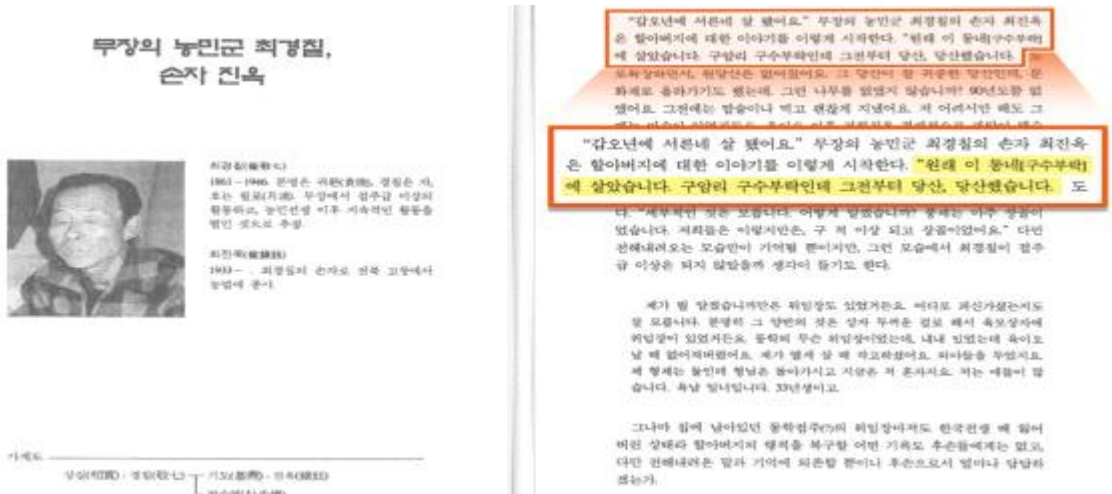
< 증언내용 III- 당산마을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

* 당산마을에 살았던 송문수가 송대장이라 하여 마을에서 참여한 동학농민군의 우두머리였는데 후에 체포되어 처형되었다고 한다. 장동 뒷뜰에 ‘대가리 없는 무덤’이 송문수(송대장)의 무덤이 있다고 하여 진윤식 고창기념사업회 이사장과 함께 찾아보았으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송대장의 손녀딸이 있다고 하여 찾았지만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 당산마을에 살았던 최경철은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였다가 부상을 입고 돌아왔다고 한다. 최경철의 손자 최진욱이 이 마을에 살다가 고창으로 이주하였으며 살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동학농민혁명 후손 증언록 다시 펴는 늑두꽃 (1994년, 역사비평사, 우윤 증언내용 정리)에서 확인된다.

1) 전윤오 용 등 마을 주민 증언에 근거함.

- 증언 내용을 통해 송문수라는 사람은 당산마을(현 구수마을) 출신이며,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한 대표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재섭(1945년생,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 거주, 1998년 증언)의 증언에 따르면 “송문수씨는 이곳(공음면 구수)에 세거했다. 동학군들을 장사꾼처럼 변복시켜서 송문수 씨가 몰래 훈련을 시켰는데, 현재 밭상지 비(기념조형물)가 있는 곳의 왼쪽 뒤편이 연병장이다. 지금의 큰 도로 위로 버드나무 10여 그루가 있었고 그 밑에 모래밭이 있었는데, 약 500~600명이 쉴 수 있는 곳이었다. 위에서 큰 분이 오면 송문수 씨가 난장을 터서 드러나지 않게 했다. 송문수는 당산지역 훈련 총대장이었다.”라고 하여 앞서 언급한 동학농민군의 훈련, 집결지의 위치가 마을 앞의 수구막이와 구암천 사이의 모래평지임을 증빙하는 또다른 단서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당산마을(현 구수마을)에 살았던 최경철 역시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실¹⁾을 알 수 있다. <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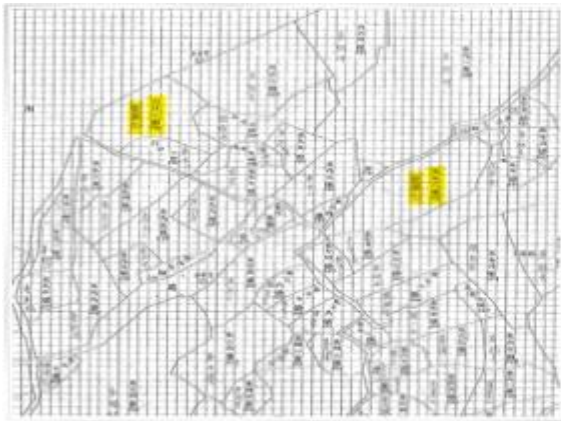
(그림 12) 동학농민군 최경철과 관련된 후손(손자 최진옥)의 증언

- 경주최씨 충렬공파의 족보를 보면, 최경철의 가계(家系)를 한 눈에 엿볼 수 있으며, 현재는 증손자 최창수가 구수마을에 생존하여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최경철이 소유했던 토지의 위치가 현재의 지도상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어 최진옥 용의 증언에 신빙성이 더해진다고 할 수 있다.<그림 13>

1) 동학농민혁명 후손 증언록(1994년, 역사비평사, 우윤 증언내용 정리)



【경주최씨 총렬공파족보】



【1915년 일제강점기】



【2021년 현재】

(그림 13) 위-경주최씨 총렬공파족보, 아래-최경칠 소유 토지

- 금회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인근에서 장검 <그림 14>이 발견된 바 있다. 이 검은 경지정리 공사 중 이 동네에 사는 이정봉(58세) 씨가 지하 1m 지점에서 단지에 든 옆전과 함께 발견하였다.



(그림 14) 장검 발견 위치



(14-1) 출토 장검

이 장검에 대해 전문가(곽낙현)의 자문(2019.12.17.) 결과, 칼의 제작은 민간의 야장이 만든 제작수준으로 제작 시기는 조선후기 ~ 구한말 사이로 추정할 수 있으며, 사용 시기는 이 칼이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적지 인근에서 발견되었음을 감안할 때 동학농민혁명 관련시기에 제작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칼이 옆전과 함께 껍짝에 담겨 있었다는 점은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했던 인물이 전투에 패한 뒤 “동비(東匪)”로 몰려 당할 수 있는 생사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후일을 도모하기 위한 방책으로 돈과 함께 보관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장검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 일대 어디에선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6.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과 부패의 척결, 그리고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자 했던 대규모의 민주항쟁이며, 한국 역사상 최고 최대의 혁명적 사건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혁명의 근원지는 역사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동학농민군은 1894년 3월 20일 무장현 동음치면(冬音峙面) 당피골(당산골, 堂山)에서 기포하여 전국적인 농민항쟁을 전개하였다.¹⁾ 당시 고부봉기에서 실패한 전봉준은 소수의 부하들을 이끌고 무장으로 와서 무장대접주 손화중과 의기투합, 전라도 각지의 농민군을 이곳으로 집결시켰다. 그 결과 고을 단위를 뛰어 넘어 전라도 각 지역에서 탐관오리의 부정부패와 압제에 분노하던 4천여 명의 농민군이 이곳 무장으로 모였고, 마침내 3월 20일 전라도 무장에서 <포고문> 발표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되었다.
- 전라도 무장현(茂長縣)은 조선건국 후 1417년(태종 17)에 무송현(茂松縣)과 장사현(長沙縣)을 통합한 군현이다. 이후 무장현은 조선왕조 5백년 내내 전라도 56개 군현의 하나로 자리하다가 조선멸망 후 1914년에 고창현·홍덕현과 합쳐져 고창군이 되었다. 조선시대 무장현은 이 3개 고을 중에서 가장 큰 군현이었다.
- 이러한 역사를 가진 무장은 바로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곳이었으며, 무장에서 발표된 <포고문>은 지배층의 탐욕과 부정과 부패로 고통 받던 민중의 분노,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민중의 열망이 터져 나온 커다란 울림이었다.
- 특히 <포고문>에는 동학농민혁명에 임하는 농민군의 입장, 농민전쟁의 이념, 목표 등이 매우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세 혹은 중세말기에 발발한 대규모 민중운동에서 자신들의 擧義 동기나 목표를 이처럼 명확하게 천명하고 시작한 사례는 좀처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 <포고문>에 나타난 농민군의 이념이나 목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백수령(方伯守令)으로부터 중앙의 공경대부(公卿大夫)에 이르기까지 지배층의 총체적 부패상에 대한 적나라한 비판, 부패로 인해 국가가 처한 존망의 위기에 대한 인식,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실을 개혁하고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죽음을 맹세하고 나선 다는, ‘보국안민’을 이룰 수 있는 주체로서의 스스로에 대한 자각 등이다.
- 한국 근대 민중운동사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고창의 무장기포지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므로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 관리하여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고 참여자들의 명예회복과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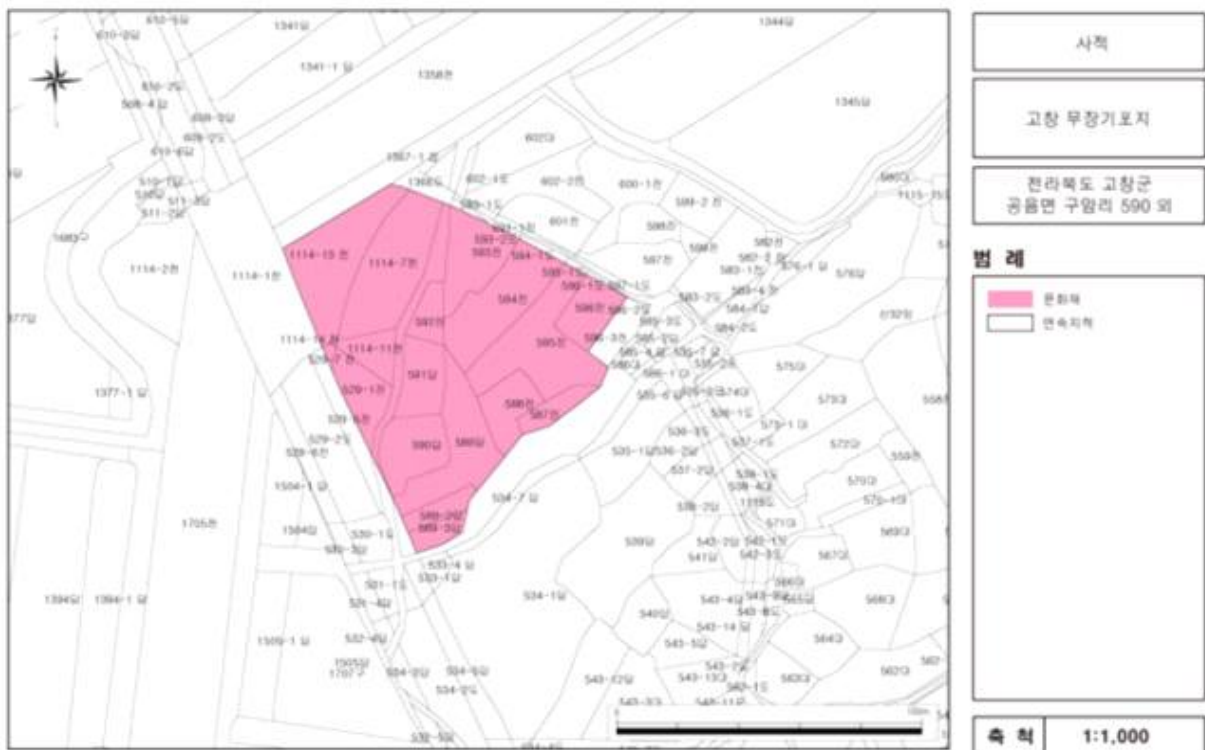
1) 현 고창군 孔音面 九巖(龜巖)里 九水내(구수마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冬音峙面과 瓦孔面을 합치고, 한자씩 따서 공음면이라고 하였다. 이기화 전 고창문화원장에 의하면, 당피골은 1914년 공음면이 생기면서 구암리 구수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9개 방향에서 물이 흘러 나와, 구시내로 부르다가 뒤에 구수로 개칭했다고 한다. (『새 전북신문』 2014. 8. 17, ‘동학농민군이 부른 ‘당피골민요’ 있었다’)

7.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지정면적 : 지정구역 19필지 / 7,39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구암	1114-7	하천	866	866		
2	구암	1114-13	하천	838	838		
3	구암	1114-11	하천	202	202		
4	구암	1114-14	하천	3	3		
5	구암	1115-13	잡	313	313		
6	구암	529-1	전	328	328		
7	구암	529-7	전	22	22		
8	구암	587	전	172	172		
9	구암	588	전	321	321		
10	구암	589-2	답	148	148		
11	구암	589-3	답	132	132		
12	구암	589	답	698	698		
13	구암	590	답	436	436		
14	구암	591	답	337	337		
15	구암	592	전	172	172		
16	구암	593	전	488	488		
17	구암	594	전	726	726		
18	구암	595	전	886	886		
19	구암	596	전	302	302		
		합계		7,390	7,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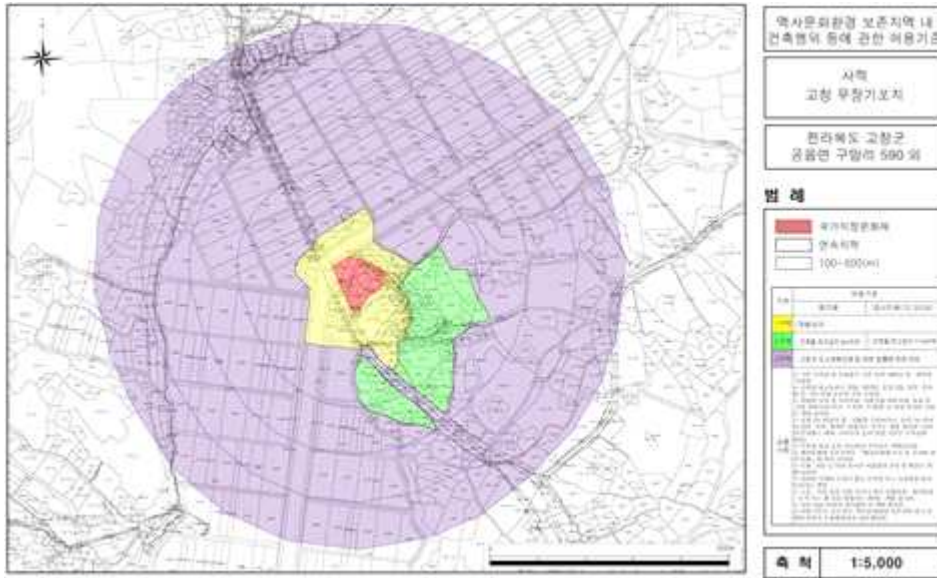




무장기포지 항공사진(전경)

8.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지정 보고서의 지정 가치 중, 그 동학농민군의 집결지로 추정되는 곳이 현 지정 구역 앞 평야인 것으로 고려할 때, 장소적 상징성으로 앞의 평야는 현황을 유지할 수 있는 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반에 임할때마다 실규모도면과 비교하여 확인하시기 위하여, 백면 취사중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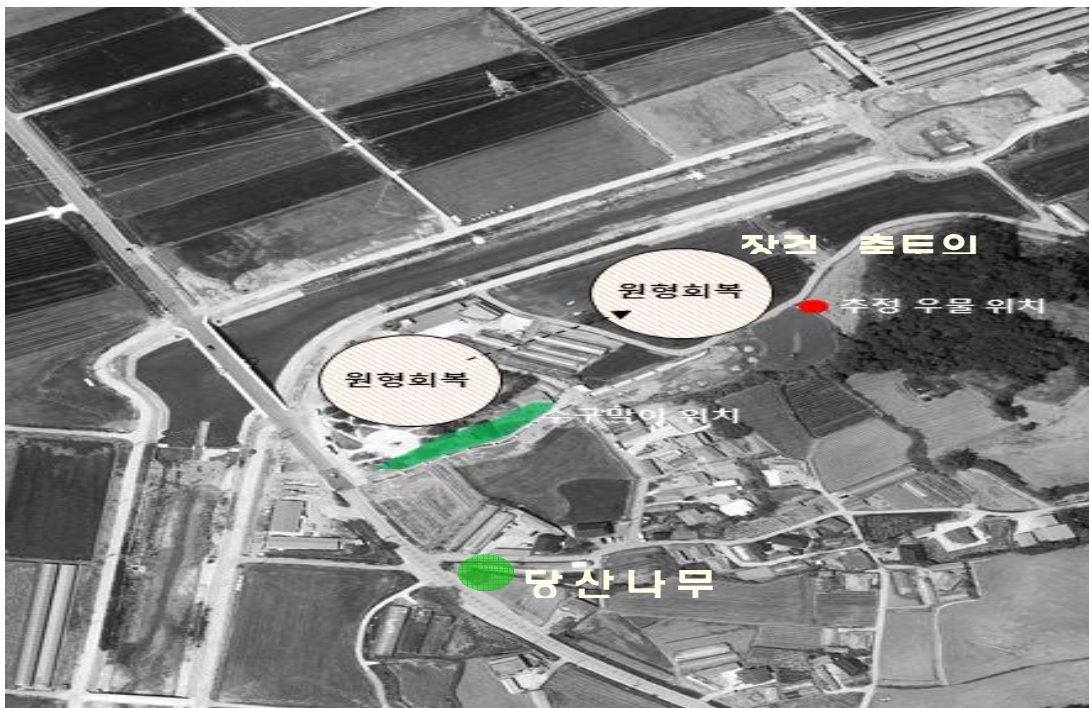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 고창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 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9.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9.1. 보존 정비 계획

- 현재까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사적지 정비 및 기념공간 조성방식은 기억과 추모를 강요하고 교조적인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예를 들어, 경직된 축선에 대한 강조, 복고적, 양식적 기념공간이 많이 지어지고 있음
- 따라서 고창군에서는 기존 여러 사적지가 교조적 메시지와 과도한 조형물 조성을 통해 정비하는 것과는 달리 **문화재 보존·정비의 출발점으로 원형회복을 가장 중요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소의 진실성을 구현하고자 함.**
- 무장기포지 일대의 사적 지정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고창군에서는 여러 차례 이에 관해 학술대회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무장기포지 일대 지형원형의 모습을 추측하였음
- 現무장기포지 일대의 표고는 동학농민혁명 기포 당시의 표고보다 약 1.5m이상 복토한 것으로 이는 구암천의 직방화 과정에서 비롯된 것임
- 이를 근거로 본래 무장기포지 일대가 지녔던 풍경과 지형의 모습을 추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종합도 및 계획도를 완성하였음



무장기포지 일대 지형의 원형회복을 위한 개략적인 범위

- 현재 무장기포지에 무질서하게 배치된 조악한 조형물등은 종합정비계획에 의해 정비하고 당산나무와 수구막이를 식재하여 원형을 회복할 예정임

9.2. 무장기포지 활용계획

1) 기본방향

- 무장기포지 기념공원 방문활성화를 위한 개발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방문수요증진은 물론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미에 기반한 세계화추진에 기여
- 또한 동학농민혁명유적지 공원화를 통한 지역관광콘텐츠 확보 및 지역민 소득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활용계획

- 교육자원
 - 무장 기포지는 동학농민혁명의 실질적인 시발지로서 중·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 수록됨. 따라서 초·중·고등학생의 견학코스 및 가족단위 여행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자원으로 활용
- 역사 체험자원
 - 동학농민혁명 당시 무장 기포지에서 있었던 일은 시국 논의, 포고문 작성, 깃발과 죽창 만들기, 통문 배포 등이었을 것임. 따라서 이런 체험요소를 활용하여 역사 체험공간으로 활용
- 문화산업자원
 - 무장 기포지는 자원과 연관된 인물, 역사적 사건 등이 내포되어 있음. 이러한 문화요소들을 스토리텔링화하여 무장 기포지를 하나의 스토리로 재구성하여 이야기가 있는 문화로 콘텐츠화하고 볼거리, 놀거리, 체험거리로 활용할 예정임.
- 관광자원
 - 고창에는 고인돌, 복분자, 청보리, 선운사 등 주변에 우수한 관광자원이 풍부함. 따라서 주변의 다른 자원, 즉, 문화재, 관광지, 자연경관 등과 연계하여 무장기포지의 가치를 극대화.

9.3. 무장기포지 방재계획

방재시설·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 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방재시설 설치현황	없음	
방재시설 설치계획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소방시설 및 방범CCTV 6대 설치 소방방재시설(옥외 소화전 등 2기) 설치 필요	
방재인력 배치현황	없음	
방재인력 배치계획	재난관리 및 상시관리를 위한 관리인력 2명	
그 밖의 사항	체계적인 사적지 관리 및 재난방지를 위한 관리동 설치 필요	

10. 종합의견

- 「갑오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 옛 무장 당피」, 「고창의 숨결(고창문화원 향토 문화연구소, 1998)」에서는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이 1894년 3월 무장기포가 있었던 곳이라 밝히고 있다. 또한 「오하기문(梧下記聞) “琿準等 大會茂長縣 布告民間其文”」, 「취어(聚語) “茂長東學輩布告文”」, 「나암수록(羅巖隨錄) “茂長東徒布告文”」, 「동학문서(東學文書) “全羅道東學輩布告文 茂長縣”」, 「동비토록(東匪討錄) “東學輩本邑布告文茂長”」의 사료에서 동학농민군이 무장에서 포고문을 발표하고 기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사료, 연구만으로는 무장기포 장소가 무장현의 어디쯤인지는 분명히 제시하지 못한다.
- 무장기포지의 정확한 위치를 비정하기 위한 가장 비중있는 사료는 『수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유는 “이달 16일 무장현 동음치면(冬音峙面) 당산(堂山) 땅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난류배(亂類輩) 수천 명이 무리를 모아 가까이 다가와 머무르고 있으며,”¹⁾ 라는 기록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무장현(茂長縣) 동음치면(冬音峙面) 당산(堂山)”이라는 표현이다.
- 동음치면 당산은 예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무장현 채색지도(1872년)에서는 무장읍성이 중심에 있고 그 왼편에 구적(九迪)이라는 표현이 있으며 그 옆에 동음치면이 확인된다. 그리고 아래에 석교(石橋), 사창(社倉), 대동창(大同倉), 개갑(介甲) 등의 지명이 표시되어 있다. 19세기 조선후기 전라도 무장현도에도 동음치 당산리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수록』에 기록된 “동음치면(冬音峙面) 당산(堂山)”은 조선 후기에 실제 사용된 지명이름이 맞고, 무장현 채색지도에 근거하여 현재에도 지명으로 사용되는 석교리의 북쪽 평지로 추정할 수 있다.
- 전라북도 기념물 「고창 무장동학농민혁명 기포지」는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9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 이 일대에 구수마을이 조성되어 있다. 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일치되는 증언, 수구막이의 위치 및 기포지 기념물 주변이 모래사장이었다는 점 등을 통해 무장기포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무장기포의 역사성,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고창군에서는 당초 문화재구역의 범위를 전라북도 기념물 구역에서 당산나무로 추정되는 위치와 장검이 출토된 위치까지 확대하여 지정신청 하였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근거만으로 확대해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구역은 현 전라북도 문화재 구역만으로 하여도 그 상징성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

1) 「수록」,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3권,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회, 2008, 3쪽~13쪽.

2.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해제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추가지정 및 해제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 내 3필지(321㎡)를 사적으로 추가지정, 2필지(350㎡)를 사적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2년 제2차 위원회(2022. 02. 16.) 검토를 거쳐 예고
 - 예 고 일 : 2022. 02. 25.(문화재청 공고 제2022-71호)
 -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부터 30일 이상
 - 예고의견 : 해당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신청내용
 - 기존 지정 면적 : 1,457필지 402,526.4㎡
 - 추가지정 : 3필지 321㎡(풍납동 126-102, 152-75, 222-60)
 - 해 제 : 2필지 350㎡(풍납동 306-70, 227-33)
 - 추가지정 및 해제 후 면적 : 1,458필지 402,497.4㎡
- (4) 지정 및 해제 사유
 - 지정사유 :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풍납토성 내 II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 해제사유 :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변경(2015년)에 따라 III권역 내 정주성 향상을 위해 사적 해제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32-13번지/'21.01.07.)

○ (지정) 152-75번지('22.01.04.)

- 해당 지번은 서울 풍납동 토성의 동성벽 매입/정비지구(사적지정·매입 예정지에 해당)로 추가 사적 지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지정) 126-102, 222-60번지('22.01.04.)

- 해당 지역은 서울 풍납동 토성의 핵심시설지구(사적지정·매입 예정지에 해당)로 추가 사적 지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해제) 227-33, 306-70번지('22.01.04.)

- 풍납동 토성(사적) 내의 해당 지번에 대한 사적 지정의 해제(또는 철회)는 문화재보호법 제31조와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15.1./문화재청)에 따라 검토할 수 있음.
- 현재 해당 지번(227-33, 306-70)은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15.1./문화재청)에 따른 3권역 사적 적정성 여부 검토 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 절차를 거쳐 지정 해제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원안가결 12명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m ²)	지정 면적 (m ²)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102	대	116	116		
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2-75	대	89	89		
3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2-60	대	116	116		
		3필지		321	32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m ²)	지정 면적 (m ²)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306-70	대	224	224		
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7-33	대	126	126		
		2필지		350	350		

3. 공주 공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사적 「공주 공산성」의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공주 공산성 주변 고도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73필지 68,219.5m²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2년 제1차 위원회(2022.01.12.) 검토를 거쳐 지정 예고
- 예고결과
 - 예고일 : 2022. 02. 25.(문화재청 공고 제2022-68호)
 -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예고의견 : 별도 제출 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공주 공산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산성동 2번지 외 309필지
- (3) 신청내용<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 기존지정 : 지정구역 245필지 371,621.34m² / 보호구역 64필지 137,754.2m²
 - 추가지정 : 보호구역 73필지 68,219.5m²
 - 추가지정 후 면적 : 지정구역 245필지 371,621.34m² / 보호구역 137필지 205,973.7m²
- (4) 지정사유
 - 세계유산이자 사적인 공산성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공산성 남측지역)은 공산성의 남벽과 남동벽에 연결되어 공산성과 일체를 이루는 지형이며, 다수의 백제유물이 노출되어 공산성과의 연관성이 높음. 또한, 대상지역 일대가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지정된 점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된

점을 통해 응진 수도 시기의 백제 왕성으로서 문화유산의 완전성 차원의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 확대가 필요함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원안가결 12명

공주 공산성(公州 公山城) 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1.8.18(수)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사적
공주 공산성(公州 公山城)의 연접 임야의 경사지를 사적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공주 공산성(公州 公山城)으로 신청되었으며, 공산성의 연접지에 유구 분포와 지형이 일체화된 곳으로 “공주 공산성(公州 公山城)”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총 연장 2,660m의 고대 성곽으로 해발 약 110m의 능선에 위치하고 있는 공산성은 사적 제12호이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산성 내부에는 쌍수정, 추정왕궁지, 성안마을, 임류각지 등 여러 유적들이 입지
- 이번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신청지역(공산성 남측지역)은 세계유산 완충구역과 고도특별법 상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인근에 공산성 영동루와 이어지는 연결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은개골 역사공원이 인접. 현재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인근 주민들에 의해 경작지 등으로 훼손.
- 공산성 경계 일부지역(은개골역사공원 인근, 영동루 진입로)은 주택, 가건물, 경작지 등으로 훼손되고 있으며, 접근성도 양호하지 못해 활용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
- 세계유산 완충구역에 포함되어 있거나 고도특별법 상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구역에서는 제외되어 있어서 문화재 및 주변지역 보존·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세계유산 보존·관리계획’ 간 불일치 문제도 발생

4. 연혁 유래 및 특징

(1) 유적의 개요

□ 웅진왕도로서의 공산성

- 백제왕도인 웅진성(熊津城)은 지금의 공주 공산성(公州 公山城)임
 - 백제가 웅진에 도읍하던 시기(275~538년)에 중심 거성(據城)으로 기능하였으며, 당시의 정치·사회적 정황이 그대로 함축되어 있는 유적
 - 백제 멸망 후 신라는 백제고지를 무진주, 웅천주, 한산주로 분할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웅천성’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웅진성이란 명칭을 병

행·사용

- 웅진은 도읍을 의미하는 지역명으로 사용되었고, 나아가서는 강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으며, 단위성곽을 지칭하는 것으로도 사용
- 웅진성은 백제왕조가 공주로 천도하기 전부터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백제의 웅진천도는 고구려의 남침으로 황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방어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지역으로의 천도는 불가능하였을 것임
 - 따라서 웅진은 천도 이전부터 성과 같은 군사시설을 갖추고 있던 주요 거점도시였을 것으로 추정
- 그동안 진행된 유적조사는 공산성이 백제의 웅진성이었으며, 천도 이전부터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던 산성임을 보여줌
 - 이러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건물지 및 토성, 군사시설, 연지, 저장소 및 창고 등이 공산성 발굴조사 결과 드러났으며, 천도 이전부터 막강한 토호세력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 수촌리고분군의 발굴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 웅진성을 왕성으로 볼 수 있는 문헌기록도 다수 발견됨
 - 삼국사기는 문주왕이 475년 10월에 도읍을 웅진으로 옮겼으며 의자왕이 마지막까지 후퇴했던 곳도 웅진이라 했는데, 웅진 또는 웅진성이 어디였는가를 여러 시대의 사서들을 종합해서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음
 - 시대 순으로 살펴보면, 백제시대의 웅진, 웅진성이 당나라에 의해 웅진도독부로 변경되고, 통일신라시대에 웅천주, 웅주로, 고려시대에 공주, 공산성으로, 조선시대에는 공주, 쌍수산성으로 불리다가 현재 공주시, 공산성으로 변천
 - 중국의 「한원(翰苑)」은 백제의 오방성중에 북방성으로 웅진성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고마성(固麻城)으로 불리다가 하면 규모가 일리반(一里半)이란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그 근거가 될 수 있음

[웅진백제시대 공산성 관련 삼국사기의 기록]

원 본	해 석
『三國史記』卷第二十六「百濟本紀」第四 文周王元年 冬十月 移都於熊津	「삼국사기」 권 제26 「백제본기」 제4 문주왕 원년(475) 겨울인 10월에 도읍을 웅진으로 옮겼다.
『三國史記』卷第二十六「百濟本紀」第四 文周王三年 春二月 重修宮室	「삼국사기」 권 제26 「백제본기」 제4 문주왕 삼년(477) 봄 2월에 궁실을 고치고 수리하였다.
『三國史記』卷第二十六「百濟本紀」第四 東城王十三年 夏六月 熊川水漲 漂沒王都二百餘家	「삼국사기」 권 제26 「백제본기」 제4 동성왕 13년(491) 여름 6월에 웅천의 물이 넘쳐 왕도의 가옥 200여 채가 떠내려가거나 물에 잠겼다.
『三國史記』卷第二十六「百濟本紀」第四 東城王二十二年 春起臨流閣於宮東高五丈 又穿池 養奇禽 諫臣抗疏 不報 恐有復諫者 閉宮門	「삼국사기」 권 제26 「백제본기」 제4 동성왕 22년(500) 봄에 궁궐의 동쪽에 임류각을 세웠는데 높이가 5장이었다. 여기에 연못을 만들고 신비한 동물들을 길렀는데 이

	를 부당하다고 간하는 신하가 있었으나 왕은 듣지 않으면서 다시 간언하는 자가 있는 것을 싫어하여 궁궐의 문을 잠가버렸다.
『三國史記』卷第二十七「百濟本紀」第五 武王三十一年 春二月 重修泗泚之宮 王幸熊津城 夏旱 停泗泚之役 秋七月 王至自熊津	「삼국사기」 권 제27 「백제본기」 제5 무왕 31년(630) 봄 2월에 사비의 궁궐을 중수하면서 왕이 웅진성으로 거둥하였다. 여름에 가뭄이 심하기에 사비의 궁궐을 중수하는 일을 멈추었고 가을인 7월에 왕은 웅진에서 돌아왔다.
『三國史記』卷第五「新羅本紀」第五, 太宗王七年 秋七月 十三日 義慈率左右夜遁走 保熊津城 義慈子隆與大佐平千福等出降	「삼국사기」 권 제5 「신라본기」 제5 태종왕 7년(660년) 가을인 7월 18일 의자왕이 좌우의 측근을 데리고 밤에 도망하여 웅진성에 몸을 보전하고, 의자왕의 아들인 용이 대좌평 천복 등과 함께 나와서 항복하였다.
『三國史記』卷第三十七 雜志 第六 地理四 百濟, 北史云 百濟東極新羅 西南俱限大海 北際漢江 其都曰居拔城 又云固麻城 其外更有五方城	「삼국사기」 권 제37 잡지 제6 지리4 백제 북사에서 이르길 백제는 동쪽으로 신라에 다하고 서쪽과 남쪽이 함께 큰 바다에 한하였고 북쪽은 한강에 만난다. 그 도읍은 거발성이라 하며 또 고마성이라고도 전한다. 그 외에 5방성이 있다.

자료 : 공주시·공주대학교박물관, 2013, 웅진성 공산성, pp.244~248.

[웅진백제시대 공산성 관련 중국 및 일본사서의 기록]

원 본	해 석
『梁書』卷五十四 東夷列傳 第四十八 百濟傳, 號所治城曰固麻 謂呂曰檀魯 如中國之言郡縣也	「양서」 권54 동이열전 제48 백제전. 도성을 고마라고 하며, 읍을 담로라 하는데, 이는 중국의 군현과 같은 말이다.
『翰苑』券蕃三十 蕃夷部 百濟條 「括地志」, 百濟王城 方一里半 國東北六十里 有熊津城 一名固麻城	「한원」 권번30 변이부 백제조 「괄지지」. 백제왕성의 둘레는 일리반이다. 나라의 동북쪽 60리에 웅진성이 있는데, 고마성이라고 불린다.
『周書』卷四十九 列傳 第四十一 異域 上 百濟, 百濟者, 其先蓋馬韓之屬國, 夫餘之別種, 有仇台者, 始國於帶方, 故其地界東極新羅, 北接高句麗, 西南俱限大海, 東西四百五十里, 南北九百餘里, 治固麻城, 其外更有五方, 中方曰古沙城, 東方曰得安城, 南方曰久知下城, 西方曰刀先城, 北方曰熊津城,	「주서」 권49 열전 제41 이역 상 백제. 백제는 선조들이 마한에 속국으로 있었으며 부여에서 갈라져 나왔다. 구태가 대방에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고 그 땅은 동쪽으로 신라에 닿고, 북쪽은 고구려에 닿으며, 서남쪽은 모두 큰 바다에 가로막혀 있다. 동서 450리, 남북 900여리고 고마성이 다스린다. 그밖에 또 다섯 지역이 있다. 가운데 지역은 고사성이라 부르고, 동쪽 지역은 득안성이라 부르고, 남쪽 지역은 구지하성이라 부르고, 서쪽 지역은 도선성이라 부르고, 북쪽 지역은 웅진성이라 부른다.

자료 : 공주시·공주대학교박물관, 2013, 웅진성 공산성, pp.249~250.

□ 통일신라에서 고려까지 웅천주의 치소로서의 공산성

- 고려 태조 23년의 지명 변천과 함께 웅천 또는 응주로 불리던 지역이 ‘공주’로 바뀌면서 종래의 ‘웅진성’ 또는 ‘웅천성’이었던 공산성도 ‘공주산성’ 또는 ‘공산성’으로 변경¹⁾
- 당시 전면적인 주(州)·부(府)·군(郡)·현(縣)의 명칭 개정이 있었는데, 그 일환으로 오늘날의 이름인 공주가 탄생²⁾

1) 치소(治所)란 한 주(州)의 감영(監營)이 있던 곳을 뜻함

- 이후 고려 초기에 공주도호부가 되었다는 『공산지(公山誌)』의 기록이 있으나 정사인 『고려사(高麗史)』나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는 이러한 기록이 보이지 않음
- 공주는 983년(고려성종 2년) 12목(牧) 중의 하나가 되어 공식적인 지방통치의 거점이 되었고, 1018년(고려현종 9년)에는 목에서 강등되어 군(郡)이 됨
 - 이때 전국의 행정구역이 4도호부·8목·56지주군사·20현령으로 개편되었는데, 공주군에는 지군사(知郡事)라는 지방관을 파견¹⁾
 - 공주가 다시 목으로 승격된 것은 1341년(고려 충혜왕 2년)인데, 공주가 지사군에서 공주목으로 승격된 배경에는 당시 원(元)나라의 활활적평장(闊闊赤平章)의 처인 경화옹주(敬和翁主)의 외향이었기 때문

[통일신라시대 공산성 관련 삼국사기의 기록]

원 본	해 석
『三國史記』卷第九「新羅本紀」第九 景德王十六年, 冬十二月改 沙伐州 為 尚州 領州一郡十縣三十 敵良州 為 良州 領州一小京一郡十二縣三十四 靑州 為 康州 領州一郡十一縣二十七 漢山州 為 漢州 領州一小京一郡二十七縣四十六 首若州 為 朔州 領州一小京一郡十一縣二十七 熊川州 為 熊州 領州一小京一郡十三縣二十九 河西州 為 溟州 領州一郡九縣二十五 完山州 為 全州 領州一小京一郡十縣三十一 武珍州 為 武州 領州一郡十四縣四十四	「삼국사기」 권 제9 「신라본기」 제9 경덕왕 16년 겨울 12월에 사벌주를 상주로 고치고, 1주 10군 30현을 거느리게 했다. 삼랑주를 양주로 고치고 1주 1소격 12군 34현을 거느리게 했다. 청주를 강주로 고치고 1주 11군 27현을 거느리게 했다. 한산주를 한주로 고치고 1주 1소경 27군 46현을 거느리게 했다. 수약주를 삭주로 고치고 1주 1소경 11군 27현을 거느리게 했다. 웅천주를 웅주로 고치고 1주 1소경 13군 29현을 거느리게 했다. 하서주를 명주로 고치고 1주 9군 25현을 거느리게 했다. 완산주를 전주로 고치고 1주 1소경 10군 31현을 거느리게 했다. 무진주를 무주로 고치고 1주 14군 44현을 거느리게 했다.
『三國史記』卷第三十六 雜志 第五 地理三, 新羅 熊州 本百濟舊都 唐高宗遣蘇定方平之置熊津都督府新羅 文武王取其地有之 神文王改爲 熊川州 置都督 景德王十六年 改名熊州 今公州 領縣二 尼山縣 本百濟熱也山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淸音縣 本百濟伐音支縣 景德王改名 今新豐縣.	삼국사기」 권 제36 잡지 제5 지리3 신라 웅주는 본래 백제의 옛 서울이었다. 당 고종이 소정방을 보내어 이를 편정하고 웅진도독부로 삼았다. 신라 문무왕이 그 지역을 취하여 소유하였다. 신문왕이 웅천주로 고쳐 삼았으며, 도독을 주었다. 경덕왕 16년에 웅주로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공주이다. 영현(領縣)은 2개이다. 이산현은 본래 백제의 열야산현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까지 그대로 따른다. 청음현은 본래 백제의 벌음지현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신평현이다.

자료 : 공주시·공주대학교박물관, 2013, 웅진성 공산성, pp.251~252.

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공주의 고려시대(高麗時代)’(<http://www.grandculture.net>).

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공주의 고려시대(高麗時代)’(<http://www.grandculture.net>).

[고려시대 공산성 관련 고려사의 기록]

원 본	해 석
『高麗史』卷五十六 志十 地理一 清州牧 公州, 公州 本百濟熊川文周王自漢城徙都之至聖王 又移都南扶餘, 新羅與唐夾攻滅之唐置熊津都 督府留兵鎮之唐師既去新羅盡有其地.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청주목 공주 공주는 본래 백제의 웅천이었고, 문주왕이 한성에서 도읍을 여기에 옮겼으며 성왕이 다시 남부여로 도읍을 옮겼다. 신라와 당이 와서 그를 공격하여 멸하면서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고 여기에 군사를 주둔시켰는데 당이 물러나면서 신라가 그 땅을 차지하였다.

자료 : 자료 : 공주시·공주대학교박물관, 2013, 웅진성 공산성, p.252.

□ 조선시대 충청수부로서의 공산성

- 공산성이란 명칭은 조선중기까지 사용되다가 이괄의 난을 계기로 ‘쌍수산성’(雙樹山城)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고, 이후 각종 기록의 공식명칭은 쌍수산성으로 전환¹⁾
- 이괄의 난과 공주 파천²⁾
 - 1624년 1월 24일, 이괄은 자신의 부하장수 이수백, 기익현 및 구성부사 한명련과 함께 가까운 병영의 군사 1만여 명과 항왜병 100여 명으로 평안도 영변을 출발하여 먼저 개천을 점령하고 평양으로 진격
 - 이괄은 막강한 군대와 탁월한 작전으로 장만, 이수일 등이 이끄는 관군을 차례로 격파하면서 남하, 보름 만에 한양 근교인 벽제관까지 육박
 - 이때 대사간 장유가 공주산성(公州山城)은 앞에 큰 강이 있어 형세가 매우 좋고 길도 멀지 않으니 급히 들어가 점거하고 있으면서 형세를 보아 진퇴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
 - 이에 인조는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공주에 머무름
 - 비록 비상시의 상황이고 5박 6일간에 불과했지만, 이 기간 동안 공주의 공산성은 조선왕조의 임시 왕도로서 기능
 - 인조는 공산성 안 감영 건물에 임시로 머물렀는데 당시 충청감영은 성지가 좁아 공주목의 옛 감영자리로 옮긴 후여서, 공산성에 남아있던 시설들은 마치 왕이 행차할 것을 준비라도 한 듯 불과 1년 전 공주목사 송홍주에 의해 대대적인 중수가 이뤄진 후임
 - 2월 15일, 적장 이수백·기익현 등이 이괄·한명련 등의 목을 베어가지고 와서 바쳤고, 이에 인조는 16일에 과거를 실시하고 18일에 회정(回程)하도록 지시
 - 인조는 서울 사람은 과거에 응시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호종한 음관·유생과 무인은 이조·병조로 하여금 미리 문부를 만들어 기록하여 환도(還都)한 뒤에 즉시 과장(科場)을 설치하도록 하고, 충청도와 전라도 사람들만 과거에 응시하도록 하니 이것이 바로 갑자(甲子)년 공주정시(公州處試)였음

1) 수부(首府)란 한 도(道)의 감영(監營)이 있던 곳임.

2) 공주시·공주대학교박물관, 2013, 웅진성 공산성, pp.288~294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

- 또한, 공주는 대동미 두 말을 감면하고 도성에서 공주까지 오면서 지나온 각 고을은 한 말을 감면하되, 모두 3년으로 한정하고 혹 흉년이 들면 상황에 따라 또 감면하도록 함

[조선시대 공산성 관련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

원 본	해 석
『世宗實錄地理志』世宗 149 地理志 忠清道 「公州牧」, 公山石城 - 在州北二里 周回五百九十七步 險阻臨熊津 內有泉三 冬夏不渴 有軍倉	「세종실록지리지」 세종 149 지리지 충청도 「공주목」 공산석성은 주치소에서 북으로 2리의 거리에 있으며, 성의 둘레가 597보이다. 웅진에 접한 험한 성인데 안에는 우물이 3개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에도 마르지 않으며 또한 군창이 있다.

자료 : 공주시·공주대학교박물관, 2013, 웅진성 공산성, p.254.

[조선시대 공산성 관련 여지도서의 기록]

원 본	해 석
城池 - 雙樹山城 - 古名公山城在州北三里甲子适變 仁廟駐蹕于雙樹下故因名雙樹山城 城周圍以丈計之則一千八百二十三丈 以布尺計之則五千四百六十九尺 以步計之則二千四百四步 高三丈九尺三步半堦八百五堦	「여지도서」 「공주목」 성지 : 쌍수산성 옛 이름은 공산성이며 주치소에서 북으로 3리 에 있는데 갑자년에 이괄의 반란이 있을 때에 인조가 이 성의 쌍수 아래에 머물렀던 것을 인연으로 쌍수산성이라 이름 하였다. 성의 둘레는 장으로 계측하면 1,823장이고, 포척으로 계측하면 5,469척이다. 그리고 걸음길이인 보로 계산하면 2,404보인데 높이는 3장, 혹은 9척, 혹은 3보이며, 반량으로 805개의 첩이 있다.
池 - 四方周面六十四丈深二丈旱則水乾 東北間水口門外鑿一池 築外城丈三十五丈五十二尺四 十四步高五丈十八尺半步半堦三十堦 左邊翼城長二十五丈三十五尺三十七尺三十一步高二丈三尺二步半堦三十 堦右邊翼城與左邊翼城同石築暗門一	연못 : 사방 네 면의 너비가 64장이고 깊이는 2장이거나 가물면 물이 마른다. 이에 성의 동북쪽 수구문밖에 하나의 연못을 팠는데 외성으로 35장, 52척, 44보의 길이에, 높이는 5장 혹은 18척, 반보 반에 30첩을 갖추어 쌓았고, 또한 좌변 익성으로 길이 25장, 35척, 37척, 보로 계산하면 31보에 높이는 2장 3척, 혹은 2보반에 30개의 첩이 있다. 우변의 익성은 좌변의 익성과 같은 방법으로 쌓았으며 1칸 규모의 암문도 둘로 쌓았다.

자료 : 공주시·공주대학교박물관, 2013, 웅진성 공산성, p.255.

□ 근·현대 시기 생활터전으로서의 공산성1)

○ 성안마을의 형성과 발전

- 조선왕조는 1895년(고종 32) 7월 칙령 제140호와 제141호에 따라 전쟁양상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기능을 다한 전국의 산성과 군영을 폐지
- 공산성 내에 존재했던 군영이 폐지되고 공북루 앞쪽의 군영터 등에 하나둘씩 민가(주로 뱃일을 하는 하층민)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산성과 군영 소재지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터로 바뀌기 시작
- 1960년대 무렵까지 성안마을에만 1백여 세대가 거주했으나, 1990년대 초반 백제 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성안마을 주민(총 53호)들에 대한 이주가 이루어졌

1) 공주시·공주대학교박물관, 2013, 웅진성 공산성, pp.295~296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

고, 지금은 마을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음

- 일제강점기 초기 공산성 내 토지(국유지)가 김갑순에게 불하(拂下)되면서 공북루 인근의 문화유적들이 하나둘씩 파괴되기 시작
 - 김갑순은 군영터에 남아있던 각종 건물을 해체한 뒤 그 부재를 활용해 다섯 채의 미곡창고와 가옥(작은댁), 자신의 재실, 웅심각 등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쌀가마를 손쉽게 운반하기 위해 지금 금서루 자리의 언덕을 낮추는 공사까지 주도
- 산성공원의 형성과 기능의 변화
 - 일제강점기 공주는 충남 도청소재지였기 때문에 많은 일본인들이 거주했으며, 총독부는 강점 초기부터 도로와 교량(금강교, 배다리)을 건설하는 동시에, 1918년 시가지 정비사업을 통해 직선격자형 가로망을 구축하는 등 ‘감영도시’를 ‘식민도시’로 개조
 - 이 과정에서 공주에도 여느 식민도시와 마찬가지로 신사와 공원이 건립되었는데, 대표적인 공원이 조선왕조 시기 월명대 자리에 임지한 생산공원(현재의 중앙공원)과 공산성에 있는 산성공원이었음
 - 1928년 여름 공주소년동맹 주도로 공산성(산성공원)에서 임간학교(숲속학교)가 열리기도 했는데, 이는 공산성을 공원화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음

(2) 시·발굴조사 결과

1) 공산성

□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의한 조사

- 1980년 이후, 백제문화권개발사업¹⁾의 일환으로 공산성 내부 평탄지에 대해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진행하여 백제시대 추정왕궁지와 주변의 관련시설을 조사
 - 1980년 발굴조사는 국가적 관심에서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의 첫걸음이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공산성 내 백제시대 관련유적 발굴조사는 꾸준히 진행
- 특히, 1985~1986년 추정왕궁지 확인, 1988년 토성지 성채 파악, 2005년 왕궁부속지 발굴은 큰 의미가 있는 발굴조사 결과

□ 추정왕궁지 조사

- 1985년 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이후 1986년 전면 발굴조사에서는 조사대상지역 전체에 대한 전면제토가 이루어졌으며, 관련유구의 노출이 순차적으로 진행
 - 유구는 수혈식의 대형 건물지를 비롯해 기둥을 세웠던 구덩이만 남겨진 굴립주 건물지와 대벽 건물지, 적심을 설치하고 초석을 올렸던 건물지가 전 지역에 산재된 형태로 발견
 - 또한, 용수를 저장하기 위해 석축으로 조성한 연못과 지하 목곽고로 조성된 저장시설 등 많은 유구들이 노출
- 대규모로 조성된 다양한 성격의 유적을 근거로 웅진백제 도읍기 왕궁지로 추정

1)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이란 충남도가 공주·부여·계룡시 일원을 경주의 신라문화권에 견주는 역사, 문화, 관광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민자 등 2조 1,434억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문화유적 정비사업임. 한국경제, 2004.03.22.일자, 「백제문화권개발은 어떤사업인가?」의 내용을 발췌·인용함.

- 추정왕궁지 발굴조사 결과 백제시대 건물지를 비롯해 연못, 목곽고, 저장 구덩이 등이 확인되어 웅진도읍기 왕궁지로 추정
- 최상층에서는 조선시대 건축물로 추정되는 시설이, 그 중간에 통일신라시대의 유구가 확인되었고, 가장 아래쪽에서 백제시대 건축 유구가 고루 분포
- 굴립주 건물은 기둥을 세우기 위해 지반에 판 구덩이(굴립주공)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구덩이가 왕궁지 유적 내에서 수백 개가 확인되어 굴립주 건물이 백제 웅진도읍기 건축의 일반적 기법임을 보여줌

[공산성 추정왕궁지 및 건물지 발굴모습]



자료 : 공주대학교박물관·공주시, 2013, 웅진성 공산성, pp.58~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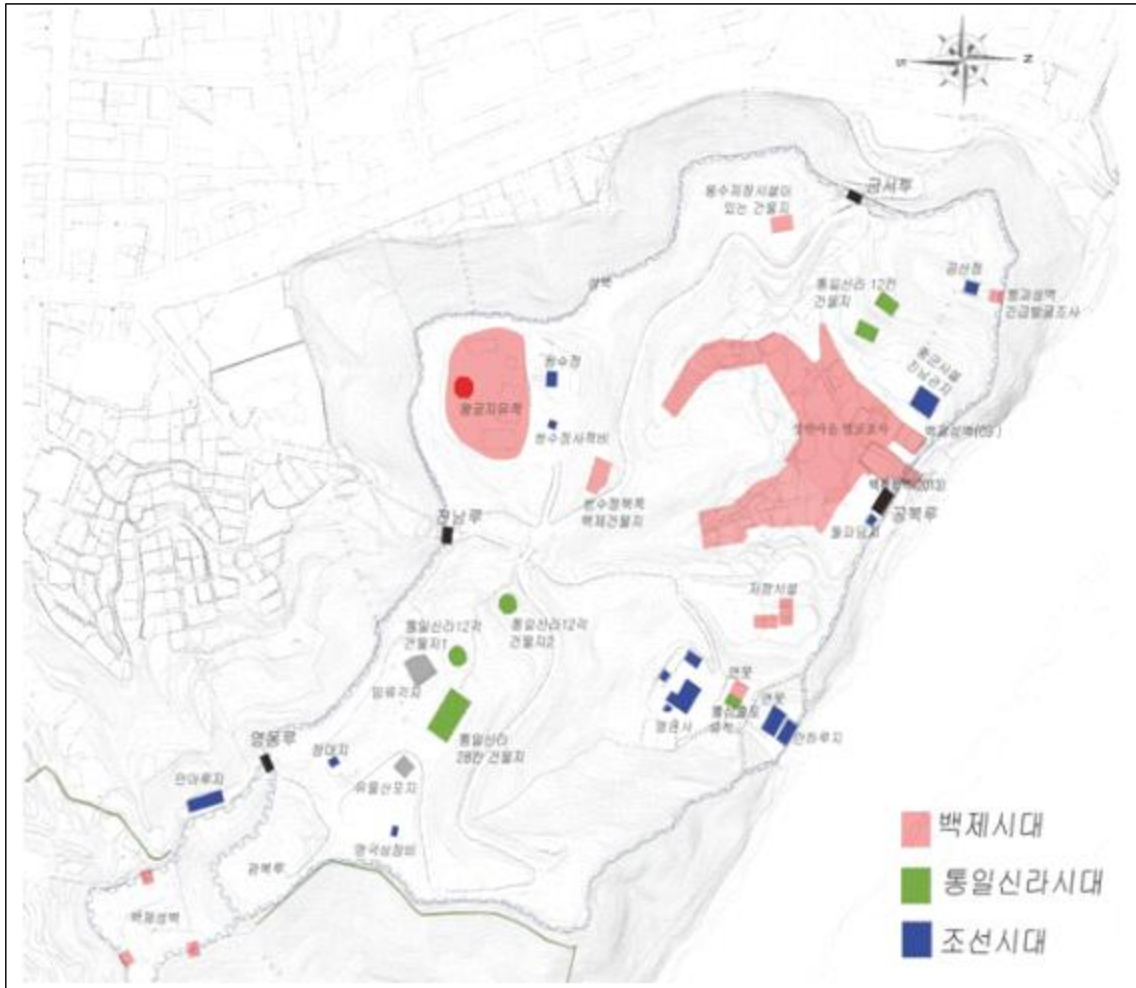
□ 토성지 조사

- 1988년 발굴조사는 공산성 동쪽에 남아있는 토성 등의 성체를 대상으로 진행
 - 유일하게 토성으로 남은 지역에서 내·외성 구역 전체를 망라하면서 표면의 절토조사 등을 광범위하게 진행하였고, 그 결과 백제시대의 토성 흔적의 확인은 물론 토성이 조선시대까지 구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 다만 공산성 내 토성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초기의 토성에서 석성으로의 전환과정은 파악하지는 못함

□ 왕궁부속시설지(성안마을) 조사

- 공주시는 1980년대부터 공산성 왕궁부속시설지 내에 잔존하고 있는 백제시대 유적의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발굴조사를 진행
 - 공산성 왕궁부속시설지(성안마을) 내 백제시대 문화층에 대한 발굴조사는 2011년에 이루어진 제4차 조사 이후 2012년 제5차, 2013년에 제6차, 2014년 제7차, 2015년에 제8차, 2016~2017년에 제9차로 이루어짐
 - 특히 공산성 내 공북루 남쪽 대지에 대한 9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계획적인 도로의 구획과 배수시설을 중심으로 규칙적인 분포를 보이는 대규모의 건물지가 집중되어 있는 백제 왕궁 관련 유적을 확인

[공산성 내 백제유적 현황]



자료 : 공주시·공주대학교박물관, 2019, 공산성 성안마을 제9차 발굴조사, p.16.

-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백제의 웅진 도읍기 왕궁이 성내에 있다는 논거를 마련하게 됨과 동시에, 공산성이 웅진성으로서의 구체성을 입증하는 계기를 마련
- 2000년대에 들어서 공북루 남쪽의 성안마을 내 백제유적층 확인을 위한 시·발굴조사 이후 조선시대 문화층과 백제시대 문화층에 대한 단계적인 발굴조사를 실시
- 종합하면, 공산성에 대한 조사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최근까지 크고 작은 조사가 약 30여 차례 이상 진행.

[공산성의 발굴조사 추진현황]

구분	조사연도	유적명	조성연대	조사내용
1	1980년	만아루지	조선시대	다듬은 돌로 쌓은 축대 확인
2	1980년	임류각지	백제~조선	5칸X6칸의 방형건물지, '流'명문 외편 출토
3	1980년	동문지	조선시대	폭 2.4m, 출입구 길이 6.4m, 개거식성문
4	1980년	장대지	조선시대	2칸X2칸, 적심만 잔존
5	1982년	지당1	조선시대	용수공급시설, 영은사 앞쪽 외성벽 안쪽
6	1982년	만하루지	조선시대	지당1 앞에 있는 3칸X2칸의 루각

구분	조사연도	유적명	조성연대	조사내용
7	1983년	압문지	조선시대	지당1로 통하는 통로
8	1983~4년	지당2	백제~통일신라	영은사 앞, 통일신라 금동불상 6구 출토
9	1985~6년	추정왕궁지	백제시대	건물지, 연못, 목곽고, 저장고 확인
10	1987년	중군영지	조선시대	진남관, 부속시설 확인
11	1988년	토성지	백제~조선	동벽 토루 확인
12	1989년	28칸 건물지	통일신라	정면 7칸, 측면 4칸 규모
13	1989년	광복루광장	백제시대	연화문 와당, 백제토기 출토
14	1990년	12각 건물지	통일신라	초석이 3열로 배치
15	1990년	굴림주건물지	백제시대	쌍수정 북사면에 위치
16	1991년	서문지 후면유적	백제~통일신라	굴림주 건물지 및 초석사용 건물지, 용수저장시설
17	1991년	12칸 건물지	통일신라	정면4칸, 측면3칸 규모
18	1991년	저장혈	백제시대	원형 및 방향의 저장구덩이
19	1991년	건물지	조선시대	축대만 잔존
20	1993년	지당2	백제~통일신라	영은사 앞쪽 통일신라 금동불상이 출토된 지당2의 전체조사
21	2004년	성안마을유적 시굴조사	백제~조선	성안마을 전체범위 시굴, 백제~조선시대 문화층 확인
22	2008년	성안마을유적 1차조사	백제,조선시대	성안마을 북서쪽 발굴, 백제시대 문화층 확인, 조선시대 중군영지 발굴조사
23	2009년	성안마을유적 2차조사	백제,조선시대	성안마을 내 중군영지 부근 건물지 발굴, 광복루 서쪽 백제시대 내축 성벽확인
24	2020년	성안마을유적 3차조사	조선시대	성안마을 내 중군영지 부속 건물지 발굴
25	2011년	성안마을유적 4차조사	백제시대	백제시대 건물지 7동, 저수시설, 축대, 배수로, 정관19년(645)명 옷칠갑옷, 마갑, 무기류 다수
26	2012년	성안마을유적 5차조사	백제시대	백제시대 건물지8동, 축대, 철기제작 공방지, 대통사명 벼루, 젓가락, 철기, 인각와 등 다수
27	2012년	공주 공산성 토성지 시·발굴	백제시대	동쪽 토성지의 북벽에서 토석 혼축의 성벽 확인, 내성 판축, 외성 석축, 백제 와관묘, 통일신라시대 골호 등
28	2013년	성안마을유적 6차조사	백제시대, 통일신라	백제시대 건물지 7동, 도로, 축대, 출입구, 사족호, 벼루, 와당, 인각와, 통일신라시대 진단구 등 다수
29	2013년	공주 공산성 붕괴성벽 긴급발굴조사	백제~조선시대	공산성 북서쪽의 공산성 부근에 붕괴된 성벽에 대한 발굴, 백제시대 성벽 기초부와 내탁의 판축부 확인
30	2014년	성안마을유적 7차조사	백제시대	백제시대 건물지7동, 목곽고, 저수시설, 6m너비의 도로 등, 철제갑옷, 옷칠마갑, 대도, 장식도, 마구류 등 다수
31	2014년	공주 공산성 왕궁지 발굴조사	백제시대, 고려~조선시대	백제시대 건물지 2동, 수혈주거지, 수혈, 대지조성토층 등 고려~조선시대 수혈주거지, 수혈, 미상유구

구분	조사연도	유적명	조성연대	조사내용
32	2015년	성안마을유적 8차조사	백제시대, 통일신라, 조선시대	백제시대 건물지 31동, 연못, 추정공방지, 도로, 축대, 배수로, 마당지 등, 통일신라시대 건물지2동, 수혈, 집수시설, 소성유구 등, 조선시대 건물지2동, 수혈유구 4기, 미상유구 2기, 연못 등
33	2016 ~2017년	성안마을유적 9차조사	백제시대, 통일신라, 조선시대	백제시대 건물지 19동, 도로, 축대, 배수로, 마당지 등,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5동, 수혈 등, 조선시대 미상유구 2기, 근대 연못 등

자료 : 공주시·공주대학교박물관, 2019, 공산성 성안마을 제9차 발굴조사, pp.18.~20.

- 공산성 남쪽의 성안마을에 대한 조사는 1980년대 공산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시작된 이래, 2005년에 처음으로 문화재 시·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
- 공주시 금성동 10-1번지 일원의 성안마을에 대한 조사가 1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당시 조사를 통해 성안마을 내 문화유적의 존재현황을 파악하였고 지표면에서 약 2~4m 내외의 깊이에서 조선시대 문화층이, 5~7m 내외의 깊이에서 백제시대 문화층 확인

[공산성 내 백제유적 현황]



자료 : 공주시·공주대학교박물관, 2019, 공산성 성안마을 제9차 발굴조사, p.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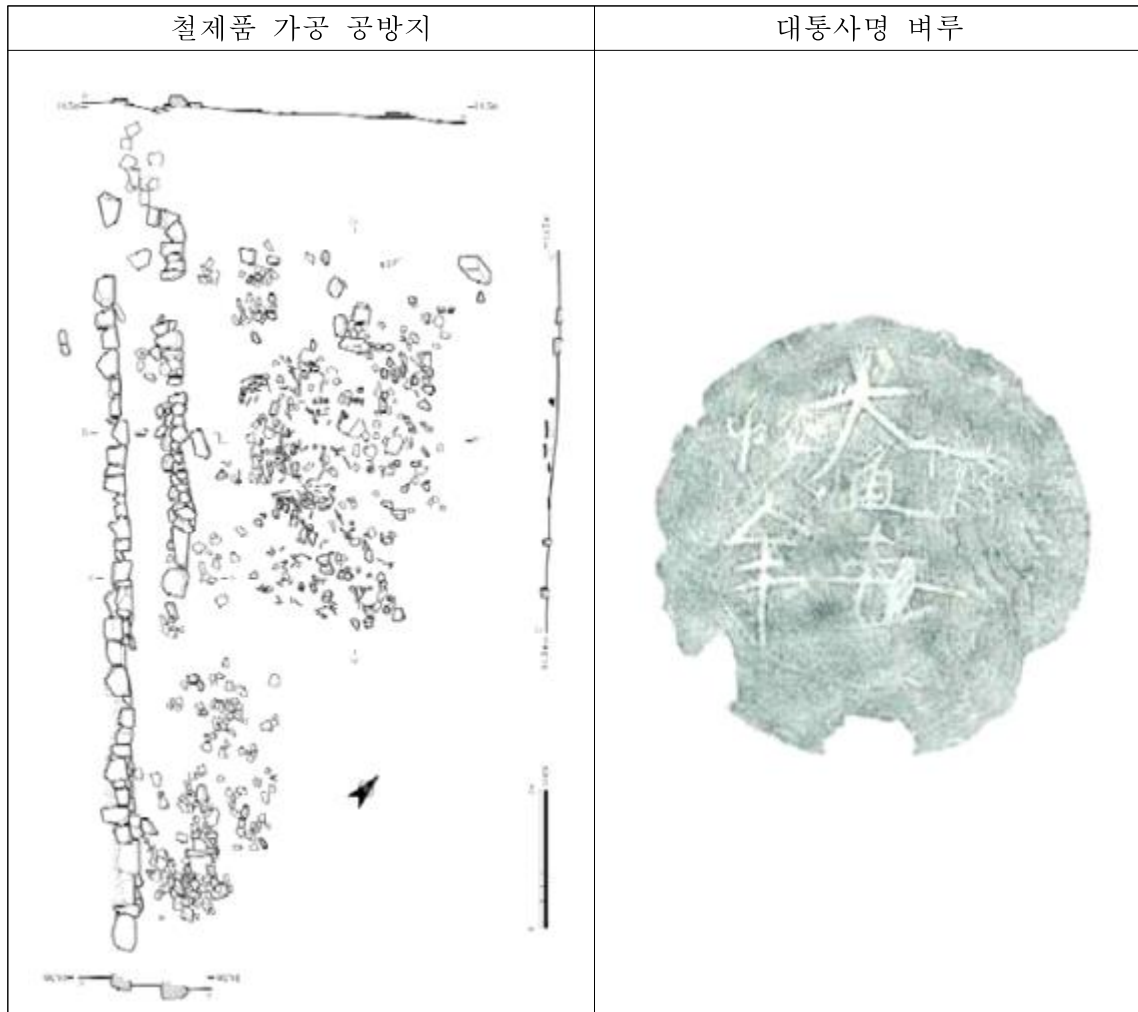
[성안마을 내 백제유적 관련 유구 현황]



자료 : 공주시·공주대학교박물관, 2019, 공산성 성안마을 제9차 발굴조사, p.22.

- 2005년의 시·발굴조사 결과를 기초로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중층으로 형성된 유적을 단계적으로 조사하여 연차조사가 진행
 - 1~3차에 걸친 발굴조사는 2008년의 성안마을 내 중군영지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2009년에는 성안마을 남서쪽에 해당하는 금서루(錦西樓) 진입부 일대에 대한 2차조사, 2010년 공북루 앞쪽 광장을 포함한 성안마을 동쪽 구역에 대한 3차 조사로 구분
 - 이 조사를 통해 성안마을 내 충청감여과 중군영 시설과 관련된 조선시대 문화층에 대한 전체 현황을 파악
- 이후 공산성 성안마을 내 백제시대 문화층에 대한 발굴조사는 2011년에 이루어진 제4차 조사에서 처음 시작하여 2016년 제9차 조사까지 진행
- 2011년의 제4차 발굴조사는 공북루(拱北樓) 앞 남쪽 광장의 평탄지대 약 3,300 m²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안마을 내에서 가장 저지대에 해당
 - 조사결과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직후 조영한 굴림주 건물지부터 백제 멸망기 웅진성의 현황을 알 수 있는 대단위 화재 폐기층에 이르기까지의 단계적인 변화·발전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유적을 확인
 - 특히 건물지 내 저수시설에서는 645년(의자왕 5년)을 가리키는 ‘정관 19년명’이 있는 화려한 옷칠 갑옷과 마갑, 규도도 등을 비롯한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어 백제의 선진적인 공예기술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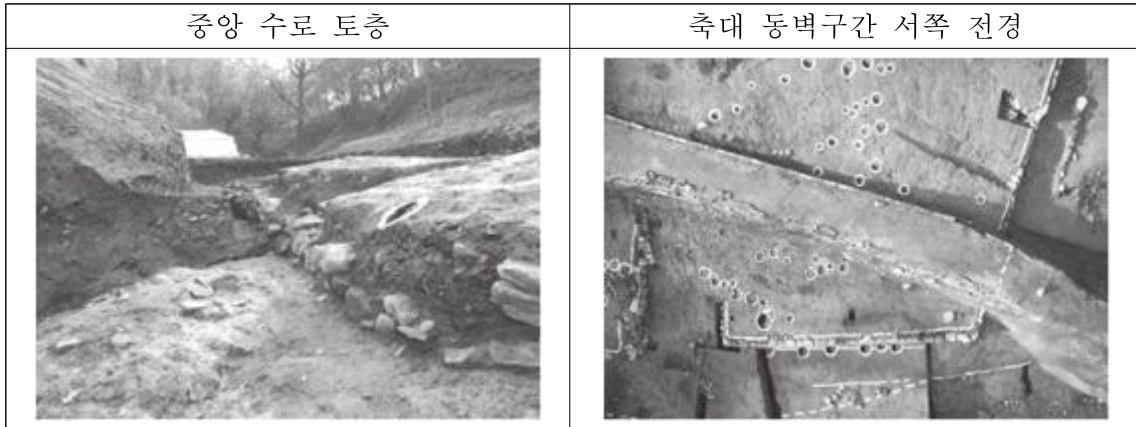
[제5차 조사 유구 및 유물]



자료 : 공주시·공주대학교박물관, 2016, 공산성 성안마을 제4~5차 발굴조사, p.173.

- 2013년에 진행된 제6차 발굴조사는 공북루 남쪽 저지대 중앙의 동남쪽 꼭부에 해당하는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쌍수정 일대의 추정왕궁지와 연결구간을 확인하고자 하려는 목적에서 실시
 - 쌍수정과 추정왕궁지를 연결하는 중요 도로구간의 확인과 백제인의 건축술을 확인
 - 백제시대 건물지 6기, 축대와 출입시설, 수혈유구, 계곡부의 수로,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2기와 수혈유구 3기, 진단구 3지점, 조선~근대 건물지 2기와 우물지 1기 등을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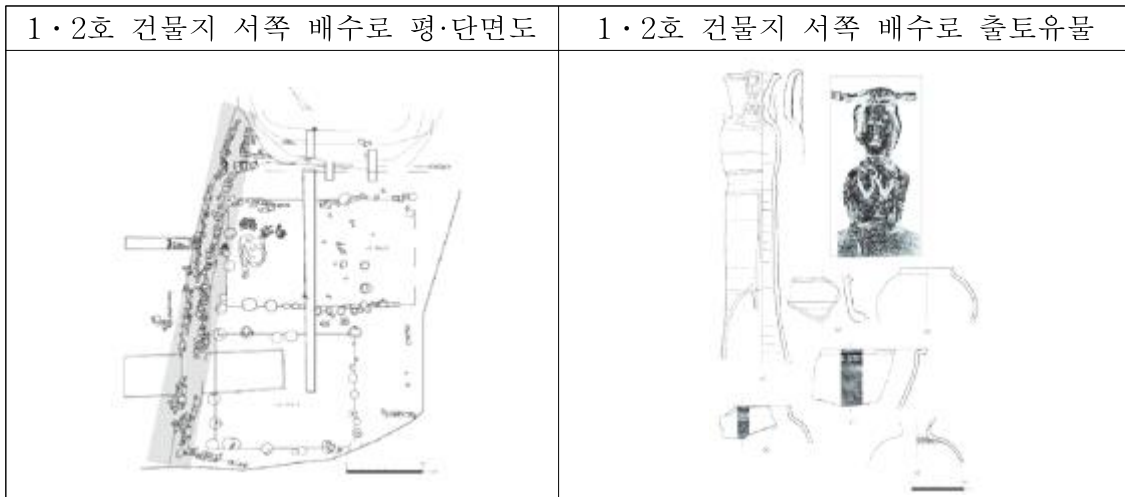
[제6차 조사 모습]



자료 : 공주시·공주대학교박물관, 2018, 공산성 성안마을 제6차 발굴조사, p.169.

- 2014년의 제7차 발굴조사는 공북루 남쪽 대지 중앙에 해당하는 곳으로, 2011년 제4차 조사지역의 서쪽에 인접한 곳이며 당시 절반만 조사를 진행하였던 저수 시설과 대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짐
- 제8차 발굴조사는 성안마을 내 전체 범위 가운데 북서쪽에 해당하는 곳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
- 백제시대 건물지 31동(벽주건물지, 초반건물지), 연못, 도로, 축대, 배수로, 마당지와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2동, 수혈, 집수시설, 소성유구, 미상유구가 조사되었으며, 조선시대 건물지 2동, 수혈유구 4기, 미상유구 2기, 연못, 근대에 조성된 우물 1기 등을 확인

[제7차 조사 유구 및 출토 유물]



자료 : 공주시·공주대학교박물관, 2018, 공산성 성안마을 제7차 발굴조사, p.63.

[제8차 조사 현황도]



자료 : 공주시·공주대학교박물관, 2015, 공산성 성안마을 내 유적 제8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p.10.

- 제9차 발굴조사는 공산성 공북루 남쪽대지의 서남쪽에 해당하는 I 지점과 공북루의 동북쪽에 인접한 II 지점으로 구분하여 조사
 - I 지점은 공산성 서문인 '진남루'에 연결되는 지점이며, II 지점은 공북루 동쪽의 대지에 해당하는 곳으로, 과거 시굴조사를 통해 백제시대의 문화층을 확인한 곳임
 - 발굴조사 결과 I 지점에서는 백제시대 건물지 8기, 수혈유구 7기, 미상유구 3기,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2기, 이후의 미상유구 4기가 발견
 - 조사지역의 중앙을 가로질러 금서루쪽으로 연결되는 중심도로와 주변의 측구시설, 계단상의 5단으로 조성된 공간구획을 확인
 - II 지점에서는 백제시대 건물지 11기, 주거지 1기, 수혈유구 4기,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3기, 매납유구 2기, 미상유구 4기, 조선시대 수혈유구 1기, 근대 우물지 1기 등 대형의 수로와 도로를 확인

[제9차 조사 유구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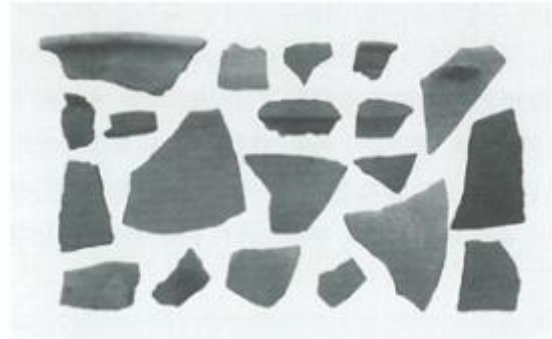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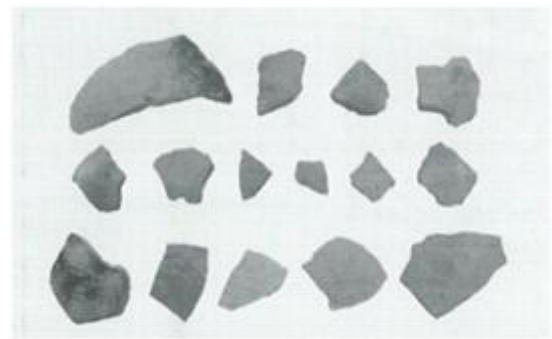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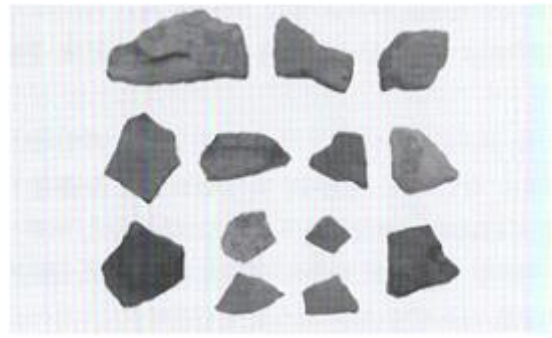



자료 : 공주시·공주대학교박물관, 2019, 공산성 성안마을 제9차 발굴조사, p.28.

2) 공산성 능선부 조사

- 공산성 능선부는 토성이 위치한 지역과 연결되는 구릉지로 크게 3개의 가지능선으로 형성
 - 공산성에서 남쪽과 남동쪽으로 연결되는 지역으로, 토성으로 이루어진 공산성의 외성에서 경사도가 급하게 내려가다가 가지능선으로 구분되는 곳의 상부면에 평탄면이 위치
- 이곳 능선부는 공산성 토성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곳으로 능선의 전 범위에 서 다량으로 유물이 발견
- 3개 가지능선 중 가장 서쪽에 위치한 곳에서는 다수의 토기편과 더불어 기와편이 확인되었는데 토기 중에는 파상문이 시문되어 있는 뚜껑이나 격자타날의 토기편이 다수였고, 벼루 등의 특수한 유물도 발견
 - 이 구역에서 수습된 유물들은 연질토기의 비율이 높았으며, 자배기 등의 기종이 확인되고 있어서 공산성 일대가 웅진도읍기 중심지적 역할을 했다고 가정할 때, 이 일대는 공산성과 관련된 생활유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 가지능선 중 중앙능선은 표고 50m 내외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공산성 토성지 밖의 남쪽 선상부와 남서향의 사면부를 중심으로 유물이 발견
 - 파상문, 격자문, 선문 등의 다양한 문양의 타날문 토기와 승문토기도 수습되었으며, 굽다리접시(고배)와 뚜껑도 다수 확인
 - 수습된 유물들과 공산성과의 인접성을 고려해 볼 때 공산성 내에 왕궁과 왕궁관련시설들이 집약되어 있었다면, 이 지역에는 일반백성들이 거주하던 생활유적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
- 3개의 가지능선 중 가장 동쪽에 위치한 곳은 서남향의 사면부 일대로 표고 약 30~60m로, 최근 경지정리를 진행하였으며 훼손된 지형 주변으로 다수의 유물이 발견
 - 유물은 해당 지역의 전면에서 발견되었으며 승문토기와 격자문, 파상문 등의 토기편이 다수
 - 특히 능선의 하단부에서 어망추와 다수의 연질토기, 자배기 등의 유물을 통해 볼 때, 이곳 역시 생활유적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 종합하면, 공산성 능선부는 토성과 인접해 연결되는 구릉지로 백제시대 출입 상여건도 양호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출토된 유물들도 기와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건물지 등 생활유적이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정확한 시기는 확정할 수는 없으나, 지표면에서 확인되는 유물들이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폭넓게 발견되고 있어서 오랫동안 일반백성들의 거주지였을 것으로 보임

[공산성 능선부에서 출토된 유물]

<p style="text-align: center;">토기류</p> 	<p style="text-align: center;">기와류</p> 
<p style="text-align: center;">연질토기류</p> 	<p style="text-align: center;">기와 및 전류</p> 
<p style="text-align: center;">연질토기류 및 기와류</p> 	<p style="text-align: center;">어망추</p> 

자료 : 공주시·공주대학교박물관, 2013, 백제 웅진도성 고증을 위한 공주 고도지구 내 문화유적 전수조사, pp.71~80.

(3) 유적 및 주변지역 정비현황

- 공주 공산성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공주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2014년),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계획(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신청서)」(2013년),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기본계획」(2015년) 등 관련계획들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
 - 공산성의 정비는 1990년대에 확인된 유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주로 주요 건물지와 성곽 보수차원에서 진행
 - 공산성 내부의 유적들은 대부분 매장유적지로 발굴조사 후 거의 모든 유구가 복토된 상태
 - 왕궁지는 발굴조사 이후 복토 및 잔디 식재 등으로 정비하였고 나무데크와 철재

보호시설(펜스)를 둘러 관람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왕궁부속시설지 또한 모두 복토가 되어있고 주변에 소규모 체험시설들을 설치

- 진남루는 1971년에 해체·보수가 이루어졌으며, 공북루는 현재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고 있고, 영동루와 금서루는 1993년에 복원이 시행
- 공산성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환경과 편의·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토지매입과 함께 수목정비와 조경공사, 탐방로 및 관람로 정비,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설치, 공산성 역사관 조성, 주차장 조성 및 경관 개선 등과 같은 사업들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
- 공주 공산성 주변지역과 관련해서는 공산성 남서측 주차장 조성, 은개골 역사공원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 공산성은 주변에 다수 유적(송산리고분군, 정지산유적, 고마나루, 대통사지 등) 및 문화관광자원(제민천, 산성시장, 국립공주박물관, 공주한옥마을 등)이 입지해 역사탐방거점으로서 인근에 연결로 조성사업들이 계획 및 추진
- 이번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신청대상지는 공산성에서 남쪽과 남동쪽으로 연결되는 지역으로 토성으로 이루어진 공산성의 외성에서 경사도가 급하게 내려가다가 능선의 상부면에서 평탄면을 형성
- 능선의 경사도는 일부 급경사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양호한 편이며, 일부 경사면에도 평탄이 형성되어 있고 능선들은 모두 곡부로 연결
- 현재 해당 지역은 대부분 개간되어 밭과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묘역으로 조성
 - 별다른 시설물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과수원 지역은 과수원을 계단식으로 조성하면서 일부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
 - 과수원 지역은 대부분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이고 구릉 상부의 평탄면과 사면의 일부지역은 이미 자연적인 유실로 인해 생토면이 노출
- 공산성 내부의 지속적인 보수·관리 등 공산성과 주변지역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공산성 남측에 위치한 일부 경계지역은 후미진데다 접근성 문제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
 - 현재 해당 지역은 주택, 가건물, 경작지 등으로 훼손된 상황인데다 접근성도 양호하지 못해 활용성이 상당히 낮은 실정
 - 또한 구릉지로 되어있어 접근성이 불량해 고도보존육성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다, 지금은 주변 주민들에 의한 주택, 간이건물, 경작지 등으로 침범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산성이라는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대책이 시급
- 이번 공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신청지역은 유적 및 주변지역 보존·관리 및 정비와 합리적인 활용을 위하여 반드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요구되는 곳임
- 게다가, 이번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신청지역 대부분은 세계유산 완충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구역에서는 제외되어 있어서









문화재 및 주변지역 보존·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과 『고도 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유산 보존·관리계획』 간 불일치 문제도 존재함

- 『고도 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는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와 문화재구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을 우선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와 문화재구역의 차이가 있을 필요가 없음
 -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와 문화재구역을 일치시켜 법률 및 계획 간의 정합성 제고를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의 경우에는 동물의 사육, 오수·분뇨의 투기, 광고물의 설치 등의 제한이 강하지않아 공산성 유적과 주변지역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큰 상황임
 - 따라서 해당 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인 문제를 방지하고, 공산성 유적과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공산성 성벽 훼손방지 뿐만 아니라, 세계유산구역 및 특별보존지구와 문화재구역 일치, 주변과 연계한 역사문화탐방 촉진 등을 위해서라도 이번 신청 대상지역을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및 정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









[공산성 및 주변지역의 문화재구역,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세계유산구역 현황]



[공산성 정비 현황]

<p>성안마을 정비 현황</p>	<p>공북루 앞 체험시설</p>
	
<p>공산성 역사체험장</p>	<p>추정왕궁지 정비 현황</p>
	
<p>공산성 내부 관광객 쉼터</p>	<p>만하루와 연지 정비 현황</p>
	
<p>공산성 남서측 주차장</p>	<p>은개골 역사공원 정비 현황</p>
	

[공산성 주변지역 현재 모습]

<p>진남루 가는길(남문길) 진입로 모습</p>	<p>공산성 진입로(오동나무2길) 부근 폐기물모습</p>
	
<p>공산성 아래부분에서 영동루 가는길</p>	<p>영동루 올라가는 진입로 모습</p>
	
<p>경작지로 이용되는 공산성 진입로(고개마을길)</p>	<p>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산성 남측지역</p>
	
<p>탐방로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모습(고개마을길)</p>	<p>탐방로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모습(은개길)</p>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이번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신청지역은 공주시 옥룡동 380-2번지 외 72필지로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문화재구역에 접해 있는 지역이며, 총 면적 68,219.5㎡임
- 공산성 남측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신청지역은 북쪽으로는 공산성의 영동루 진입로와 맞닿아 있고 북동쪽으로는 은개골 역사공원과 접해 있음
- 또한 대부분 지역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며, 세계유산구역 중 완충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7구역)에 해당
- 상기 지역은 구릉지로 되어 있으며, 현재는 인근 주민들에 의해 간이건물, 경작지 등으로 침범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산성이라는 문화재 보호차원에서라도 대책이 시급하며,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와 역사문화 경관정비가 필요

1)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사적 제12호이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산성은 규모 2,660m에 이르는 포곡식 산성으로 웅진백제 시기에 중심 거성(據城)으로 기능하였으며, 당시의 정치·사회적 정황이 그대로 함축되어 있는 유적
- 백제시대에는 웅진성으로, 고려시대에는 공주산성과 공산성으로, 조선시대에는 쌍수산성으로 불리면서 고대국가의 도성이자 지방행정의 중심지로서 전시대를 아우르는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큼
- 이번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신청지역인 공산성 남측 능선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학술적 측면, 경관적 측면, 그리고 행정적 측면 등 3가지로 제시가 가능
- 학술적 측면에서는 공산성 남측 능선부는 공산성의 토성지와 인접하여 연결되는 구릉지로 출토된 유물들이 기와편이 다수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물지 등의 생활유적이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특히 수습된 유물들은 연질토기의 비율이 높았으며, 자배기 등의 기종이 확인되고 있어 웅진도읍기 이 일대가 공산성과 관련된 생활유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
 - 정확한 시기는 확정할 수는 없지만 지표면에서 확인되는 유물들이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폭넓게 확인되고 있어서 오랜 시간 생활공간이었을 것으로 추정
 - 이러한 학술적 가치와 공산성에 인접해 있다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추진할 필요
- 경관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더욱 요구되는데, 현재 해당 지역은 인근 주민들에 의해 일부는 과수원 조성으로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고 쓰레기가 투기되어 있어 세계 유산으로서의 공산성의 역사문화경관을 크게 저해
 - 게다가 이곳은 공산성의 토성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좁은

골목의 주거밀집지역을 통과하는 어려움이 존재

- 특히 공산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임에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아 공산성의 관람환경도 저해
- 공산성 성곽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 인접지역의 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서라도 이곳을 공산성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역사문화경관을 정비할 필요
- 게다가, 이번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신청지역 대부분은 세계유산 완충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구역에서는 제외되어 있어서 문화재 및 주변지역 보존·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과 『고도 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유산 보존·관리계획』 간 불일치 문제도 존재
- 해당 지역에는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 기타 문화재 및 주변 경관정비사업 등 대부분의 성격이 유사한 사업들이 계획되고 추진
- 그러나 고도 육성 사업비의 확보는 다소 어려워 고도 기본계획 상의 사업 등을 추진하기 곤란하여,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와 문화재보호구역을 일치시켜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사업비로 관련사업들을 추진할 필요
- 또한 『고도 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2는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와 문화재구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을 우선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와 문화재구역의 차이가 있을 필요가 없음
- 이러한 지정구역 간의 괴리는 해당지역에 수립 중인 계획 및 사업들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기에도 큰 어려움이 수반되므로 해당지역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와 문화재구역을 일치시켜 법률 및 계획 간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
- 현재 해당지역과 같이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의 경우에는 동물의 사육, 오수·분뇨의 투기, 광고물의 설치 등의 제한이 없으므로 공산성 유적과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큰 상황임
- 따라서 해당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인 문제를 방지하고 공산성 유적과 그 주변의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필요

[관련법률 상 행위제한 비교]

법률	행위제한 내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문화재구역)	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 땅깎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汚水)·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 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樹木)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土石類)의 채취·적치(積置) 4.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 주변과 연계한 역사문화탐방 촉진, 산성 경계부 훼손방지, 세계유산구역 및 특별보존지구와 문화재구역 일치 등을 위하여 주변지역 일부를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및 정비하는 것이 필요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2] <사적의 보호구역> 중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의 경우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정하고 있음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2. 사적의 보호구역

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 1) 궁터 : 궁궐의 외부지역 중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2) 성터 : 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구역
- 3) 봉수대, 관아, 병영 등 : 해당 사적에 수반된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4) 전적지 : 그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이번 공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신청대상은 국가사적의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방문객 편의성을 제고하며, 역사문화경관 조성 등 유적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부합

[공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신청지역 위치도]



6.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보호구역)

보호구역 면적: 73필지 / 68,219.5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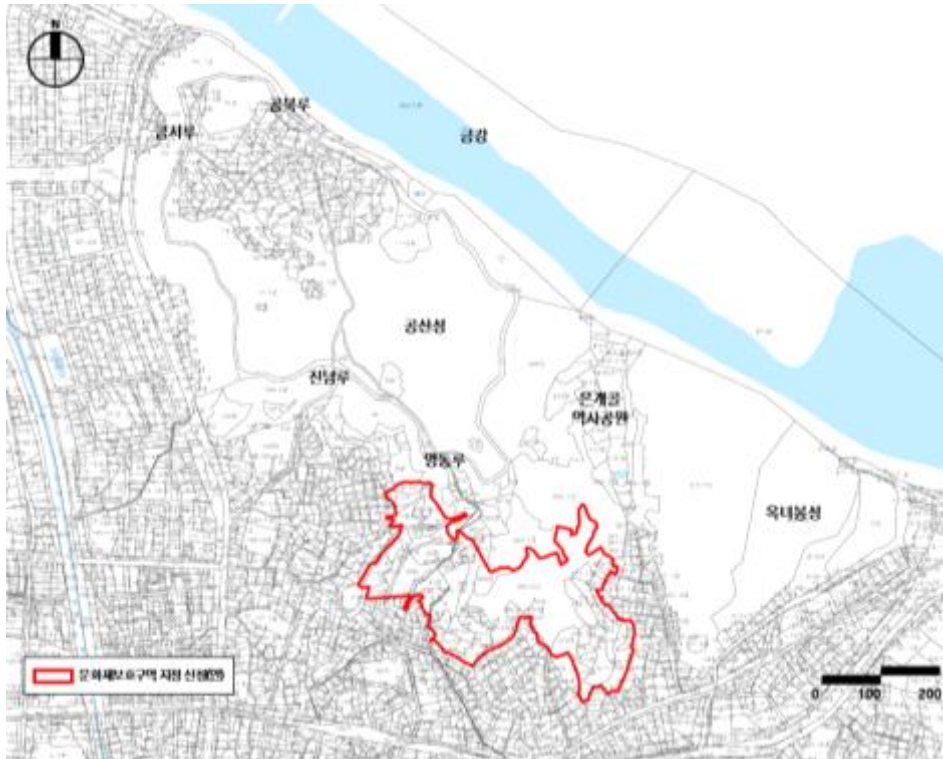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성명	주소
1	산성동	5-1	임	400.0	400.0		
2	산성동	5-2	전	1,077.7	1,077.7		
3	산성동	5-3	묘	178.5	178.5		
4	산성동	5-4	임	231.4	231.4		
5	산성동	6	전	423.1	423.1		
6	산성동	7	전	1,190.1	1,190.1		
7	산성동	8-1	전	694.2	694.2		
8	산성동	8-2	전	925.6	925.6		
9	산성동	22-38	대	171.9	171.9		
10	산성동	31-1	과	1,134.5	1,134.5		
11	산성동	31-2	전	601.3	601.3		
12	산성동	31-10	전	1,247.8	1,247.8		
13	산성동	31-116	전	252.4	252.4		
14	산성동	32	전	528.9	528.9		
15	산성동	33	전	52.9	52.9		
16	산성동	34	전	1,034.7	1,034.7		
17	산성동	35	전	112.4	112.4		
18	산성동	36	전	410	410		
19	산성동	37	전	370.2	370.2		
20	산성동	38	전	2,222.5	2,222.5		
21	산성동	39	전	1,616.5	1,616.5		
22	산성동	40	전	66.1	66.1		
23	산성동	41	전	256.7	256.7		
24	산성동	42	전	1,061.2	1,061.2		
25	산성동	43-5	전	37.0	37.0		
26	산성동	43-6	전	906.1	906.1		
27	산성동	195	도	18,640.3	880.1		
28	산성동	196	구	125.2	66.1		
29	산성동	197	구	690.9	159.4		
30	옥룡동	363-7	임	595.0	595.0		
31	옥룡동	363-8	전	2,035.5	2,035.5		
32	옥룡동	373-2	전	985.0	985.0		
33	옥룡동	373-3	전	357.0	357.0		
34	옥룡동	373-4	전	337.0	337.0		
35	옥룡동	374-1	전	615.0	615.0		
36	옥룡동	374-2	전	417.0	417.0		
37	옥룡동	374-5	전	357.0	357.0		
38	옥룡동	374-6	과	1,055.0	1,055.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성명	주소
39	옥룡동	374-7	과	1,640.0	1,640.0		
40	옥룡동	374-8	전	324.0	324.0		
41	옥룡동	374-9	전	545.0	545.0		
42	옥룡동	374-10	전	615.0	615.0		
43	옥룡동	374-11	전	1,759.0	1,759.0		
44	옥룡동	375	전	612.0	612.0		
45	옥룡동	376	전	1,088.0	1,088.0		
46	옥룡동	379	과	1,623.0	1,623.0		
47	옥룡동	380-2	과	18,712.0	18,712.0		
48	옥룡동	380-3	묘	212.0	212.0		
49	옥룡동	380-5	과	522.0	522.0		
50	옥룡동	380-6	과	168.0	168.0		
51	옥룡동	384	전	93.0	93.0		
52	옥룡동	385	과	740.0	740.0		
53	옥룡동	386	전	714.0	714.0		
54	옥룡동	387	전	89.0	89.0		
55	옥룡동	388	임	1,557.0	1,557.0		
56	옥룡동	389	전	1,448.0	1,448.0		
57	옥룡동	390	전	420.0	420.0		
58	옥룡동	391	전	595.0	595.0		
59	옥룡동	392-1	전	364.0	364.0		
60	옥룡동	393-1	전	293.0	293.0		
61	옥룡동	398-1	전	945.0	945.0		
62	옥룡동	398-2	과	238.0	238.0		
63	옥룡동	398-3	과	202.0	202.0		
64	옥룡동	399-1	전	545.0	545.0		
65	옥룡동	399-2	전	945.0	945.0		
66	옥룡동	400-1	전	992.0	992.0		
67	옥룡동	403-1	전	1,453.0	1,453.0		
68	옥룡동	404-1	전	549.0	549.0		
69	옥룡동	405-1	전	2,321.0	2,321.0		
70	옥룡동	405-2	전	202.0	202.0		
71	옥룡동	406	전	387.0	387.0		
72	옥룡동	431	구	366.0	122.1		
73	옥룡동	444	구	240.0	122.6		
계	73필지			86,931.6	68,219.5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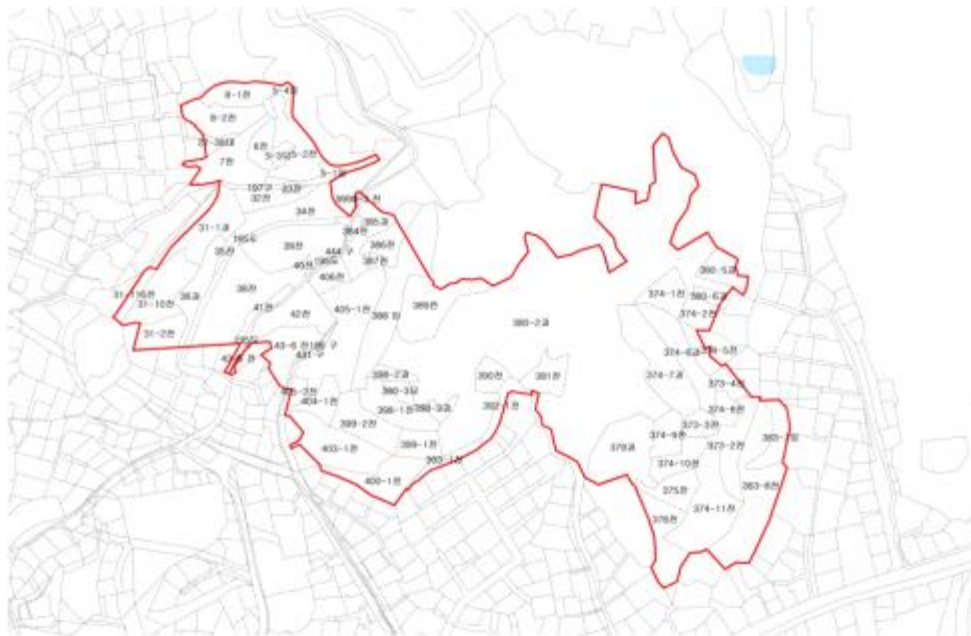
지적도



수치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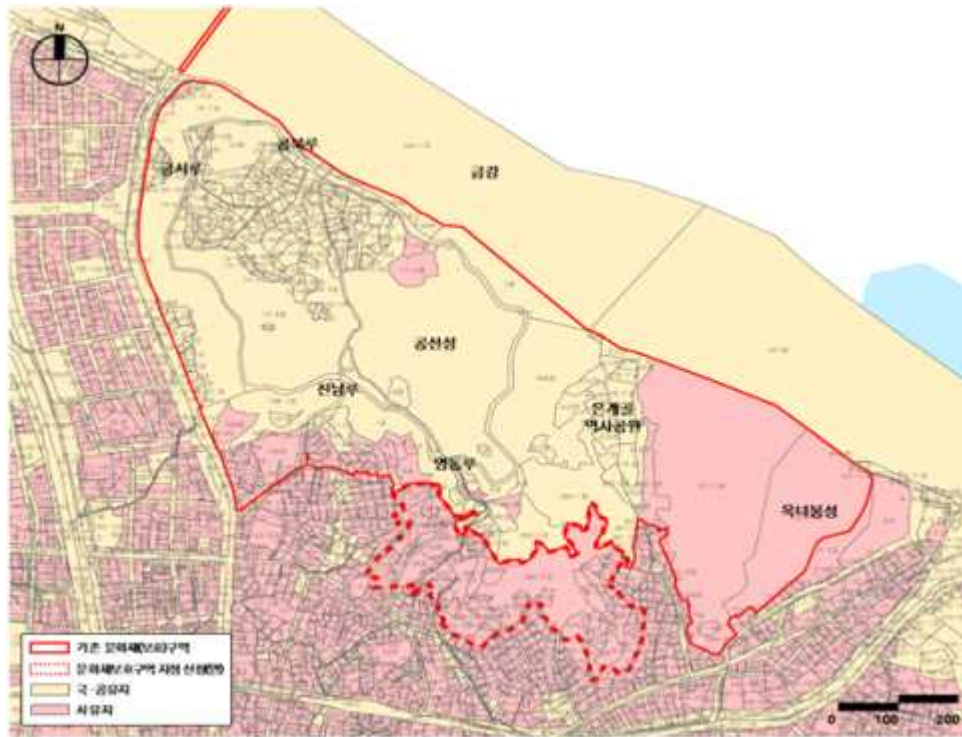
지적 필지조서



문화재구역



소유자 현황



지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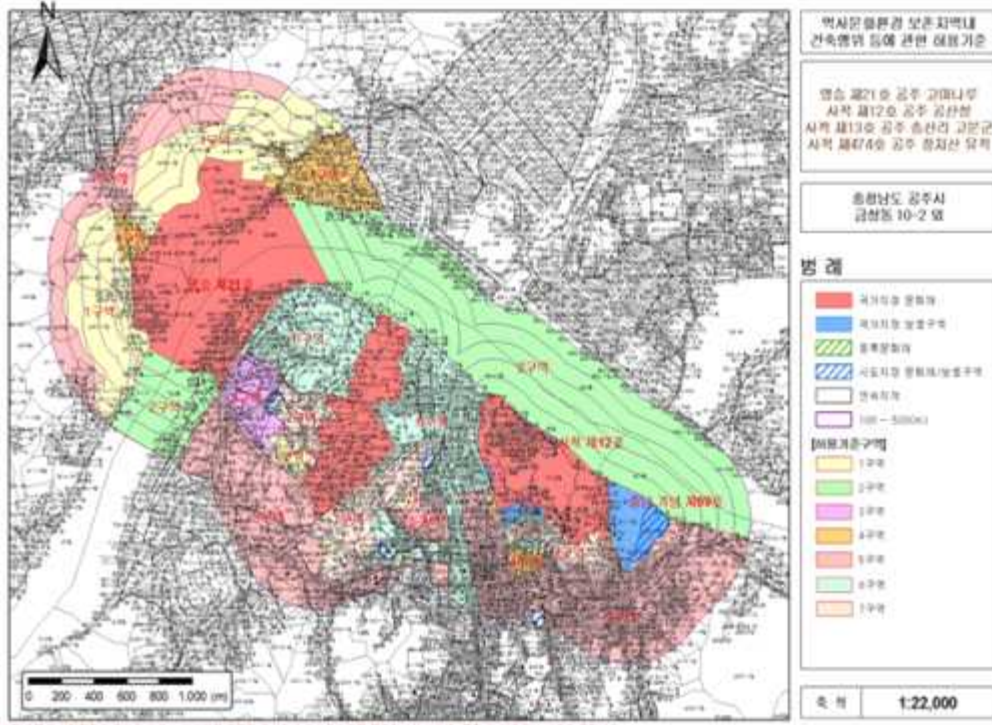


건축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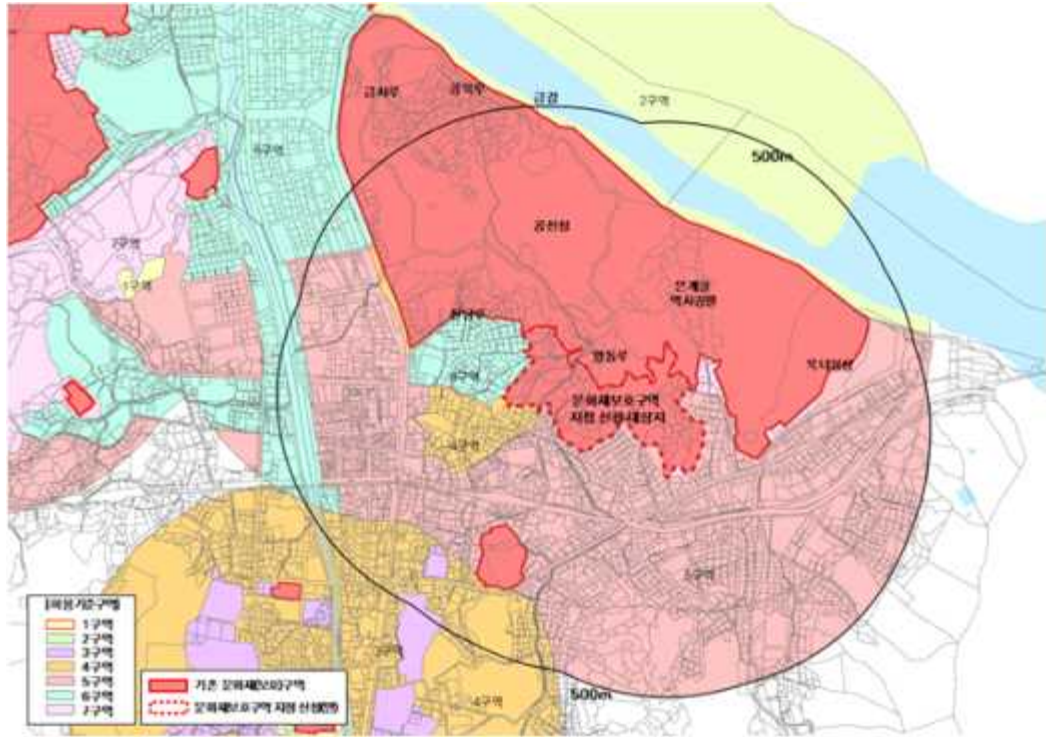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곳은 고도의 특별보존지구로서 현재 행위 제한이 가해지고 있고, 보호구역이 확대되어도 연접한 곳이 허용기준에 1층 규모로서 계획 안대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개별심의 - 단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의 최고높이 4m이하로 허용	
3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6구역 (고도법)	○ 역사문화환경 보전육성지구로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	
7구역 (고도법)	○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1구역~5구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개별심의 - 단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최고높이 4m이하로 허용	
3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6구역 (고도법)	○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	
7구역 (고도법)	○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p><1구역~5구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1) 목적 및 기본방향

- 이번에 지정 신청한 공주 공산성 문화재보호구역의 정비·활용은 조사·연구를 포함하여 보존·관리 및 가치제고 차원에서 계획을 제안
 - 국가사적이자 세계유산인 공산성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람환경 개선 및 방문객 편의성 제고와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고도 역사문화환경 조성, 주요 유적지 및 문화관광시설 간 연계성 강화 등
-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공산성과 주변지역 정비·활용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4가지를 설정
 - 첫째, 공산성 주변 추정성벽구간의 역사적 실체를 파악하는 동시에 그동안 제대로 조사되지 못한 채 남아 있던 공산성 경계의 성벽 및 성안유적에 대한 조사 지속







- 둘째, 산성과 성곽이라는 특성을 충분히 살려 전체 유적지에 대한 개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유산도시이자 고도 경관에 어울리는 역사문화환경 조성
- 셋째, 공산성(진남루, 쌍수정, 영은사, 추정왕궁지 등)~공주도심~정지산유적~송산리고분군~주변 문화관광자원(국립공주박물관, 공주한옥마을 등)~고마나루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비·활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상호 연계성 확보 및 시너지효과 제고
- 넷째, 세계유산에 걸맞은 수준높은 관람환경 제공을 위하여 오래되고 낡은 시설을 개선하고 은개골역사공원과 옥녀봉성 등 공산성 문화재(보호)구역 내 주요 유적들과 연결 네트워크 구축

(2) 대상지 현황

- 이번 공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신청지역인 공산성 남측지역 대부분은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임
- 또한 신청지역 일부는 세계유산 완충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문화재보호법」 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7구역)에 해당
- 해당 지역은 모두 사유지로 공산성 주변의 추정성벽구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시급
- 또한, 공산성 남측지역은 구릉지로 되어있어 접근성이 불량해 고도보존육성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다, 지금은 주변 주민들에 의한 주택, 간이건물, 경작지 등으로 침범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산성이라는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대책이 시급
- 특히, 공산성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역사적 공간이자 공산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세계유산 완충구역·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역으로서 그에 걸맞는 정비 및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
- 이러한 이유로 이번 공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신청지역은 유적 및 주변지역 보존·관리 및 정비와 합리적인 활용을 위하여 반드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요구되는 곳임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신청지역 현재모습]

<p>공산성 경계부 수목 정비가 필요한 모습(오동나무 2길)</p>	<p>공산성 진입로 부근에 쌓여있는 폐기물(오동나무 2길)</p>
	
<p>은개길~공산성 연결로 모습1</p>	<p>은개길~공산성 연결로 모습2</p>
	
<p>간이건물 모습1 (옥룡동 380-2번지)</p>	<p>간이건물 모습2 (옥룡동 380-2번지)</p>
	
<p>개인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1 (옥룡동 380-2번지)</p>	<p>개인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2 (옥룡동 380-2번지)</p>
	

고개마을길~공산성 연결로 모습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공산성 연결로 모습	
	
공산성 위쪽에서 바라본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신청지 전경	
	

(3) 세부 사업계획(안)

□ 정비방향

- 공산성의 정비는 국가사적이자 세계유산이며 고도 특별보존지구인 공산성의 위상에 걸맞게 추진
 - 기존 유적은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새롭게 발굴되는 유적은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문화재로서의 가치 증진 차원에서 정비
 - 공산성 수목과 기존 관림 및 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필요 시 관람객 수요와 트렌드 변화 등도 고려하여 확충
- 이번 문화재보호구역 신청지역은 공산성 문화재구역과 바로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세계유산 완충구역과 고도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된 곳이지만, 문화재보호구역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곳임
 - 문화재 및 주변지역 보존·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유산 보존·관리계획’ 간 일치차원에서도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중요한 곳임

- 이번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신청지역은 크게 학술연구, 유적 정비, 관람환경 정비, 편의시설 정비로 구분하여 추진
 - 학술 연구 : 공산성 능선부의 지속적인 시·발굴 조사, 백제 왕궁과 백성들의 생활문화 연구 등
 - 유적 정비 : 수목 정비(조경 식재, 송림 조성, 주변식생 관리 등), 발굴유적 정비 등
 - 편의시설 및 관람환경 정비 : 쉼터 조성,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야간방문객 관람 조명시설 설치, 안내판 정비, 공산성~은개골~옥녀봉성 간 연계루트 조성 등

□ 학술 연구

- 이번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신청지역인 공산성 능선부는 토성과 인접해 연결되는 구릉지로 백제시대 출입 상 여건도 양호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출토된 유물들도 기와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건물지 등 생활유적이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해당지역의 지표면에서 확인되는 유물들이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폭넓게 발견되고 있어서 오랫동안 일반백성들의 거주지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체계적인 학술조사·연구 후 보존 및 관리가 시급함

□ 유적 정비

- 특히 공산성과 같은 성곽유적이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는 해당 도시의 역사성을 더욱 부각할 수 있으며, 성곽 및 산성의 공원화 등 시민의 쉼터로도 이용되는 사례도 종종 있기 때문에 성곽유적과 그 주변의 정비는 지역의 사회·문화·환경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음
- 이번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신청지역(공산성 남측지역)은 생활유구·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시·발굴 조사 후 발굴결과에 따라 과도한 정비를 지양하고, 역사문화환경 및 현실 여건을 고려한 정비로 추진
- 발굴유적지 복원 또는 재현
 - 현실적으로 발굴이 완료된 유적을 그대로 노출 전시하기가 곤란한 지역임으로 복토·보존한 후, 그 위에 복원하거나 재현하는 방안을 검토함¹⁾
 - * 다만, 복원·재현의 경우는 철저한 고증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의 마련도 반드시 필요
 - 유적의 설명 안내판, 키오스크 설치 등을 통해 방문객에게 해당지역이 공산성과 인접한 생활유적이 존재하고, 백성들의 생활공간이었을 것이라는 흥미를 유발시키는 동시에 지역 주민에게는 휴식과 산책의 공간 등을 제공함

1) 유구 복제전시 : 유구 검출 상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노출하여 전시하지 않고 유구의 성토된 상면에 실물 크기의 복제품을 만들어 전시하는 방법임.

[발굴 유적지 정비 예시]



○ 발굴된 유물 현장 전시

- 해당지역의 지표면에서는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기와편 등 생활유적이 주로 발견되었음
- 발굴된 유적을 보존하여 방문객들에게 당시의 유물 등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발굴유물 현장 전시를 추진
- 중요 유구가 발견된 지점에 대해서는 보호각을 씌우는 방법 등을 이용해 노출 전시된 현장박물관으로 활용
- 장기간 노출된 상태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온·습도 조절 등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를 통해 관람객을 유도할 수 있으며 공산성의 연결공간으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임

□ 편의시설 및 관람환경 정비

은개골 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이번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신청지역은 입지 및 지형적 특성 상 유적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역사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은 곳으로, 역사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장소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그 가치를 일반인도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방안을 마련

그러나, 이곳으로 진입하려면 좁은 골목의 주거밀집지역을 통과해야 하며, 은개골지역 진입부부터는 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있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부 주민들의 농작 및 쓰레기 적치, 무단사용 등으로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어서 발굴조사를 토대로 조속한 정비가 필요했던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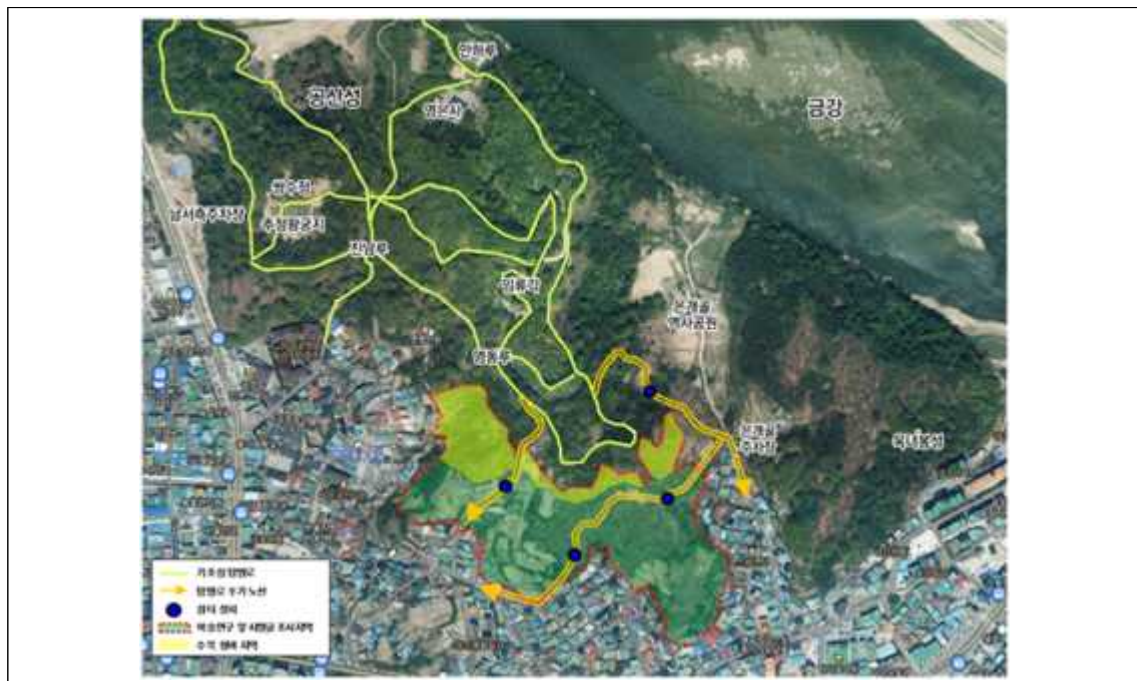
이에, 공주시는 2016년에 「공주 공산성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은개골지

역 정비방안을 마련하였고 현재는 은개골 역사공원 조성이 완료
 이것과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신청지역의 경우에도 역사공간 확대, 자연성 회복, 접근성 개선이라는 정비방향 하에 공산성의 역사·문화 체험기능과 함께, 지형적·자연적 특성을 충분히 살린 자연친화적 연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할 필요
 은개길~공산성으로 이어지는 길에 보행이 편하도록 들레매트를 설치하고 공산성의 문화재보호구역임을 알릴 수 있는 안내판 설치 등 탐방객의 안전한 탐방을 위한 진입로를 조성
 또한 공산성 탐방로 및 지역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는 구간과 인접해있으므로 야간방문객을 위한 관람조명을 설치

[은개골 인접지역 편의시설 조성 예시]

현황	조성 예시
	

[문화재보호구역 정비·활용 계획(안)]



9. 종합의견

- 본 건물은 공산성의 남동쪽과 남쪽사면 구간(산성동, 옥룡동 구간)을 공주 공산성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황을 보면 지형상 공산성의 남벽과 남동벽에 연결되는 지형임.
 - 그리고 지표면에서 다수의 백제유물이 노출되어 공산성과의 연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대상지역 일대도 세계유산 완충구역이나 고도특별법 상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사적으로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할 때, 장소성 또는 일체성 등과 같은 기본적인 타당성은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일체성, 장소성이 확인된 시점에서 보호구역의 추가 지정이 재검토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4. 강화 외성 주변 초지항 어촌 뉴딜사업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강화 외성」 주변 초지항 어촌 뉴딜사업을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외성 주변 초지항 어촌뉴딜사업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외성(사적 / 2003.10.25.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원

(3) 신청내용<초지항 어촌 뉴딜사업>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617-78번지 외 12필지 등 공유수면 포함{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개별심의), 2구역(평지붕 5m, 경사지붕 7.5m이하)}

- 사업내용

사업구분	신청면적	사업내용	비고
다목적 경사식 물양장 조성	800m ²	○ 통수블럭 선양장 조성 800m ² - L=80m, B=11m, H=1.3m(해수면 노출)(해수면 아래 9.2m, 콘크리트 블럭)	1구역 (공유수면)
판매시설 환경개선	1,212m ²	○ 기존 판매시설(H=4.0m) 경량철골 지붕철거 885m ² - 철거 후 옥상면 방수처리, 실외기이동 설치	2구역
초지어민센터 신축	2,520m ²	○ 초지어민센터 신축(기존 공용화장실, 급수탑, 가설건축물 철거) - 건축면적/연면적 : 291.73m ² /434.89m ² - 건축규모/최고높이 : 지상 2층(1동)/11.8m(평지붕) · 1층 용도 : 공용화장실, 건어물 및 어구 보관창고 · 2층 용도 : 어촌계사무실, 어민쉼터, 휴게테라스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2구역

사업구분	신청면적	사업내용	비고
초지생태광장	4,170m ²	○ 생태광장 조성 4,170m ² - 왕벚나무(H3.5*B8) 21주, 느티나무(H4.5*R25) 10주, 이팝나무(H4.0*R15) 26주 - 주차장 잔디블럭 포장(40대), 관람로 마사토 포장 실시	1·2구역
마을 안길 정비	1,448	○ 진입도로 정비 - 차도용 : L=150m, B=5m, T=80mm(디자인 점토블럭 포장) - 보도용 : L=100m, B=2m, T=70mm(소형 고압블럭 포장) - 차보도 경계 : 성곽디자인 파라펫 설치	2구역
생태 전망대 조성	300m ²	○ 생태전망대(현수교) 설치 - L=165m, B=2m, H=2.5m(해수면 노출1.3m+난간1.2m)) (거더형 강관파일(15m) 12개소)	1구역 (공유수면)
소계	10,450m ²	총 6개 사업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명, 보류 11명

5. 관문성 주변 주상복합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관문성」 주변 주상복합 신축을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관문성 주변 주상복합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2년 3차 위원회('22.03.16.)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관문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산122 외
- (3) 신청내용<주상복합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55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60m 이격 /7구역)
 - 사업내용

구분	'22년 3차 위원회-부결	금회
부지면적	23,037㎡(건축부지 : 17,048㎡ + 개설도로 : 6,259㎡)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건축규모	지상45층/지하5층 (지상 140,196.1244㎡/지하 56.966㎡)	지상41층 / 지하5층 (지상 139,086㎡/지하 56,864㎡)
세대수/호	공동주택(아파트 955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200호)	공동주택(아파트 966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120호)
건폐율	77.28%(규정 80%이하)	78.20%(규정80%이하)
용적율	817.25%(규정 1,000%이하)	810.74%(규정 1,000%이하)
건축물높이	101동~105동(45층) 145.8m, 106동(43층) 140m	101~103동(41층) 132.9m, 104~106동 138.7m

(4) 신청인 의견

- 본 대지는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55번지(일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부지 내 주상복합 신축을 적법한 관계규정에 맞게 설계하여 낙후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건립하고자 함
- 본 사업부지는 7구역으로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구역이 없는 구역임. 도시 계획상 상업지역으로 고밀도 주상복합 개발가능지역으로 층수 제한이 없음.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 시 심의대상이 아니나 공통사항에 의거 공동주택 신축으로 개별심의 대상임. 6구역기준에 적용할 경우 사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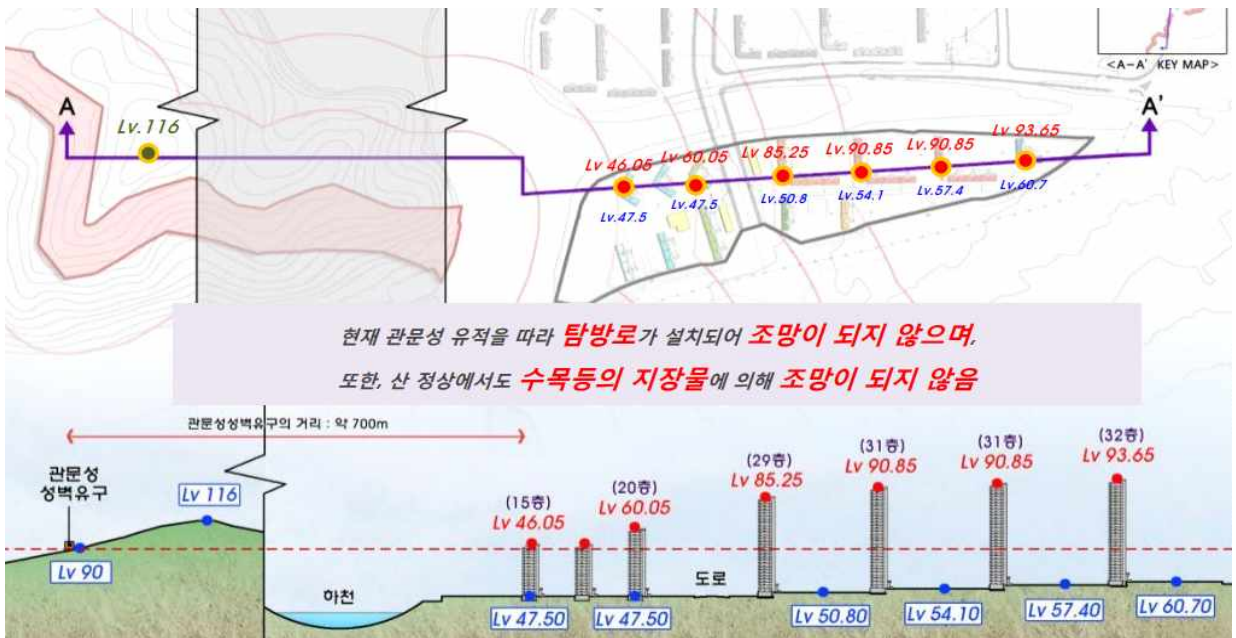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2.03.11./문화재위원 ○○○)

- 문화재로 이어지는 구릉에 세워지는 건물로 장소가 문화재에 미칠 수 있어 개발 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제시된 계획안은 건물 높이가 높아 문화재 및 주변 건축과의 도시적 맥락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낮출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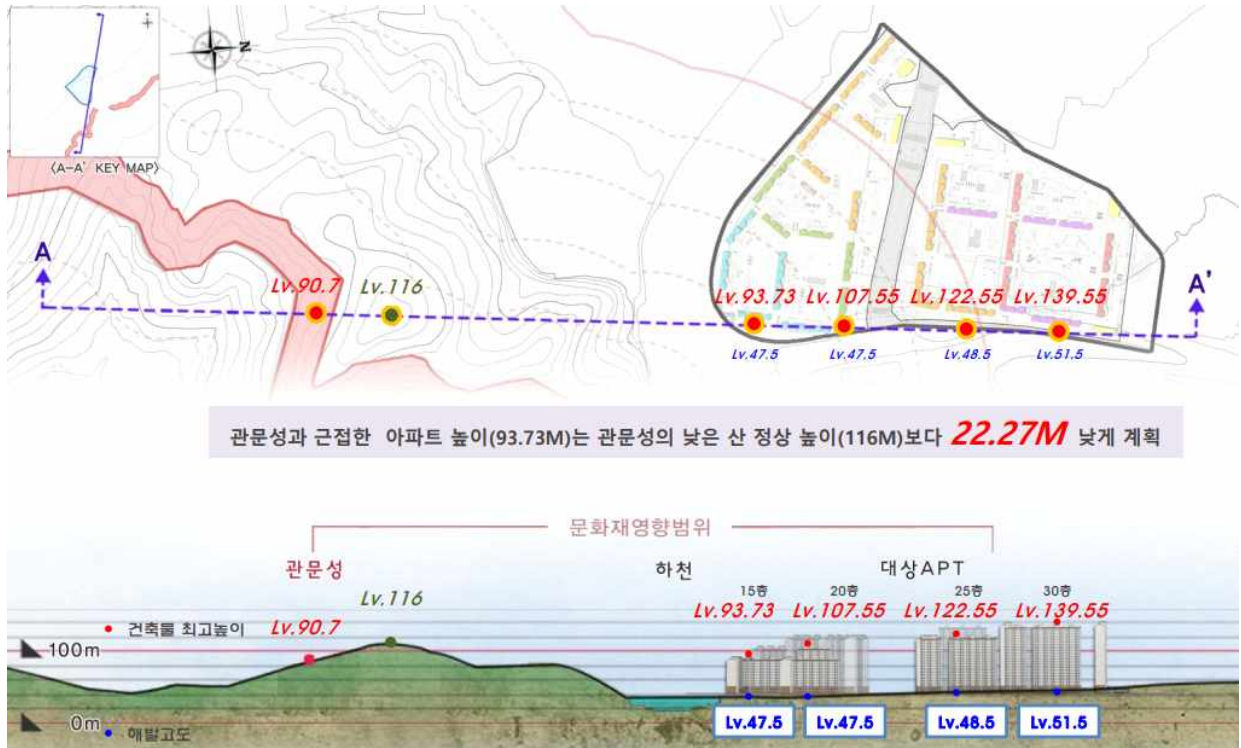
(2) 주변 공동주택 허가사항(경주 외동 부영 기업형 임대주택 신축/'17.02.20.)

- 대상지는 4구역(평지붕 최고높이 11m 이하, 경사지붕 15m 이하)에 해당
- 단지 내 허가 최고높이 32층 : 60.7m(지반고) + 93.65m(건물높이) = 154.35m
- 허용기준 500m 이내 최고 높이 29층 : 50.8m(지반고) + 85.25m(건물높이) = 136.5m



(3) 주변 공동주택 허가사항(부영 주택 아파트 신축공사/'15.09.11.)

- 대상지는 6구역(평지붕 최고높이 29m 이하, 경사지붕 33m 이하)에 해당
- 단지 내 허가 최고높이 31층 : 51.5m(지반고) + 90.85m(건물높이) = 142.35m
- 허용기준 500m 이내 최고 높이 25층 : 48.5m(지반고) + 74.05m(건물높이) = 122.55m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2명

6.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식묘군 보호구역 내 정원 조성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화순군 소재 사적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식묘군」 보호구역 내 정원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식묘군 보호구역 내에 고인돌 정원을 조성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2년 1차 위원회('22.01.12.)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식묘군(사적 / 1998.09.17. 지정)
 - 소재지 :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산68-1번지 외
- (3) 신청내용<고인돌 정원 조성>
 - 위치 :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1333-1번지 외 52필지(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숲경관 (41,3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공간 : 고인돌물길(L=530m, W=3m), 소망의길(L=200m), 구릉숲(23,000㎡), 식이식물원(13,000㎡) ○ 식재 : 상수리나무(R20), 편백나무(H3.5), 산수유(R15), 꽃사과(R15), 보리수나무(H2.0) 등 ○ 시설물 : 평상 20EA, 벤치 30EA, 방향 및 시설안내판 10EA 등 ○ 포장 : 흙콘크리트포장 및 우드칩포장(4,000㎡) 등 	
공동체경관 (25,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공간 : 고인돌테마마당(2,300㎡), 평매바위마당(3,600㎡), 숲놀이터(2,000㎡), 모두의마당(6,000㎡) ○ 식재 : 느티나무(R25), 이팝나무(R20), 은행나무(R25), 청단풍(R20), 마가목(R12) 등 ○ 시설물 : 식재플랜터(조형의자) 10EA, 경관석 20EA, 돌의자15EA, 자연놀이시설 1set, 벤치 20EA, 앉음벽 30m, 종합안내판 1EA, 방향 및 시설안내판 5EA 등 ○ 포장 : 흙콘크리트포장(1,600㎡), 화강석판석 및 장대석포장(3,000㎡), 주차장(잔디블럭포장,4,000㎡) 등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들판경관 (38,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공간 : 생태연못(2,800㎡), 휴게쉼터(400㎡), 참여정원(5,200㎡), 청보리원 등 경관작물원(10,000㎡) ○ 식재 : 청보리, 메밀, 수양버들(R20), 느티나무(R25) 등 ○ 시설물 : 테크탐방로(400㎡), 오두막파고라 8EA, 벤치 30EA, 방향 및 시설안내판 10EA 등 ○ 포장 : 쇠석포장(2,500㎡) 등 	

라. 참고사항

(1) 자문의견('22.02.18., 03.22./ 문화재위원 ○○○)

- 인사이트 플래닝 중심이 아닌 기존 테마공원과의 관계 해석 필요
 - 기존 주변 시설의 용도 등을 분석하여 시설이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기존 테마공원을 포함하여 조성계획 수립)
-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시대적, 경관적, 유산적 이해 필요
- 선사시대 경관의 조성범위와 연계성 고민 필요
 - 괴바위, 관청바위, 평매바위 등 테마화에 따른 공간구성 우화적
- 문화재 구역의 범위와 경관, 시대를 알 수 있는 정보 추가 검토
- 고인돌에서 먼곳은 적극적 디자인 긍정적

마. 의결사항

- 보류
 - 전문가와 협의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보류 12명

7. 남원 만인의총 주변 자전거 도로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남원시 소재 사적 「남원 만인의총」 주변에 기 허가받은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행위허가(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원 만인의총 주변에 기 허가받은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의 변경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21년 7차 소위원회('21.10.27.) 조건부가결 : 가로수에 관하여 전문가와 협의 후 시행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남원 만인의총(사적 / 1981.04.01 지정)
 - 소재지 : 전북 남원시 향교동 628 외
- (3) 신청내용<자전거 도로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전북 남원시 향교동 725-22 일원{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5m 이격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구분	허가	금회
자전거도로	L=217m, B=2.5m, 칼라 아스콘 포장(506㎡)	L=217m, B=2.5m, 칼라 아스콘 포장(397㎡)
지면성토	288㎡	90㎡
경계석설치	L=221m, 수목보호시설 설치 : 34개소	L=221m, 수목보호시설 설치 : 33개소
법면 마감	조경석 쌓기(A=200㎡), 꽃잔디 1,200본 식재	블록쌓기(H:0.4~1.2m, L:180m)

라. 참고사항

(1) 자문의견('22.01.11./문화재위원 ○○○)

- 신규 설치 예정인 옹벽블럭을 어두운 색상으로 처리하여 영구 음지로 인해 발생하는 이끼 등에 의한 오염에도 변화가 크지 않아 경관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함.
- 가로수 보호판 설계로 보행자 지나가는 인도를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반영 설계함.
- 문화재구역의 경계를 이루는 소나무로부터 설치되는 옹벽블럭의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 확보하여 식생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조치함.
- 도면과 내역을 통해 설계안으로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함.

(2) 자문의견('21.10.08./문화재위원 ○○○)

- 본 대상지에 대해서는 5차에 걸쳐서 자문을 시행하였으며, 보행자 시점에서 경관변화, 드론 촬영을 통한 만인의총 경관변화 등에 대해 합리적인 경관변화를 검토하였음.
- 5차에 걸친 현장조사 및 검토 결과 자전거도로를 확충함에 있어 만인의총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공사 예정인 자전거 도로의 북측으로 은행나무와 소나무가 2중으로 열식되어 있어 만인의총에 대한 경관을 저해하고 있음.
- 만인의총에 대한 경관을 향상하고 학생들의 자전거 통행에 대해 안전한 시야 확보를 위해 자전거도로 확충과 동시에 은행나무를 이식 또는 제거하는 것을 권장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전문가와 협의 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가결 11명, 기권 1명

8. 화성 마하리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화성 마하리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을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 마하리 고분군 주변에 단독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마하리 고분군(사적 / 2003.08.29.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마하리 산40번지 외
- (3) 신청내용<단독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마하리 산36번지 외 1필지{문화재구역과 연결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신청면적 : 1,200㎡(부지 785㎡, 도로 415㎡(국유재산 208㎡ 포함))
 - 건축면적/연면적 : 108.8㎡/198.4㎡
 - 건축규모/최고높이 : 지상 2층(1동)/9.0m(평지붕)
 - 콘크리트 옹벽(L형 및 역L형) 설치(H=1.0~4.0m) : 38m(지상부 최대노출 2.8m)
 - 보강토옹벽 설치(H=1.0~4.0m) : 38m(지상부 최대노출 2.9m)
 - 절토량/성토량 : 538.89㎡/336.02㎡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2명

9. 김해 분산성 주변 둘레길 정비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사적 「김해 분산성」 주변 둘레길 정비를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김해 분산성 주변 둘레길 정비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22년 3차 위원회('22.03.16.) 보류 : 전문가와 협의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김해 분산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산9번지
- (3) 신청내용<둘레길 정비>
 - 위치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산9번지 일원{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구분	당초안	변경안
시설물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쉬웬스 철거 · 전통담장 설치 L=154m · 가이즈까향나무 이식 102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쉬웬스 철거 · 관목식재 L=312m(1,250주) · 가이즈까향나무 이식 210주
등산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흙콘크리트 포장 A=1,605㎡ · 야자매트 L=247m · 사면정비 L=183m · 돌계단정비 67m 	좌동
주차장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흙콘크리트 포장 A=413㎡ · 석축쌓기 A=53㎡ · 목책계단설치 L=16m, B=1.5m 	좌동
화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옹벽설치 L=152m · 남천(식재) 150주, 산철쭉 400주, 영산홍 310주 	좌동

(4) 신청인 의견

- 김해 분산성을 등산, 산책, 정상경관 및 허왕후의 노을, 운무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설물 및 둘레길 정비를 통한 관광활성화 도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2.04.05./문화재위원 ○○○)

-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인공적인 담장 보다는 관목 등을 이용한 수목 울타리가 적합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전문가와 협의 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가결 12명

10. 함안 말이산 고분군 주변 공장 증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함안군 소재 사적 「함안 말이산 고분군」 주변 공장 증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함안 말이산 고분군 주변 공장 증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함안 말이산 고분군(사적 / 2011.07.28. 지정)
 - 소재지 :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84 등
- (3) 신청내용<공장 증축>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남문길 66(문화재구역 연접/허용기준 없음)
 - 사업내용 : 공장1동 증축
 - 구조 : 일반 철골구조
 - 대지면적 : 28,364.80㎡
 - 건축면적 : 14,358.21㎡(기존 : 11,233.88㎡, 증축 : 2,904.33㎡)
 - 연면적 : 14,358.28㎡(기존 : 12,001.33㎡, 증축 : 2,356.95㎡)
 - 용적율 : 60.52%
 - 건폐율 : 49.84%
 - 건물높이 : 19.181m(건물높이 18.581m+무동력 흡출기 0.6m)

라. 참고사항

-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영향 여부 검토('22.02.22./○○○, '22.03.10./○○○, ○○○)
 - 검토결과 : 영향 있음

○ 개인별 의견

위 원	의 건	영향여부
○○○ (경상남도 문화재위원)	국가지정문화재 경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행 위이기에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함	○
○○○ (전)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현상변경 허 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	○
○○○ (경상남도 문화재위원)	문화재 경관을 저해 할 수 있으므로,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 통합 허용기준안 마련 관련 사항

- 함안군 가야읍에는 사적지들이 집적하여 있으며, 함안 가야리 유적에서 함안 말이산 고분군, 함안 성산산성으로 이어지는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경관이 유지되고 있어, 함안군에서는 이러한 역사경관을 보존하고자 현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마련 중임.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2명

11. 여수 선소유적 내외 전시관 신축 등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사적 「여수 선소유적」 내외에 전시관 신축 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여수 선소유적 내외에 전시관 신축, 탐방로 설치 등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22년 3차 위원회('22.03.16.)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 '21년 1차 위원회('21.01.13.) 조건부가결 : 건축물 등 세부설계 사항은 문화재위원회 추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여수 선소유적(사적 / 1995.04.20. 지정)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시전동 710 외
- (3) 신청내용<전시관 신축 등>
 - 위치 : 전남 여수시 선소마을길 33 외 228필지(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1구역)
 - 사업내용 : 전시관 신축, 탐방로 설치 및 화장실 신축 등

구분	세부내용
전시관 신축	- 연면적 3,727㎡, 건축면적 1,659㎡, 지하 1층, 지상 2층 - 최고높이 13.5m, 평지붕
산책로	- 선소산책길 설치(휴포장 / L=744m, B=1m) - 망마산오름길 설치(야자매트 / L=339m, B=2m)
완충 녹지 숲	- 전시관과 주변아파트 사이에 백합나무(10본,H=5.5m), 소나무(10본,H=5.5m) 식재
선소체육공원	- 초화류(맥문동) 및 관목(산철쭉 등) 식재
기타	- 한옥형 야외화장실 설치(29㎡) - 기존 우물 정비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0.12.07./문화재위원 ○○○, ○○○)

- 벉수테마 공원은 조성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소나무로 유지하고 초화류·관목은 필요
- 테마길, 선소체험 마을 조성은 타당성이 없음.
- 테마영상 전시관의 위치는 적절하나 건축과 내부 콘텐츠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 요함.
- 외부 동선 연계는 타당성이 있으며, 신화 APT 사이에 차폐 식재 필요.
- 주차장 주변 외부 화장실 필요
- 경관에 저해되는 전선은 지중화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원안가결 12명

12. 순천 낙안읍성 내외 시설물 정비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순천시 소재 사적 「순천 낙안읍성」 내외에 기존 시설물의 정비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순천 낙안읍성 내외의 기존 시설물의 정비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순천 낙안읍성(사적 / 1983.06.14. 지정)
 - 소재지 : 전남 순천시 낙안면 읍성안길 117 외
- (3) 신청내용<시설물 정비>
 - 위치 :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302 일원(문화재구역, 1구역)
 - 사업내용
 - 동헌, 객사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 관광안내소, 한복대여점 경사로 설치
 - 주차장 재도색, 경사로 설치
 - 화장실 등 4개소 내부(장애인 전용 공간 확보 등) 및 진입로 정비
 - 낙안읍성 길 마사토 다짐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전문가와 협의 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가결 12명

13. 금정산성 내외 산성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가. 제안사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사적 「금정산성」 내외 산성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 금정산성 내외 산성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금정산성(사적 / 1971.02.09. 지정)
 - 소재지 : 부산시 금정구 금성동 43번지
- (3) 신청내용<산성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산43-35번지~화명동 산86-4번지 일원 9필지 (문화재구역, 1구역, 4구역)
 - 사업내용{※ 기존 개설도로 5~8m → 10m 확장(도로 8m, 인도 2m)}
 - 면적 : 도로조성 A=1,212㎡, 구조물 설치 A=830㎡
 - 규모 : L=154.6m, B=10m/ 구조물 평균높이 H=8.5m(설치높이 1.5~10.5m)
- (4) 신청인 의견
 - 산성로 일원은 현재 도로 폭이 협소 하여 지역주민 및 이용자들의 도로교통 체중 및 사고의 위험으로 불편을 겪어오고 있어 금회 도로 폭을 확장하여 지역 주민 및 이용자들의 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2.04.05./문화재위원 ○○○)
 - 신청사업은 금정산성 서문의 남쪽으로 단절된 성벽을 관통하는 도로의 굴곡지점을 교통안전을 위해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사구간내의 한 지점은 서문으로부터 남쪽으로 이어진 성벽선 구간에 해당하여 문화재

보존에 큰 영향을 미치며, 다른 지점도 높은 용벽이 설치되는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2명

14. 태안 안흥진성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 사적 「태안 안흥진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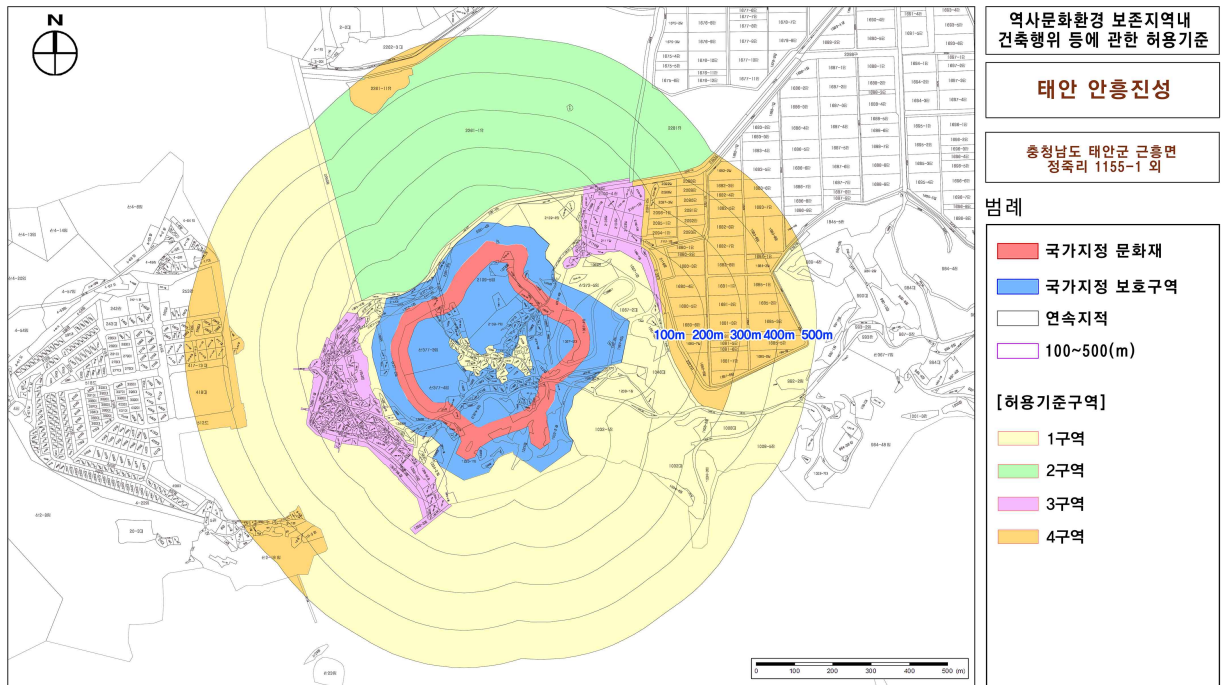
- 태안 안흥진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태안 안흥진성(사적 / 2020.11.02. 지정)
 - 소재지 :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1155-1 등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 신청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장실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보류 12명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22-04-015

1.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 사적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가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慶州 金剛山 瓢巖峯 一圓)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산7-6번지 일원
 - ※ 연접문화재 : 경주 탈해왕릉(사적, 1969.8.27.),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보물, 1963.01.21.)
- (3) 지정명칭 :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慶州 金剛山 瓢巖峯 一圓)
/Pyoam bong in GeumgangSan, Gyeongju)
- (4) 지정범위 : 문화재구역 122필지/425,031㎡
- (5) 관리단체(안) : 경주시
- (6) 신청사유
 -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은 왕경 오악의 신성공간이자 신라건국의 출발지라는 상징성을 가지는 장소 중 하나이며, 불교 수용이라는 신라사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장소이기도 함. 또한 신라 왕경의 구조 변화라는 사회 변화를 알려주는 자료를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함. 이런 점에서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은 신라사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적이라고 판단됨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2.03.25./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대학교 교수 ○○○)
 -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은 왕경 오악의 북악(北岳)이자 사령지(四靈地)로서 신라사 전시기에 걸쳐 왕경의 신성한 공간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음. 이 장소는 신라사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한 중요한 유적들이 집약된 장소로서 그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큼. 해당 지역 내에는 신라의 건국과 고대국가로 이어지는 과정의 역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의 수용과 발전, 왕경 구조의 변화 등 신라 역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과 관련한 역사적 공간이 되었음
 -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은 신라 역사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중악(낭산 일원), 남악(남산 일원), 동악(토함산 불국사·석굴암)과 함께 사적으로 지정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이미 사적과 보물로 지정된 탈해왕릉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등 국가 지정문화재와 백률사 등 신라 불교 유적·유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일원을 포괄적으로 묶어 사적으로 일괄 지정하는 것이 신라 당시 금강산이 가지고 있던 역사적 공간성을 체계적·통합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원안가결 11명, 조건부가결 1명(영어 지정명칭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함(대소문자, 띄어쓰기, 발음대로 쓰기, “일원”의 뜻 누락))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2.3.25.(금)	대상문화재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 (慶州 金剛山 瓢巖峯 一圓)	
조사자	성명	전공분야	소속	직위(직책)
	○○○	한국사	○○대학교	명예교수
	○○○	고고학	○○대학교	교수
	○○○	한국사	○○대학교	교수
	○○○	미술사	○○대학교	교수
	○○○	고고학	○○문화재연구소	전문위원
주요 지정 사항	문화재 종류	사적		
	문화재 명칭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慶州 金剛山 瓢巖峯 一圓)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세부내용 별첨 참조”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세부내용 별첨 참조”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세부내용 별첨 참조”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3월 25일

제출자 : 문화재위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위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전문위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전문위원 ○○○ (서명 또는 인)
 ○○대학교 교수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慶州 金剛山 瓢巖峯 一圓) 사적 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2. 3. 25.(금)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대 교수 ○○○

1. 문화재 종류

- 사적

2. 문화재 명칭

-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慶州 金剛山 瓢巖峯 一圓)

■ 검토의견

- 경주 금강산은 현재 ‘소금강산’이라는 지명으로 통용되고 경주국립공원에서도 ‘소금강산지구’로 그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 『삼국유사』,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경잡기』 등 다수의 문헌에는 ‘금강산’으로 기록되어 있고, 1767년경 제작된 「조선지도」에서부터 1894년의 「영남읍지」까지 10여종의 고지도 등에서도 모두 금강산으로 표기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금강산’으로 표기 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악으로 이미 지정된 남악인 경주 남산 일원, 중악인 경주 낭산 일원 등의 사적명칭은 산명(山名)까지만 제시되었으나 북악인 금강산의 경우 전체 중 유적이 밀집 분포하는 ‘표암봉’(『삼국유사』 기록 전함) 주변에 한정하여 지정하는 것이므로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으로 지정명칭을 정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라 사적 지정 명칭은 역사적 문헌, 고증 또는 전래되어 오는 “고유한 명칭”을 원칙으로 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신라 왕경의 중심지였던 오늘날 경주의 중심지에는 명활산(동, 245m), 선도산(서, 381m), 남산(남, 468m), 소금강산(북, 176.7m)이 사방으로 에워싸 경주 분지를 형성한다. 경주 시내 북쪽이자, 북편일대는 행정구역상 용강동, 황성동, 동천동이 위치하고, 그 동쪽으로는 동산(133.3m)에서부터 소금강산, 무지기산(148.6m)에 이르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산지가 자리한다. 금강산 표암봉 일원은 소금강산(해발 176.7m)의 정상에서 남으로 표암(기념물)과 탈해왕릉(사적)이 위치하는 곳까지 남북 약 1,120m이고, 동서의 최대 폭은 724m가 되는 지역이다.
- 금강산 표암봉 일원에는 남쪽으로 표암, 탈해왕릉 등 신라 초기의 역사유적이 있고, 그 북쪽인 금강산 정상부 부근과 서편 구릉에는 백률사, 굴불사지 등의 불교유적이 남아 있으며, 정상부와 표암봉 사이의 산지일대에는 6~7세기 신라 황혈식 석실분으로 이뤄진 동천동 고분군이 넓게 분포한다.

- 금강산 표암봉 일원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건과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4건이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보물)과 경주 탈해왕릉(사적)이 있고, 도지정문화재는 경주 표암(기념물), 경주 동천동 마애삼존불좌상(유형문화재), 백률사 대웅전(문화재자료), 송신전(문화재자료)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대상지 내에는 비지정문화재로 백률사 선각마애탑과 최근 발굴이 추진되어 실체가 일부 확인된 동천동고분군(6~7세기 황혈식 석실분) 등이 위치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된 백률사 금동여래입상(국보)과 이차돈 순교비는 원래 금강산에서 옮겨진 것으로 신라 불교문화사에 있어서 중요한 문화재로 손꼽힌다.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 위치(위성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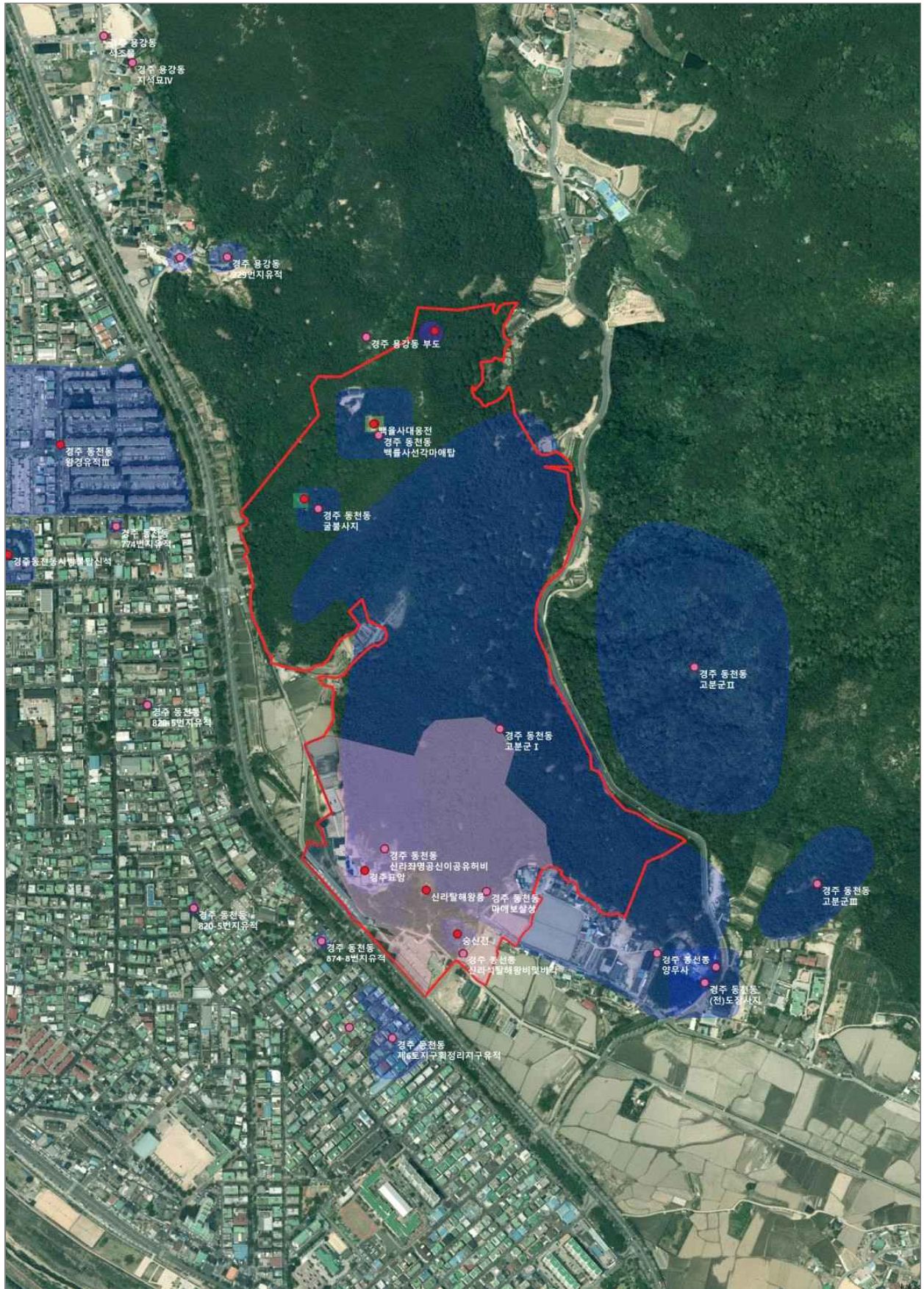
금강산 표암봉 일원 위치
(위성영상 Kakao Satellite, 1:10,000)



금강산 표암봉 일원 지형 (음영기복도)










금강산 표암봉 일원 지형



금강산 표암봉 일원 주변유적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문화유적분포지도)

○ 금강산 표암봉 일원 분포 중요유적 현황

연번	문화재명	지정	시기	유형	비고	사진
1	경주 탈해왕릉	사적	신라	제사·장례유적		
2	경주 표암	기념물	신라	인물기념유적		
3	광림대 내 석감		미상 (신라 추정)	인물기념유적 (추정)		
4	표암 선각화		통일신라(추정)	종교유적		
5	이차돈순교비		통일신라 (817년경)	종교	경주박물관 보관	
6	백률사 마애탑		통일신라	종교유적		
7	백률사 대웅전	문화재자료	통일신라	종교유적		

연번	문화재명	지정	시기	유형	비고	사진
8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	국보	통일신라	종교	경주박물관 보관	
9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보물	통일신라	종교유적		
10	굴불사지		통일신라~조선	종교유적		
11	동천동 마애삼존불좌상	유형문화재	통일신라	종교유적		
12	동천동 선각마애불입상		통일신라(추정)	종교유적		
13	동천동 고분군		신라~통일신라 (6~7c)	제사·장례유적		
14	이공유허비		조선 (1806년)			
15	송신전	문화재자료	조선 (1898년)	제사·장례유적		

4. 연혁 유래 및 특징

□ 연혁 유래

- 경주 금강산은 신라 왕경의 오악 중 북악이자, 사령지의 하나로서 오랫동안 신성시되어 왔던 장소이다. 고려 후기 충렬왕 때(1280년경) 편찬된 『삼국유사』 권제 1 기이 진덕왕조에는 신라의 신령한 땅 네 곳 중 하나로 북쪽의 금강산을 언급하고 있으며, 대신들이 이곳에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의논하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전한다.
- 표암봉은 금강산 남쪽에 위치한 얇은 구릉이다. 『삼국유사』 권제1 기이 신라시조 혁거세왕조에는 표암봉을 신라의 모태가 된 진한 6촌 가운데 알천양산촌의 촌장 알평이 탄강한 신성한 장소로 기록했다. 이어서 6촌(부)의 촌장들이 표암봉에 모여 신라 건국을 합의하고 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한편 같은 기록에는 명활산 고야촌의 촌장도 금강산에 탄강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삼국유사』 권제2 기이 처용왕 망해사조에는 “(헌강왕이) 금강령에 갔을 때 북악신이 춤을 추었다.”는 기록 등을 통해 볼 때 금강산과 표암봉은 신라의 기원인 6촌과 관련한 여러 유적이 모여 신라시대 신령한 장소 중 하나로서 중시되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경주 금강산 표암봉은 조선시대에도 신라 6부의 시조가 내려온 신성한 장소로 인식되어 향토지나 문집 등에서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권문해(1534~1591)의 『대동육부군옥』(1589년) 권13 종천강(從天降)조에는 양산촌장과 고야촌장이 각각 표암봉과 금강산에 내려왔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이휘일(1619~1672)의 「감표암사」(『존재선생문집』)에는 계사년(1653) 백률사와 표암을 방문한 소감을 남겼는데, 이를 통해 당시 경주 금강산을 대표하는 핵심 유적이 백률사와 표암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조선 현종 10년(1669) 경주부사 민주면이 주관하여 편찬한 경주읍지 성격의 『동경잡기』 산천(山川), 고적(古蹟)조에도 금강산과 표암봉을 6부 시조의 탄강지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 위치에 있어서도 『신증동국여지승람』(경주부 산천)에 “(금강산)이 부의 북쪽 7리에 있는데, 신라 때 북악이라 불렀다”는 기록과 『동경잡기』의 “(표암)은 부의 동북 5리에 있다.”의 기록 등을 통해 볼 때 현재의 금강산과 표암봉을 원 위치로 비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선지도(1767~1776년 사이)



광여도(1800년 이전) - 백률사만 표기되어 있음



해동지도 경주도(1750년)



동여도(18첩 1열, 1856~1861년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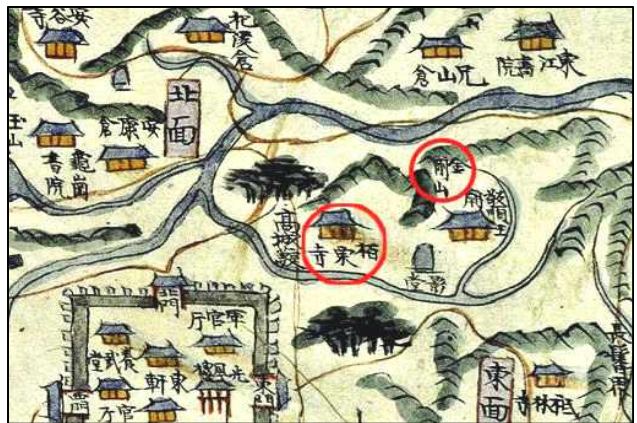
여지도(연대 불명)



영남읍지(1894~1895년)



해동지도 경주도(1750년)



지승 경주부(1776년 이후)



청구도(1834년)



해동지도 경주부(1750년)

□ 유적의 특성과 역사적 의미

○ 신라 왕경의 오악(五岳)이자, 사령지(四靈地)

금강산 표암봉을 신라인들이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하였음은 신라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료6촌의 형성부터 신라라는 국가 형성기에도 그 전개의 장은 금강산이 되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신라의 시작이 금강산에서 출발한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문헌에 확인할 수 있는 금강산은 신라의 신성한 사령지 중 하나였으며 왕경의 공간을 완성하는 오악 중 북악에 해당된다.

또한 『삼국유사』에는 신라의 모태가 된 진한6촌 가운데 알천 양산촌과 명활산 고야촌의 촌장이 탄강한 신성한 장소로 서술되어 있다. 금산 가리촌의 금산 역시 금강산 백률사의 북산으로 기록되어 있어 현재의 금강산 일대로 비정할 수 있다(『삼국유사』 기이 신라시조 혁거세왕조). 금강산 표암봉 일원에는 신라의 기원인 6촌과 관련한 여러 유적이 모여 있어 신라 당시에 왕경 주변의 사령지(四靈地 : 동쪽의 청송산, 남쪽의 우지산, 서쪽의 피전, 북쪽의 금강산) 중 하나로 중시되어 왔고,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대신들의 화백회의가 이곳에서 열리기도 했다(『삼국유사』 기이 진덕왕조).

금강산 표암봉의 역사성은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와 신라6부의 시조가 천강한 신성한 장소로서 당대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다. 조선 현종10년(1669) 경주부사 민주면이 편찬한 경주읍지인 『동경잡기』에는 금강산과 표암봉이 6부 시조의 탄강지로 기록되어 있어 조선시대 개인의 문집뿐만 아니라, 행정·공공의 목적으로 편찬된 사료에서도 금강산과 표암봉은 역사성을 갖는 고유한 유적으로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은 양산촌장, 고야촌장 등 신라 6부의 시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신성한 천강지(天降地)로서 신라 건국과 관련한 유서 깊은 유적이다. 또한 신라 통일 이전 왕경 지역의 오악 중 북악이자, 사령지 중 하나로서 신라 왕경의 북쪽 범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유적이다. 금강산 표암봉 일원은 신라 건국 전후 시기부터 신성시하였으며, 신라 국가 형성의 중요한 터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사령지(四靈地)에서 불교 성지(聖地)로의 변화

금강산을 불교성지로 인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불교 공인의 한 축인 이차돈의 순교와 연계된 백률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차돈의 머리가 금강산에 떨어지는 신이한 모습은 불교국가화의 당위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금강산은 왕경 오악의 북악이며 사령지이고, 6부의 우위세력의 기념비적인 공간이다. 이 공간에 이차돈의 머리가 포함되는 것은 순교라는 과정을 통해 토착세력(종교)과 새로운 이데올로기인 불교가 융합되어 가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금강산은 신라인에게 건국의 신성한 공간이라는 관념에 ‘불교성지’라는 종교적인 신성지의 가치를 더하게 되었다.

이차돈과 관련한 기록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4 법흥왕조와 『삼국유사』 흥법 원종흥법 염축멸신조에 유사한 내용이 전한다. 이차돈의 순교한 해와 관련해서는 삼국유사(528년)와 삼국사기(527년)에서의 차이가 있지만, 두 기록 모두에서 신라의 불교 공인과 흥법(興法)이 이차돈의 순교에 의한 것임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삼국유사』에서는 이야기의 전개가 금강산과 함께 기록된다. 순교한 이차돈의 머리가 날아가 금강산 꼭대기에 떨어졌다고 하며, 이곳에 자추사라는 사찰을 건립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차돈의 묘역이 금강산에 조성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된 이차돈 순교비(백률사 석당기)도 금강산에서 출토되었다. 이러한 문헌기록과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금강산이 신라 불교 공인과 연관된 성소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한편 금강산은 신라 왕경 내 관음신앙의 성지라는 불교사적 의미도 있다. 『삼국유사』 기록에 따르면 중생사, 백률사, 민장사 등 세 사찰의 관음보살상의 영험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는데, 이 세 사찰 가운데 그 위치가 알려진 사찰은 금강산의 백률사가 유일하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에는 태종12년(1412) 10월에 백률사의 전단관음상을 개경사로 이안했다는 기록이 있어 조선전기까지 금강산 백률사는 관음신앙의 성지로서 그 불법이 이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경주 금강산에서 전래되던 백률사의 금동여래입상과 이차돈 순교비는 신라 불교미술 연구의 귀중한 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은 불국사 금동비로자나여래좌상과 금동아미타여래좌상과 더불어 통일신라 3대 금동불상으로 평가되며, 이차돈 순교비는 명문의 사료적 가치뿐만 아니라, 실존 인물인 이차돈의 순교 장면을 조각하여 문화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은 『삼국유사』 탐상 사불산·굴불산·만불산조에 수록되어 있는 유적으로 신라 경덕왕과 관련한 기록이 전할뿐만 아니라 아미타삼존불상, 약사불상, 십일면관음보살상 등 다양한 도상과 여러 시기의 불상 조각이 공존하여 한국 불교 조각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금강산 표암봉 일원에는 백률사 마애탑, 동천동 삼존불좌상, 표암 선각화 등이 분포하여 경주 남산이나 낭산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신라시대 다수의 불교문화재가 집중되어 있다.

○ 왕경 구조의 개편과 (매장)의례 공간의 변화

금강산 표암봉 일원의 고분유적은 단독분인 탈해왕릉(사적)을 비롯하여 동천동 고분군이 중리마을에서부터 금강산 정상부까지 넓게 분포한다. 동천동 고분군은 6~7세기에 걸쳐 조성된 횡혈식 석실분이 주를 이룬 것으로 파악되는데, 최근 발굴을 통해 고분간의 밀집 조영과 추가장 등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밀한 분묘의 분포는 당시 묘제의 변화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동일 계통 혹은 혈연 집단에 의한 집중적인 조묘(造墓)활동으로 볼 수 있다.

6세기 중엽 이후 급속히 확산되어 간 신라의 횡혈식 석실분은 지배계층의 묘제 변

화, 왕경의 정비, 특히 불교 관념의 보급 등과 긴밀히 연동하여 유행하게 된다. 즉, 6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왕경 내의 전통적인 묘제인 적석목곽묘가 횡혈식 석실분으로 전환된다. 동천동 고분군의 열악한 입지조건을 감수한 분묘의 조영 활동이나 밀집 조영 등은 일정 수준 이상의 친연성을 가진 집단이 일관된 계획에 따라 추진한 것이며, 피장자 혹은 그 후손의 의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금강산 일대는 6~7세기를 지나는 동안 사후세계의 안식처로 신라인에게 깊게 각인되었으며, 『삼국유사』 권제4 의해 사복불언조에서도 금강산은 불교적 이상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묘역으로 묘사되고 있다. 분묘의 입지로서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집약된 배치를 보이는 동천동 고분군은 신라 왕경에서 급격한 묘역의 변동과 묘제의 변화를 겪고 있던 양상을 살피는 데에도 구체적 사례가 될 수 있다. 한편 금강산 표암봉 일원에 분포한 고분의 조성 시기를 고려했을 때 불교적 사상체계로 묘역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 금강산이 사령지와 북악으로 신성한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었기에 전통적인 신성성에 불교적 사후세계관이 투영되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 소결

금강산 표암봉은 신라 왕경의 사령지이며 오악 중 북악으로서 신라사 전시기에 걸쳐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금강산은 진한(사로) 6촌의 천강설화 중 3개의 촌과 연관된 역사적 공간이다. 표암봉은 신라 건국을 논의하는 회의가 개최되면서 신라 역사가 시작되는 장소이자,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화백회의의 장소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과 역사적 상징성은 여러 기록 자료를 통해 조선시대까지 꾸준히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금강산은 불교 공인 이후에는 신라 불교사에 있어 시작을 알리는 이차돈과 관련한 성지(聖地)로서의 의미가 추가되었다. 금강산 백률사는 이차돈의 추모사찰이 되었고, 이차돈의 묘와 순교비를 금강산에 건립하여 그 정통성을 재확인했다.

금강산은 6세기 불교 공인과 더불어 신라 왕경의 새로운 구조 개편에 따라 왕경인의 (매장)의례의 공간, 즉 사후 안식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금강산에 입지한 탈해 왕릉과 다수의 중소형 고분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검토의견

○ 금강산, 표암봉이 가지는 역사적 공간성

신라 이후 고려, 조선시대까지 일과적으로 내려오는 금강산 표암봉의 고유한 역사적 가치는 ‘신라 왕경의 오악이자, 사령지 중 하나이며 신라 건국 및 국가 형성 단계의 중요한 터전’이라는 점이다.

금강산은 왕경의 오악을 동악-토함산, 서악-선도산, 남악-남산, 중악-낭산과 더불어 북악으로서 왕경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형성하던 성산(聖山)이었다. 주지하듯이 동악

의 토함산은 초기에 탈해의 능과 사당이 자리하면서 그 권위를 지녔으며, 선도산은 선도성모와 같은 토속신앙을 통해 신성시되었다. 남산은 불교의 성소이자, 수행처로서 당대 사람들에게 인식되었고, 낭산은 초기 신유림으로서 신령한 장소로 인식되다가 선덕여왕의 장지가 마련된 후 불교적 관련성의 수미산 도리천으로서의 의미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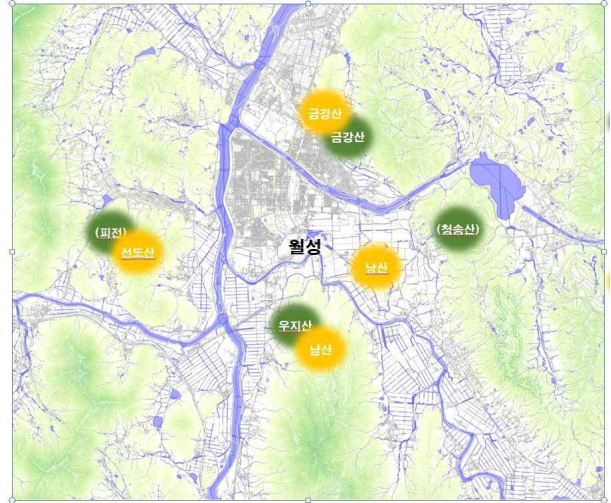
북악인 금강산은 신라 초기 왕경의 북쪽의 구획하는 중요한 공간이 되었다. 특히 금강산과 표암봉은 진한(사로)6촌 가운데 알천 양산촌과 명활산 고야촌 시조의 탄강지로 인식되었으며, 금산 가리촌의 중심 촌락이기도 했다. 6부의 촌장들이 모여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하고 신라 건국을 도모한 장소인 금강산과 표암봉은 통일 이전 왕경 주변의 사령지(四靈地 : 동쪽의 청송산, 남쪽의 우지산, 서쪽의 피전, 북쪽의 금강산) 중 하나로 중시되어 왔으며,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대신들의 화백회의가 이곳에서 열리기도 하였다.

한편 금강산 표암봉의 이러한 역사성은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와 신라6부의 시조가 천강(天降)한 장소로서 당대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조선 현종 10년(1669) 경주부사 민주면이 편찬한 경주읍지인 『동경잡기』에도 금강산과 표암봉이 6부 시조의 탄강지로 기록되어 있어, 조선시대 행정·공공의 목적으로 편찬된 사료에서도 금강산과 표암봉은 역사성을 갖는 고유한 유적으로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신라 불교 성지(聖地)로의 상징성

금강산의 두 번째 역사적 가치는 ‘신라 초기 신성지에서, 불교의 성지로서 자리 잡게 된다’는 점이다. 신라의 불교는 고구려나 백제의 비해 공인이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여러 문헌기록을 통해 볼 때 외래종교인 불교에 대한 왕경 귀족의 반발이 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차돈의 순교는 신라에 불교가 공식적으로 수용되는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금강산을 불교의 성지로 인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불교 공인의 핵심인 이차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강산은 왕경 오악의 북악이며 사령지이고, 6부 우위 세력의 터전이 되는 기념비적인 공간이었다. 이 공간에 이차돈의 머리가 포함되는 것은 순교라는 과정을 통해 토착(종교)세력과 새로운 이데올로기인 불교가 융합(습합)되어 가는 것을 상징한다



신라 왕경 오악

※ 동악 토함산(불국사·석굴암), 남악_남산, 중앙_낭산 등은 이미 사적으로 지정되어 해당 공간의 역사적·학술적 가치와 의미가 잘 보존되고 있음

고 볼 수 있다. 즉 금강산은 신라인에게 건국의 신성한 공간이라는 관념에 ‘불교성지’라는 종교적인 신성지의 가치가 더하게 된 것이다.

금강산에는 이후 자추사(백률사)가 조성되고 불교의 성지로서 상징성을 갖게 된다. 이후 백률사는 이차돈의 추모사찰이 되면서 주변에 이차돈 순교비(백률사 석당기)를 세워 그 정통성을 재확인한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 백률사가 산지가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경덕왕이 직접 행차하기도 하며, 황룡사, 분황사, 불국사 등 왕실사찰에서만 봉안하던 대형의 금동여래입상을 조성·봉안한 것은 신라 당대 금강산 백률사가 가지는 불교 성지로서의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백률사는 증생사, 민장사와 함께 영험한 관음보살상을 봉안한 관음신앙처로도 전해지는데, 특히 『삼국유사』에 언급된 이 세 사찰 가운데 현재 그 위치가 분명히 밝혀진 곳은 금강산 백률사가 유일하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태종 12년(1412) 10월에 백률사의 전단관음상을 개경사로 이안했다는 기록이 있어 조선전기까지 백률사는 관음신앙의 성지로서 그 불법이 이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금강산 백률사는 신라 불교 성지로서의 분명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백률사의 이차돈 순교비는 역사적 사실이 문자로 기록되고 회화로 묘사되어 있어 신라를 대표하는 불교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 외에도 굴불자시 석조사면불상, 백률사 금동여래입상, 동천동 마애삼존불상 등은 신라 불교문화와 예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작품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면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남산의 불적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 불교 공인 이후, 신라 (매장)의례의 장소성

신라 왕경에는 6세기 율령이 만들어지고, 불교가 공인된 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난다. 도시구조가 새롭게 바뀌면서 도시 중심에 위치했던 매장의례 공간은 왕경 주변의 산지구릉으로 그 위치를 옮겨간다. 대신 왕경 중심에는 대규모 사찰이 들어서고, 도로가 생기면서 도시의 구조가 개편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강산은 ‘**왕경인의 사후 안식처로서의 인식이 생겨나고, 실질적인 (매장)의례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신라 불교 성지로서의 의미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특히 이차돈 순교 후 머리가 날아간 곳과 그 시신이 매장된 곳이 바로 금강산이었다는 점에서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삼국유사』의 사복설화에서도 금강산은 불교적 이상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묘역(墓域)으로 묘사된다.

금강산에서 주목되는 고분유적은 현재 사적으로 지정된 탈해왕릉이 있다. 탈해왕릉은 금강산 표암봉에서 약 70m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고분과 달리 단독분형식으로 조성되어 있어 묘역 내 대표성을 지닐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신라 제4대왕인 탈해니사금(재위 57~80년)의 능으로 알려져 있으나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실제 탈해왕릉은 동악 토함산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그 주인공을 명확히 비정할 수는 없다. 지금의 탈해왕릉의 위치를 고려해 볼 때 초기 고분지역인 경주 분지 중심에서 벗어나 주변 산록으로 옮겨졌다는 점에서 신라 초기보다는

통일기 전후(6~7세기)의 고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동천동 고분군은 6~7세기 황혈식 석실분의 유행으로 보여주는 유적이다. 최근 동천동 중리마을 일대에서 확인된 고분은 금강산을 뒤로하고 앞으로 왕경을 조망하는 전형적인 입지를 보인다. 열악한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황혈식 석실분이 집중한다는 것은 특정 집단이 일정한 의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금강산 주변이 (매장)의례를 하기 위한 적절한 장소라는 점, 즉 당대 왕경인에게 금강산이 사후 세계의 중요한 안식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다.

6~7세기 왕경인의 무덤군으로 생각되는 탈해왕릉과 동천동 고분군의 묘제와 장습은 신라의 (매장)의례를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그리고 이러한 묘제나 묘역의 변화에는 불교 공인과 더불어 왕경 도시구조의 확대와 개편, 그리고 장례에 대한 인식변화 등 시대적 환경과 조건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유사 지정 사례와의 비교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과 유사한 사례로는 경주 남산 일원(사적), 경주 낭산 일원(사적) 등이 있다. 두 유적 모두 금강산과 함께 신라 왕경의 오악이며, 신라의 정치, 종교, 의례와 관련한 유적들이 일원 내에 다수 분포하여 신라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적지이다.

먼저 경주 남산은 초기 왕성인 금성이 있던 곳으로 전해지며, 진평왕13년(591)에는 월성에서 가장 근거리해 해당하는 남산 북쪽에 석성인 남산신성을 쌓고, 그 내부에 장창 등을 설치해 무기와 곡식을 저장하고 전쟁에 대비했다. 한편 신라에 불교가 공인된 후 7세기경부터는 남산 계곡 곳곳에 소규모의 불적이 다수 조성되고, 신라 왕경의 수행처로서 역할과 기능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경주 남산 계곡의 초입에는 단독의 고분이 사방으로 조성되었고, 계곡 곳곳에는 장골기로 사용된 골호들이 다수 발굴되었다. 이러한 남산의 (매장)의례는 신라 불교 사상에 따른 장법의 변화와 불국토에서 영면하려는 신라인의 염원이 담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주 낭산은 신라 초기부터 신성한 장소로서의 인식이 있었다. 실성니사금 12년(413)에 낭산을 신선이 내려와 노는 곳, 즉 신유림(神遊林)으로 명하고 복 받은 땅이라고 하면서 나무 한그루도 베지 못하도록 했다. 낭산은 불교 공인 이후 전불칠처가람처 중 하나가 되었고, 나아가 낭산 정상부에 선덕여왕릉이 들어서면서 불교적 관림의 수미산 도리천으로서의 상징성이 더해진다. 신라 전통신앙의 성소였던 낭산이 7세기 이후 불교의 상징적 공간으로 변화하는 것은 금강산이 사령지에서 불교의 성지로 변화하는 양상과 매우 흡사하다. 이러한 현상은 고대 토속신앙과 새로운 이데올로기인 불교가 서로 융화되는 과정을 성산(聖山)이라는 공간 속에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선덕여왕릉이 들어선 후, 7세기 후반~8세기까지 사천왕사, 망덕사, (전)황복사(봉성사), 능지탑 등 신라 중대 중요사찰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게 된

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금강산, 낭산, 남산은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진 유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적은 단순히 개별 유적만으로는 그 공간이나 장소가 주는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 따라서 금강산도 낭산, 남산 일원과 같이 개개의 유적을 묶어 사적으로 보존하여 신라 왕경에 있어 금강산이 지닌 공간의 역사성과 학술적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소결

경주 금강산 표암봉은 신라사 전시기에 걸쳐 왕경의 신성한 공간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해당 유적은 신라의 건국과 고대국가로 이어지는 과정의 역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의 수용과 발전, 왕경 구조의 변화 등 신라 역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과 관련한 역사적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금강산과 표암봉은 고려, 조선시대에도 그 역사성이 그대로 이어져 당대 사람들에게 고유한 유적이자, 역사의 장으로서 인식되었다. 금강산 표암봉 일원에는 이미 지정문화재로서 관리되고 있는 신라시대 유적·유물이 다수 분포한다. 다만 이러한 유적·유물은 모두 점 단위로 보존되고 있어 신라 왕경에 있어 금강산이 가지는 역사적 공간성의 가치와 의미를 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금강산 표암봉 일원의 유적을 포괄적으로 묶어 일괄 보존하는 것이 금강산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알리는데 보다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지정 대상 및 범위

■ 검토의견

-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과 유사한 사례로는 신라 왕경의 오악인 경주 남산 일원(사적), 경주 낭산 일원(사적) 등이 있다. 다만 남산과 낭산은 산 전역에 유적이 고루 분포하기 때문에 지정범위를 유적의 분포에 따라 산 전역으로 설정했으며, 지정명칭도 산명(山名)까지만 표기해 지정되었다. 그러나 금강산(행정구역상 소금강산)은 보다 광범위하나, 사적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 범위는 신라시대 핵심유적이 밀집 분포하는 **금강산 표암봉 일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신청 대상 :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산7-6번지 일원
- 신청 면적 : 122필지(425,03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구분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구분	
							소유자	주소
1	동천동	238-1	구	공유지	2,283	152		
2	동천동	350-1	도	사유지	20	20		
3	동천동	350-4	도	사유지	16	16		
4	동천동	350-5	도	사유지	83	83		
5	동천동	350-6	대	사유지	833	833		
6	동천동	350-7	사	국유지	2,218	2,218		
7	동천동	350-8	답	사유지	1,957	1,95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구분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구분	
							소유자	주소
8	동천동	351-1	답	국유지	1,491	1,491		
9	동천동	351-3	도	사유지	178	178		
10	동천동	352-1	대	사유지	498	498		
11	동천동	352-2	도	사유지	7	7		
12	동천동	352-3	대	사유지	63	63		
13	동천동	352-4	답	사유지	1,925	1,925		
14	동천동	352-5	도	국유지	13	13		
15	동천동	353	대	국유지	959	959		
16	동천동	354	대	국유지	1,381	1,381		
17	동천동	355-2	대	국유지	122	122		
18	동천동	355-3	대	사유지	411	411		
19	동천동	405	답	사유지	433	433		
20	동천동	406-1	중	사유지	833	833		
21	동천동	437-1	답	사유지	1,236	1,236		
22	동천동	437-2	답	사유지	294	294		
23	동천동	438-1	답	사유지	1,144	1,144		
24	동천동	443-1	답	사유지	797	797		
25	동천동	444-1	답	사유지	1,213	1,213		
26	동천동	444-2	답	사유지	721	547		
27	동천동	444-3	도	국유지	16	16		
28	동천동	445-1	도	국유지	46	46		
29	동천동	445-2	전	사유지	205	205		
30	동천동	446-1	답	사유지	96	96		
31	동천동	446-2	구	공유지	23	23		
32	동천동	447	전	사유지	198	198		
33	동천동	448-1	전	사유지	50	50		
34	동천동	448-2	구	사유지	526	526		
35	동천동	449-1	구	사유지	337	337		
36	동천동	449-2	구	사유지	23	23		
37	동천동	449-3	답	사유지	1,264	1,264		
38	동천동	449-4	도	국유지	489	489		
39	동천동	449-5	답	사유지	251	251		
40	동천동	449-6	도	사유지	40	40		
41	동천동	449-7	구	사유지	3	3		
42	동천동	449-9	구	공유지	128	128		
43	동천동	450-1	도	국유지	20	20		
44	동천동	450-2	대	사유지	63	63		
45	동천동	458-1	대	사유지	89	89		
46	동천동	459-2	답	사유지	23	23		
47	동천동	468-1	전	사유지	291	291		
48	동천동	469-1	구	공유지	1,325	1,325		
49	동천동	469-2	답	사유지	30	3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구분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구분	
							소유자	주소
50	동천동	469-3	구	공유지	106	106		
51	동천동	469-4	도	국유지	453	453		
52	동천동	469-5	답	사유지	740	740		
53	동천동	505-1	사적	국유지	63	63		
54	동천동	505-2	도	국유지	23	23		
55	동천동	506-1	사적	국유지	155	155		
56	동천동	506-2	도	국유지	36	36		
57	동천동	507-10	도	사유지	30	30		
58	동천동	507-12	도	국유지	228	228		
59	동천동	507-13	답	사유지	56	56		
60	동천동	507-15	구	공유지	265	265		
61	동천동	507-2	도	사유지	33	33		
62	동천동	507-3	구	사유지	23	23		
63	동천동	507-4	구	사유지	344	344		
64	동천동	507-5	답	사유지	1,195	1,195		
65	동천동	507-6	답	사유지	897	897		
66	동천동	507-7	도	국유지	192	192		
67	동천동	507-8	도	국유지	532	532		
68	동천동	508-1	도	국유지	178	178		
69	동천동	508-2	사적	국유지	129	129		
70	동천동	508-3	사적	국유지	767	767		
71	동천동	509-1	답	국유지	873	873		
72	동천동	509-2	도	사유지	20	20		
73	동천동	510-1	답	국유지	2,582	2,582		
74	동천동	511-1	구	사유지	182	182		
75	동천동	511-2	답	국유지	177	177		
76	동천동	511-3	도	국유지	149	149		
77	동천동	511-4	도	국유지	107	107		
78	동천동	512-1	도	사유지	221	221		
79	동천동	512-2	전	사유지	159	159		
80	동천동	513-1	사적	국유지	1,524	1,524		
81	동천동	513-2	구	공유지	231	231		
82	동천동	513-4	구	공유지	324	324		
83	동천동	513-5	도	사유지	60	60		
84	동천동	513-6	도	국유지	245	245		
85	동천동	514-1	사적	국유지	16	16		
86	동천동	514-3	사적	국유지	108	108		
87	동천동	514-4	답	국유지	14	14		
88	동천동	515-2	답	사유지	40	40		
89	동천동	515-3	사적	국유지	1,124	648		
90	동천동	515-4	사적	국유지	134	134		
91	동천동	515-6	사적	국유지	233	7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구분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구분	
							소유자	주소
92	동천동	515-7	답	사유지	18	18		
93	동천동	516-1	답	사유지	10	10		
94	동천동	534-1	사적	국유지	254	254		
95	동천동	534-3	답	국유지	7	7		
96	동천동	736-1	도	국유지	474	474		
97	동천동	736	도	국유지	2,567	370		
98	동천동	739-1	구	국유지	427	215		
99	동천동	740-1	도	국유지	450	362		
100	동천동	740-2	답	국유지	46	46		
101	동천동	741	구	국유지	3,273	1,499		
102	동천동	742	도	국유지	106	106		
103	동천동	744-8	도	국유지	3,568	525		
104	동천동	749	도	국유지	1,737	303		
105	동천동	750	도	국유지	188	188		
106	동천동	991	임	국유지	4,325	4,325		
107	동천동	산13	임	국유지	30,324	30,324		
108	동천동	산14	묘	국유지	3,570	3,570		
109	동천동	산16	임	사유지	23,802	23,802		
110	동천동	산17	임	국유지	38,083	38,083		
111	동천동	산18-1	임	국유지	11,504	11,504		
112	동천동	산18-2	임	사유지	9,521	9,521		
113	동천동	산19	임	사유지	1,983	1,983		
114	동천동	산20	임	사유지	11,901	11,901		
115	동천동	산4	임	사유지	72,198	72,198		
116	동천동	산65	구	국유지	49	49		
117	동천동	산66	구	국유지	1,124	1,124		
118	동천동	산7-2	임	사유지	9,521	9,521		
119	동천동	산7-3	임	국유지	10,116	10,116		
120	동천동	산7-4	임	국유지	9,521	9,521		
121	동천동	산7-6	임	국유지	132,736	121,410		
122	용강동	산67	임	사유지	23,008	23,008		
계					448,044	425,031		



유적 문화재구역(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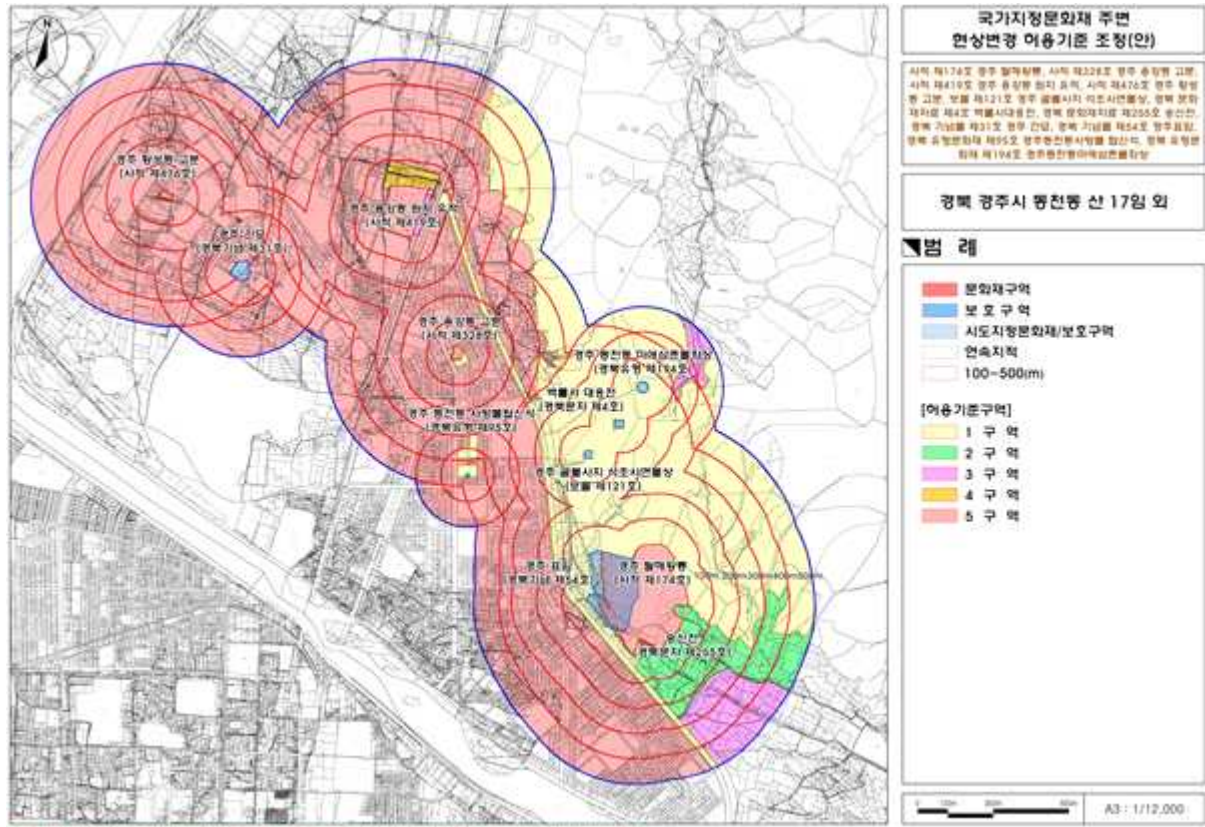
유적 지적도(1:5,000)



금강산 표암봉 일원 문화유적 위치(문화재청 GIS 인트라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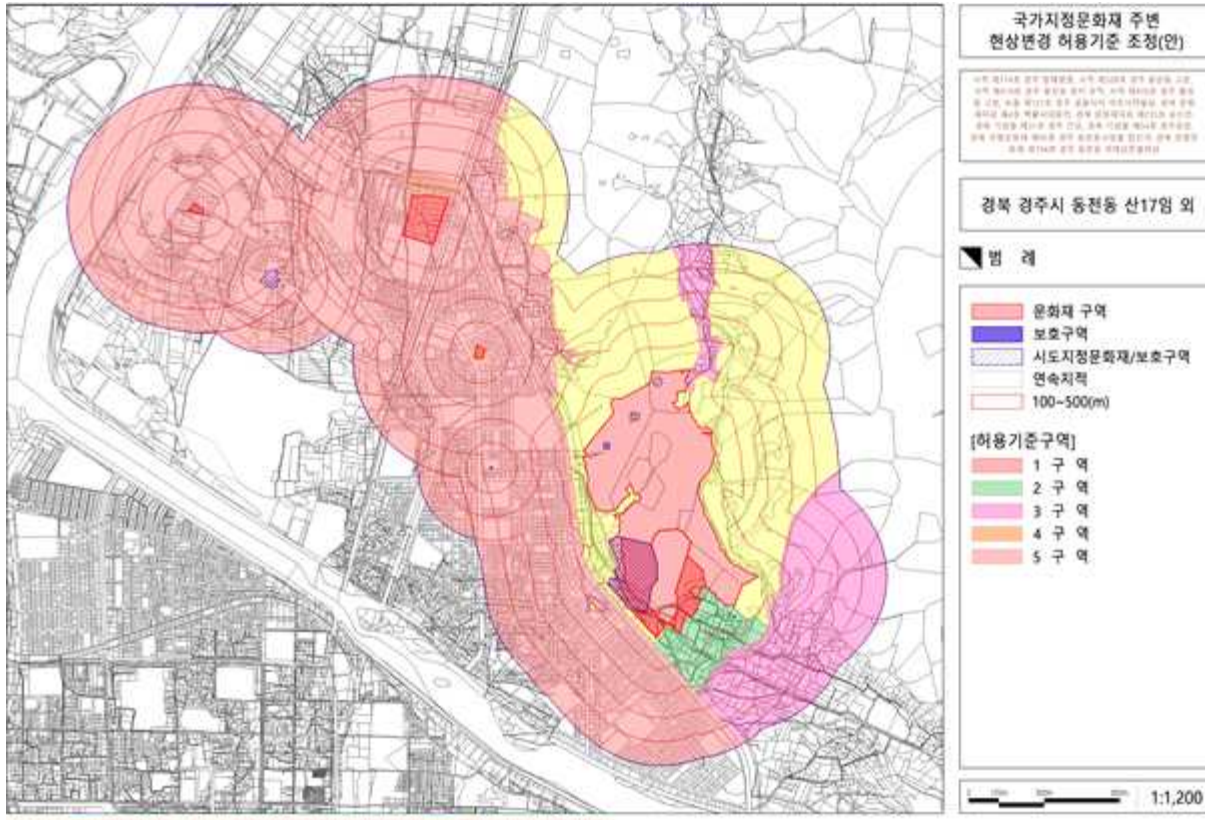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현재 기준안(도면)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현황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및 타용도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변경 기준안(도면)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현황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및 타용도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분	범례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 청장과 사전 협의함.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보존 정비 및 활용 기본방향
 - 전통문화를 역사·문화유산 및 관광·교육자원으로 활용
 - 도심 인접 문화유적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한 보존, 정비, 활용 계획 수립
 - 주변 문화유적과의 연계성 확보, 이를 연결하는 매개공간 확보
 - 지역주민에 홍보를 통한 참여의식 고취, 공감대 형성 주력
- 관리운영 방향
 - 초기단계는 주체에 대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하여 수정·보완하여 지속적인 관리 체계유지
 - 역사와 문화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적인 요원을 선발, 관리·운영의 전문성 확보
 - 도심 인접 공원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체험, 여가활용의 공간으로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을 도입, 역사와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활용

9. 종합 의견

- 금강산 표암봉 일원은 신라사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한 중요한 유적들이 집약된 장

소로서 그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 해당 지역 내 분포한 여러 유적은 신라의 정치·종교·의례와 관련해 중요한 문화유산이며 신라 왕경의 공간구조와 사회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은 신라사 전시기에 걸쳐 왕경의 신성한 공간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이 장소는 신라의 건국과 고대국가로 이어지는 과정의 역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의 수용과 발전, 왕경 구조의 변화 등 신라 역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과 관련한 역사적 공간이 되었다.
- 금강산과 표암봉은 고려, 조선시대에도 그 역사성이 그대로 이어져 당대 사람들에게 고유한 유적이자, 역사의 장으로서 인식되었다. 특히 경주읍지인 『동경잡기』(1669년 편찬)와 같은 공공의 목적으로 편찬된 문헌 기록에도 금강산과 표암봉을 공식적으로 신라의 고유한 유적지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은 신라 역사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공간이다.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에는 이미 사적과 보물로 지정된 탈해왕릉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백률사 등 신라 불교 유적·유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일원을 포괄적으로 묶어 사적으로 일괄 지정하는 것이 신라 당시 금강산이 가지고 있던 역사적 공간성을 체계적·통합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현지조사 의견서

지정종별	사적	문화재명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 (慶州 金剛山 瓢巖峯 一圓)
수 량	1식	지정면적	425,031㎡(122필지)
재 료	-	소 유 자	국유·공유·사유
시 대	신라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산 7-6번지 일원
조사내용	<p>경주 금강산은 『삼국유사』 기이 신라시조 혁거세왕조의 진한 6촌 기사를 보면 6촌 중 3개의 촌이 금강산과 연관되어 있어 신라 건국 전후 시기부터 신성시하였으며, 신라 국가 형성의 중요한 터전이었음을 말해준다. 특히 『삼국유사』 기이 진덕왕조를 보면 국가의 대사는 경주 주위의 사령지(四靈地)에서 대신들이 필히 참석해 결정한다 했는데 청송산, 피전, 오지산, 금강산이 이에 속한다. 또한 신라인들은 다양한 형태의 종교적 고양을 통해 오악이 위치한 왕경을 신성공간으로 구축하였는데, 금강산은 왕경 오악 중 북악으로서 동의 토함산, 서의 선도산, 남의 남산, 중악인 낭산과 함께 신성한 장소로 인식되어 왔다. 현재 ‘낭산 일원’과 ‘남산 일원’은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존·관리되고 있다.</p> <p>경주 금강산은 이차돈 순교와 관련한 신라 불교의 성지로서 이차돈 순교지에 백률사를 세워 초기불교를 형상화 하고 성소화 하였는데,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역화가 이루어져 백률사에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불상인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국보)과 헌덕왕대에는 이차돈을 추모하여 이차돈 순교비를 세웠다. 금동약사여래입상과 이차돈 순교비는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 백률사 아래에는 석조사면불상(보물)이 남아 있는 굴불사 절터가 있어 금강산 일원이 신라 불교성지로서 신라 불교 수용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p>		

표암봉은 『삼국유사』 혁거세왕조를 보면 진한 6촌중 알천 양산촌의 촌잔은 알평인데, 처음 표암봉에 내려와 금량부 이씨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여 금강산 표암봉을 알평의 탄강지로 기록하고 있다. 표암봉은 해발 20m 정도의 봉우리로 탈해왕릉과 약 7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의 표암과 동일한 곳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오래전부터 신성한 장소라는 인식이 반영된 곳으로서 6성의 시조 탄생지 가운데 유일하게 특정위치를 비정되어 전해진 곳이라는 점에서의 의의가 있다. 특히 경주읍지인 『동경잡기』(1699, 현종 10년)에도 금강산과 표암봉이 6부 시조의 탄강지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과 탈해왕릉,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과 이차돈순교비, 도지정문화재인 경주 동천동 마애삼존불좌상, 경주 표암, 백률사 대웅전과 승진전 등의 유적이 밀집되어 있는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은 신라 역사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어 별도의 보존·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22. 3. 25.

조사위원 ○ ○ ○

현지조사 의견서

지정종별	사적	문화재명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 (慶州 金剛山 瓢巖峯 一圓)
수 량	1식	지정면적	425,031㎡(122필지)
재 료	-	소 유 자	국유·공유·사유
시 대	신라	소 재 지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산 7-6번지 일원
조사내용	<p>신라 오악 중 북악인 ‘경주 금강산’ 중에서도 ‘신라 북악’으로서의 역사성과 학술성을 가지는 유형(유적)·무형의 현상이 집중된 곳이 ‘표암봉 일원’이므로 사적의 명칭은 경주+금강산+표암봉 일원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유적의 명칭이 산명(山名)까지만 제시(경주 남산 일원, 경주 낭산 일원)되었으나, 북악인 금강산의 경우 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한 곳이 금강산 남쪽에 한정되어 있어 집중지역(표암봉)을 표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p> <p>사적 지정에 있어 최소한의 지정면적인 122필지 중 64필지는 국유립 또는 공유지로서 보존을 위한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약 50%가 넘는 비율이지만, 사유지 중에서도 신라 씨족(6부족의 하나) 형성과 관련한 이씨 문중 묘역까지 포함한다면 보존을 위한 진정성은 훨씬 높은 비율임이 인정된다.</p> <p>신라 북악으로서의 역사성과 학술성을 가지는 유형(유적)·무형의 현상이 집중된 표암봉 일원은 신라 부족 형성지역으로 6부족의 하나인 ‘경주 이씨’집단의 형성에 관한 유·무형의 유산이 형성된다. 그리고 신라의 고대 정치 장소의 하나로서, 월성 사방에 위치한 사령지(四靈地) 중 하나로 신성한 장소로서 의미와 상징성이 있을 것이다.</p> <p>뿐만 아니라, 재래신앙처에서 고대종교로 대체되는 신라 불교 공인과 밀접하게 관련된 장소로서 가치가 크다. 주지하듯이 이차돈의 순교와 관련한 백률사 유적이 분포하고 있으며, 경덕왕대 유적인 석조사면석불상</p>		

도 주변에 함께 위치한다. 이러한 불교 가치는 통일신라시대 오방사상으로서 확대 발전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금강산 표암봉 일원은 신라인의 죽음을 상징하는 묘역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곳으로 탈해왕릉과 동천동 고분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이차돈 순교 이후 머리가 금강산으로 날아갔다는 상징적 이야기 역시 북악인 금강산이 불교 공인 이후 불교의 성지이자, 신라인의 사후안식처로서의 의미가 있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은 개별 유적의 가치뿐만 아니라 사료와 무형으로 전해지는 상징성은 신라를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소이며, 월성을 중심으로 하는 신라 도성 정면(북쪽 신령처)으로서의 북악이라는 상징성이 담긴 곳이다. 중악(낭산 일원), 남악(남산 일원), 동악(토함산 불국사·석굴암 중심)과 함께 사적으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지정 가치에 대한 역사성은 유적과 상징성이 공존하나 상징성에 보다 치중되어 있고, 학술성은 유적과 설화적 부분이 공존하고, 예술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이들을 아우르는 경관성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생각한다.

2022. 3. 25.

조사위원 ○ ○ ○

현지조사 의견서

지정종별	사적	문화재명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 (慶州 金剛山 瓢巖峯 一圓)
수 량	1식	지정면적	425,031㎡(122필지)
재 료	-	소 유 자	국유·공유·사유
시 대	신라	소 재 지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산 7-6번지 일원
조사내용	<p>‘금강산(金剛山)’은 『삼국유사』 등 고려시대 기록에서부터 확인되는 유서 깊은 지명으로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강원도의 금강산과 구분하기 위해 ‘소금강산’이라고 속칭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원래 지명인 금강산으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암봉(瓢巖峯)’이란 명칭은 『삼국유사』(기이 신라시조 혁거세왕)에 기록된 유래가 깊은 역사적인 용어라는 점에서 지정명칭으로 충분히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한자 ‘巖(암)’과 ‘峯(봉)’은 흔히 쓰지 않는 글자(속자)이므로, 한자 표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한자인 ‘표암봉(瓢巖峰)’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p> <p>유사한 성격의 경주 낭산(狼山)(사적)의 지정 면적 826,396㎡과 비교해 넓다고 볼 수 없으며, 지형적으로도 백률사 일대와 표암봉 일대가 금강산 능선에 의해 연결되고 있거니와 그 일원에 분포한 문화유산이 모두 신라와 관련된 유적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사적 구역으로 일괄 지정·보존함이 타당할 것이다.</p> <p>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과 관련한 기록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고려 후기 충렬왕 때 (1280년경) 편찬된 『삼국유사』로 금강산과 표암봉인 신라의 모태가 된 진한 6촌 가운데 알천 양산촌(闕川楊山村)과 명활산 고야촌(明活山高耶村)의 촌장이 탄강한 신성한 장소로 서술되어 있다. 또한 금산 가리촌(金山加利村)의 금산 역시 금강산 백률사의 북산으로 현재의 경주 금강산 일대로 비정되고 있다(『삼국유사』 기이 신라시조 혁거세왕조). 이처럼 금강산 표암봉 일원에는 신라의 기원인 6촌과 관련</p>		

한 여러 유적이 모여 있어 신라 시기에 왕경 주변의 사령지(四靈地 : 동쪽의 청송산, 남쪽의 우지산, 서쪽의 피전, 북쪽의 금강산) 중 하나로 중시되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대신들의 화백회의가 이곳에서 열리기도 하였다(『삼국유사』 기이 진덕왕조).

조선시대에도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은 신라 6부의 시조가 천강한 신성한 장소로 인식되어, 권문해(1534-1591)의 『大東韻府群玉』(1589년) 권13 종천강(從天降)조에서 양산촌장과 고야촌장이 각각 표암봉과 금강산에 내려왔다고 하였다. 조선후기에 들어서서는 이휘일(1619-1672)의 「感瓢巖辭」(『존재집』)에서 계사년(1653)에 백률사와 표암을 방문한 소감을 술회하였는데 이는 당시 백률사와 표암이 경주 금강산의 핵심유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조선 현종 10년(1669) 경주부사 민주면 등이 편찬한 경주읍지인 『동경잡기』(山川·古蹟)에서도 금강산과 표암봉이 6부 시조의 탄강지로 기록되었다.

경주 금강산은 『삼국유사』 기이 처용랑 망해사조에 “(헌강왕이) 금강령(金剛嶺)에 갔을 때 북악신이 춤을 추었다”는 기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경주부 산천)에 “(금강산)이 부의 북쪽 7리에 있는데, 신라 때 북악이라 불렀다”는 기록에 근거해 신라 통일 이전 경주평야를 중심으로 한 오악 중의 북악에 비정하기도 한다(이기백, 「신라 오악의 성립과 그 의의」, 『진단학보』 33, 1972). 경주 금강산에는 신라 불교 수용 과정을 보여주는 이차돈 순교비, 백률사(자추사) 뿐만 아니라 경덕왕대 불교문화재인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보물)과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국보) 등이 있던 불교 성지로서 그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이다.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에는 기존에 이미 사적으로 지정된 탈해왕릉과 보물로 지정된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등의 국가지정문화재가 다수 분포하고 있다. 그 분포 범위의 중간 지점에 표암봉이 위치하는데, 표암봉은 남쪽으로 왕성(월성)을 조망할 수 있는 가시권의 북한계선에 해당한다. 표암봉의 위치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경주읍지인 『동경잡기』의 “瓢巖在府東北五里”이래로 지금 동천동 507-7번지의 ‘박바

위'에 비정하는데 이견이 없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역주 삼국유사』, 2002).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은 양산촌장, 고야촌장 등 신라 6부의 시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신성한 天降地로서 신라 건국과 관련한 유서 깊은 유적이다. 또한 신라 통일 이전 왕경 지역의 오악 중 북악이자, 왕경 주변의 사령지 중 하나로 대신들이 모여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던 화백회의의 장소로서 신라 왕경의 북쪽 범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유적이다.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에는 이미 사적과 보물로 지정된 탈해왕릉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백률사 등 신라 불교 유적·유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일원을 포괄적으로 묶어 사적으로 일괄 지정하는 것이 신라 당시 금강산이 가지고 있던 역사적 공간성을 체계적·통합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2022. 3. 25.

조사위원 ○ ○ ○

현지조사 의견서

지정종별	사적	문화재명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 (慶州 金剛山 瓢巖峯 一圓)
수 량	1식	지정면적	425,031㎡(122필지)
재 료	-	소 유 자	국유·공유·사유
시 대	신라	소 재 지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산 7-6번지 일원
조사내용	<p>경주 금강산은 현재 ‘소금강산’이라는 지명으로 통용하고 있지만, 이는 강원도의 금강산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근래에 변경된 명칭이다. 옛 문헌자료나 고지도에 공통적으로 ‘금강산’으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사적명칭에 있어 원래의 지명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경주 금강산’으로 쓰면 강원도의 금강산과도 자연스럽게 구별된다. 그리고 경주 금강산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범위를 한정된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이라는 지정명칭이 타당하고 생각한다.</p> <p>계획된 지정면적은 금강산 전체에서 표암봉 일원으로 범위가 제한되지만 시조 탄강지, 불교유적, 고분군 등 현재까지 알려진 금강산 일대의 중요 유적을 모두 포함한 핵심구역에 해당한다. 사적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면적은 설정된 구역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p> <p>금강산 표암봉은 사로 6촌 중 알천 양산촌의 촌장인 알평의 탄강지이자, 국가의 대사를 논의하던 장소로 신라 초기부터 신성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이어져 왔다. 물론 현재의 표암이 『삼국유사』에 기록된 표암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표암으로 비정되는 다른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조선후기 사료를 통해 17세기 중엽 이후 현재의 표암이 알평의 탄강지라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표암봉은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p> <p>또한 경주 금강산은 신라 불교공인의 계기가 된 이차돈의 순교와 관련된 공간이다. 『삼국유사』 원종흥법염축멸신조에 따르면 순교한 이차돈</p>		

의 머리가 날아가 금강산 마루에 떨어졌다고 하며, 이곳에 자추사라는 사찰을 건립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차돈의 묘 역시 금강산에 조성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된 이차돈 순교비(백률사 석당기)도 금강산에서 발견되어 이전된 것이다. 따라서 금강산은 신라 불교 공인과 연관된 성지라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경주 금강산은 신라 왕경 내 관음 신앙의 성지라는 불교사적 의의가 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중생사, 백률사, 민장사 등 세 사찰의 관음보살상의 영험을 상세하게 기록했는데, 이 세 사찰 가운데 그 위치가 알려진 사찰은 금강산의 백률사가 유일하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에는 태종 12년(1412) 10월 백률사의 전단관음상을 개경사(開慶寺)로 이안했다는 기록이 있어 조선전기까지 백률사는 관음신앙의 성지로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경주 금강산에서 전래되던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과 이차돈순교비는 신라 불교미술 연구의 귀중한 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은 불국사 금동비로자나여래좌상과 금동아미타여래좌상과 더불어 통일신라 3대 금동불상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차돈 순교비는 명문의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실존 인물인 이차돈의 순교 장면을 조각하여 문화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에는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백률사 마애탑, 동천동 마애삼존불좌상, 표암 선각화 등 경주 남산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많은 불교문화재가 집중되어 있다. 특히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은 『삼국유사』에 신라 경덕왕과 관련한 기록이 전할뿐만 아니라 약사불, 십일면관음보살상 등 다양한 도상과 여러 시기의 불상 조각이 공존하여 한국 불교조각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2022. 3. 25.

조사위원 ○ ○ ○

현지조사 의견서

지정종별	사적	문화재명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 (慶州 金剛山 瓢巖峯 一圓)
수 량	1식	지정면적	425,031㎡(122필지)
재 료	-	소 유 자	국유·공유·사유
시 대	신라	소 재 지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산 7-6 번지 일원
조사내용	<p>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은 사로국 형성 혹은 신라 건국 초기부터 신라인에게 신성시되어 왔던 장소로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표암봉은 진한 혹은 사로6촌(알천 양산촌) 시조의 하강처로 전해져 왔으며 국가의 대사를 논의한 장소로도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성은 신라 이후 조선시대 이래로 계속해서 이어져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p> <p>또한 금강산에는 이차돈 순교의 기록과 함께 백률사, 백률사 석당기(박물관 이관)와 같은 신라 불교 공인과 관련한 유적·유물이 분포하여 불교의 성지로서 인식이 전해진다. 그리고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보물),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국보, 박물관 이관)과 같은 신라 통일기를 대표할 수 있는 불교문화재가 산재한다. 따라서 금강산 표암봉 일원은 신라 불교문화사에 있어서도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공간으로 볼 수 있다.</p> <p>뿐만 아니라, 탈해왕릉을 비롯해 6~7세기 왕경인의 무덤이 밀집 분포하는 동천동 고분군은 신라인의 내세관 및 매장의례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경주 분지에 분포했던 고분군이 외곽의 산지 구릉으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동천동 고분군은 신라 왕경의 공간 구조와 왕경 중심부의 개발 또는 도시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 될 수 있다.</p> <p>금강산 표암봉 일원은 신라시대 다종다양한 유적이 분포한 곳으로서 유적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유적을 포괄하는 사적 명칭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다만 금강산은 현재 ‘소금강산’으로 명칭을 쓰고 있으나</p>		

(국립공원 지정명칭) 고려시대 편찬된 『삼국유사』를 비롯해 여러 조선시대 기록 및 지도에서는 모두 ‘금강산’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금강산’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며 아울러 유적이 밀집 분포하는 ‘표암봉’ (『삼국유사』 기록 전함) 주변에 한정해서 지정하는 것이므로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이라는 사적명칭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강산은 행정구역상 보다 광범위하나, 이번 사적지정에 있어서는 신라시대 핵심 유적이 분포한 금강산 표암봉 일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해당구역은 경주 표암 유적, 탈해왕릉, 숭신전 등이 입지한 남쪽부분에서 백률사,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동천동 마애삼존불좌상 등이 입지한 북쪽부분, 그리고 기왕의 발굴조사 이뤄져 석실분 밀집지역으로 확인된 동천동 고분군 I 을 포함한 최소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금강산 표암봉 일원은 신라사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한 중요한 유적들이 집약된 장소로서 그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 해당 지역 내 분포한 여러 유적은 신라의 정치·종교·의례와 관련해 중요한 문화유산이며 신라 왕경의 공간구조와 사회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금강산 표암봉 일원은 사적으로서 지정할 만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2022. 3. 25.

조사위원 ○ ○ ○



금강산 표암봉 일원 항공(남서쪽에서)



경주 표암 항공 (기념물)



경주 표암 근경



표암 마애비



광림대(光臨臺)



광림대 내 석감(石坎)



표암 유희비각



표암 유희비



표암 비각 중수기



표암재 항공



표암 선각화 전경



표암 선각화



백률사 전경



백률사 대웅전(일제강점기)



백률사 대웅전(문화재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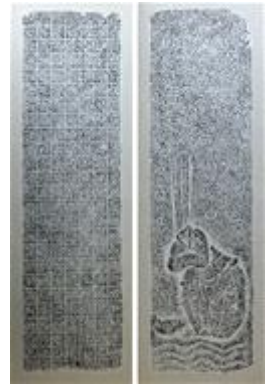
백률사 마애탑



마애석탑 실측도



이차돈 순교비(이관 전)



이차돈 순교비 및 탁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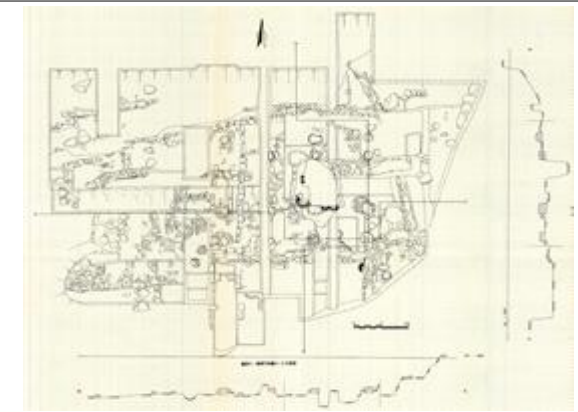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이관 전)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국보)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전경



굴불사지 유구 평면도 (경주고적발굴조사단, 1986)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동면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서면 삼존불입상



경주 동천동 마애삼존불좌상 근경



경주 동천동 마애삼존불좌상 실측도



경주 탈해왕릉 항공사진 (서쪽에서)



경주 탈해왕릉 전경



경주 동천동 354번지 유적 항공사진 (남-북)



동천동 343-4번지 유적 전경



동천동 산13-2번지 유적 17호묘



동천동 343-4번지2호 석실분 전경

2. 고성 내산리 고분군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고성 내산리 고분군」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성 내산리 고분군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가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고성 내산리 고분군(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일원
- (3) 지정 범위 : 보호구역 20필지 28,332㎡(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구분	현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신청구역		추가지정 후	
지정구역	104필지	186,135㎡	-	-	104필지	186,135㎡
보호구역	-	-	20필지	28,332㎡	20필지	28,332㎡
계	104필지	186,135㎡	20필지	28,332㎡	124필지	214,467㎡

(4) 신청사유

- 고성 내산리 고분군 주변은 국도와 맞닿아 있어 개발수요 개연성이 높은 곳으로, 개발행위 발생시 고분군의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경관 보호를 위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 신청함.

라. 참고사항

(1) 사적 추가지정 추진경과

- ‘고성 내산리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1963.1.21.)
-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2021.7.23.): 사적 보호구역 지정신청 가결
- 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제출(경상남도→문화재청 : 2021.8.13)
- 문화재청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2.1.27.)
- 사적 보호구역 지정 신청자료 보완요청(문화재청→고성군 : 2022.2.8.)

※ 보호구역 지정가치 설명 명확화 및 지정범위 확대 등 추가 검토

○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2022.3.18.) : 사적 보호구역 신청범위 조정 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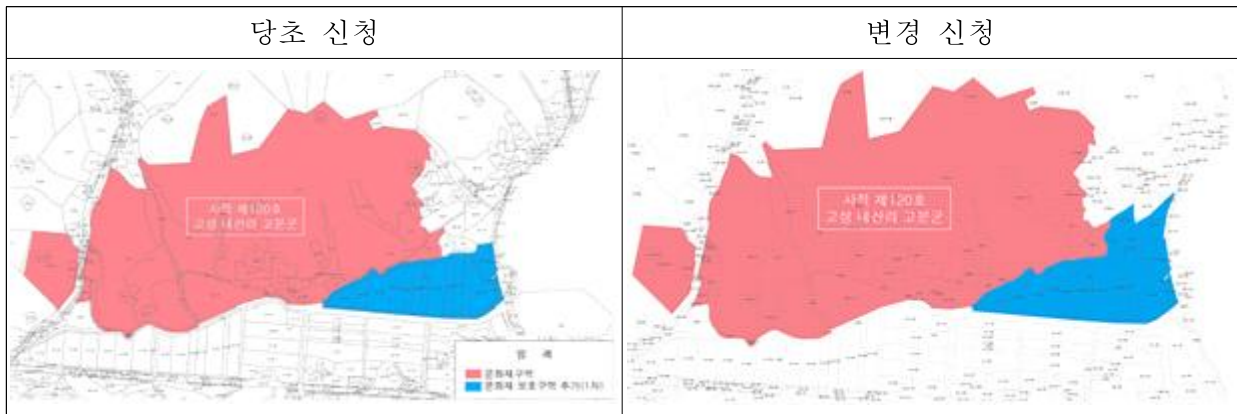
구분	당초 신청		범위 확대 조정		비고	
보호구역	14필지	23,351㎡	20필지	28,332㎡	+6필지	+4,981㎡

○ 자료보완 제출(경상남도→문화재청 : 2022.3.31..)

(2) 지정신청 범위

○ 당초 신청범위(2021.8.13.) : 보호구역 14필지, 23,351㎡

○ 신청범위 변경(2022.3.18.) : 보호구역 20필지, 28,332㎡



(3) 현지조사의견('22.01.17./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 ○○○)

① ○○○ 위원

- 고성 내산리 고분군은 고성군 동해면의 성산을 배경으로 해안을 바라보는 낮은 언덕과 평지에 모여있는 가야 무덤들이다. 이곳에는 100여기의 무덤이 있었다고 전해지나 현재 60여기만 남아 있다. 대략 6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지로 소가야의 관문을 지키는 역할을 한 세력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 따라서 내산리 고분군의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해안선이 확보되어야 하며, 도로 인접해 있는 지역까지 고분이 위치하고 있어 고분군의 보존 관리를 위해 완충지역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 금번 신청된 보호구역은 개발압력으로부터 내산리 고분군의 경관을 보존하고 완충지역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내산리 지역 소가야 유적에 대한 심화된 연구를 위해서도 지정 후 본 구역에 대한 다각적인 시발굴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관 보존을 위해 신청된 안을 수정, 확대하여 제시하는 게 내산리 고분군의 보존관리에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② ○○○ 위원

- 본 건은 고성 내산리 고분군의 동쪽에 위치한 40~60호분(나지구)와 공수바위산 사이의 적포항에 면한 14필지 23,351㎡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신청한 것임.
- 내산리 고분군은 5~6세기 남해안을 대상으로 국제교류를 통해 성장한 집단의 고총고분으로서 내만인 당항만과 적포만 사이의 해상 길목에 위치한 가야 해상세력의 존재 모습과 당시의 경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됨.
- 이와 같은 가야 해상 세력의 존재모습과 당시의 경관을 지속적으로 보존 유지하고, 향후 해상세력의 존재기반을 이해하기 위한 시설의 구멍을 위해서는 금번 신청한 14필지를 포함한 고분군의 동쪽에 위치한 田 561·540·559와 山165林·116林·166-25林 일대까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③ ○○○ 전문위원

- 현재 고성 내산리고분군은 문화재구역(지정구역)만 설정되어 있는 상태임.
- 지정구역 외 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고분군의 경관보호와 개발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려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됨.
- 그러나 고성군에서 지정하고자하는 보호구역의 명분은 타당성이 부족하고 지정면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 지정하고자하는 보호구역은 개발압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고분군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이 구역은 고분군 세력의 해상교역 장소 가능성을 명시하는 것은 성급하다. 고분조사 결과 여러 나라와 교류흔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좁은 지역이어서 항구도시(항시)로서의 입지가 불분명한 상태임.
- 그리고 고분군이 위치하는 산의 정상부로부터 우측 해안으로 접하는 부분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오히려 고분군의 경관과 과거 입지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고성군에서는 보호구역 지정의 타당성 제시와 지정면적의 확대로 고성 내산리 고분군을 개발로부터 압력을 막아 고분군의 해안입지와 경관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확대지정부분은 현 상황(사유지, 지목 등) 등을 고려하여 여러 방안(범위)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④ ○○○ 전문위원

- 고성 내산리 고분군은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소가야 세력의 역사적

실체를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고고역사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사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번 지정(보호)구역 확대에 대한 건은 심도 깊은 학술적 검토와 함께 보존·정비·활용적 측면에서의 마스터 플랜이 요구된다.

- 금번 신청된 확대지정 요청구역의 경우, 내산리 고분군과 관련된 유구 유물이 조사될 가능성이 있고 개발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바 보호구역 확대지정의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내산리 고분군의 경관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금번 기회에 現 문화재지정 및 보호구역의 동편 구역(관리지역)의 구릉 일부까지 추가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다. 추가 확대지정 동편 구릉 일부지역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기관과 자문위원 간 세부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원안가결 12명

고성 내산리 고분군(固城 內山里 古墳群) 보호구역 지정 조사 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2.1.27.(목)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사적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고성 내산리 고분군(固城 內山里 古墳群)의 연접구역을 고분군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성 내산리 고분군(固城 內山里 古墳群)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고성 내산리 고분은 대가야계·신라계·왜계 유물들이 확인되어 소가야의 실체와 대외교류 양상을 밝혀줄 수 있는 학술적·역사적 중요성이 입증됨에 따라 사적으로 지정(1963.1.21. / 186,135㎡)되어 관리되고 있다.
- 행정구역 상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산 170번지 일원으로, 진해만과 당항포 사이에 돌출된 노인산과 장군산에서 연결되는 성산의 남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당초 100여기의 고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28기의 고분만 확인되고 있음. 9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16기의 봉토분이 조사되었으며, 현재는 봉토 부분만 정비되어 유지·관리되고 있다.
- 맞은편으로는 양촌리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 고성 내산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는 이 일대가 오래전부터 도굴로 인하여 유적이 심하게 훼손됨에 따라 유적 파괴를 막기 위해 시작되었다.
- 1997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처음으로 정식 학술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지금까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와 강산문화연구원·가야문물연구원에 의해 9차례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 발굴조사에서는 다곽식 구조를 갖춘 석곽묘와 횡혈식 석실묘 등을 매장 시설로 석곽묘에서 석실묘로 장제가 변화하는 과정을 잘 보여 주고 있으며, 많은 고고학적 자료가 출토되어 사람들과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1) 가야권역 유일한 ‘분구묘’의 축조방식을 보임

2) 다곽식 묘제로 수혈식석곽에서 횡혈식 석실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임

3) 백제 지역과 대가야, 아라가야, 신라 지역과 관련한 다양한 토기 그리고 왜래계 유물이 많이 출토되어 점으로 보아 인적·물적 교류를 수행하며 생활하던 소가야인들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유적임

- 고성 내산리고분은 사적 제120호로 지정(104필지 186,135m²)되어 있는 삼국시대 소가야의 군집 묘이다. 진해만의 적포만을 끼고 있는데, 城山의 남사면 ‘고래실’로 불리는 얇은 구릉에 밀집 분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9차례의 발굴조사에서 16기의 봉토분이 조사되었는데, 정지 후 봉토를 쌓고 다시 봉토를 굴착하여 석곽을 시설하는 소가야의 전형적인 다곽식 묘가 확인되었다. 구역의 서쪽에는 수혈식이, 동쪽으로 가면서 횡혈식이 조성되어 있다. 소가야 양식의 토기를 비롯하여 대가야계, 신라계, 왜계(일본계)유물도 함께 출토되어 해상교역을 주로 하던 집단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 고성 내산리 고분군 기존 조사 및 연구

1) 일제강점기 조사¹⁾

- 고성지역에 대한 고적조사는 1914년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도리이 류조는 조선총독부의 촉탁으로 1913년 12월에 조선으로 건너와서, 1914년 1월 12일부터 동년 3월 31일까지 ‘제3차 사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사진촬영 담당으로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사와 준이치(澤俊一)를 대동하였다.
- 일제강점기 조사 당시 고성군의 유적조사는 송학동고분군, 철성패총, 동외동 패총이 조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재 내산리 고분군과 관련된 자료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 일제강점기 고성지역 조사 연표 >

조사연도	유적	유구(지역)	조사유형	조사자	비고
1914.2.	고성 송학동고분군	현 1호분(1A-1호)	발굴조사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
1914.2.	철성패총	-	현황조사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사와 준이치(澤俊一)	-
1917.12	고성 동외동패총	위치 미상	발굴조사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사와 준이치(澤俊一)	-
1917	철성패총	위치미상	발굴조사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사와 준이치(澤俊一)	-

2) 지표조사

- 1984년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가야문화권 정밀지표조사가 이루어고, 2004년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고성군 문화유적 정밀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

(1) 가야문화권(고성)유적정밀조사(동아대학교박물관, 1984)²⁾

- 비교적 대형분에 속하는 고분군 20여기가 성산의 남쪽 기슭에 분포하고 있다. 대부분 과거 일본인에 의해 도굴되었으나 봉토의 흔적이 뚜렷하며, 주위에서 수집된 土器片의 특징은 가야지역의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동일하며, 인접한 양촌리 고분군과는 그 축조시기나 특징이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며 분포지역

1)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8, 『가야 일제강점기 자료편』 가야자료총서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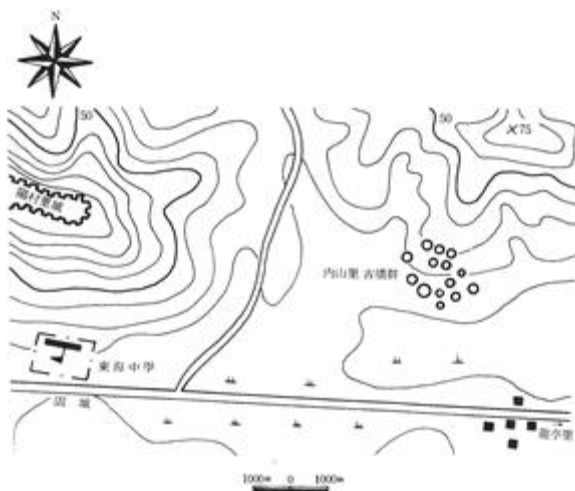
2) 동아대학교 박물관, 1984, 『가야문화권(고성) 유적 정밀조사 보고서』

도 과거에는 함께 연속되어 있었다고 추정되었다.

- 田畝 개간 전에는 100여기가 넘는 고분들이 분포하고 있었으나 도굴되어 봉분이 낮아지면 그 위를 다시 田畝으로 개간하여 오늘날과 같은 현상으로 바뀌어 버렸다고 한다.
- 양촌리 고분군과 마찬가지로 분묘가 위치하는 곳이 성산 구릉의 평지와 같이 완만한 경사를 갖는 곳이며 봉토도 직경 15~20cm에 가까운 대형분이라는 것과 남해안의 좁은 평야지대에 큰 고분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수혈식 석곽분에 해당하는 것이 많다고 추정하였다.



< 가야문화권(고성)유적정밀조사보고서 - 고성군문화유적분포도 >



< 가야문화권(고성)유적정밀조사보고서-고성 내산리 고분군 >

(2) 고성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4)¹⁾

- 소가야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알려진 송학동고분군이나 연당리 고분군은 소가야의 실체를 파악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들을 제시해 주었지만, 고성군 역사 전체를 한눈에 파악 수 있는 기초자료 확보가 미비하며, 다른 가야문화권에 비해 전하는 문헌기록이나 조사된 유적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다. 향후 국토개발사업으로부터 문화재보호를 위한 기초자료 및 유적보존정비자료로 활용하고 가야문화권 학술조사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하는 목적으로 3차에 걸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기 조사된 유적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통하여 현재의 보존상태 및 관리현황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내산리 고분군은 소가야 중·후기 단계의 유적이다. 내산리 고분군은 일부 권역에 대하여 1963년 사적 제120호로 지정된 이후 관리가 이루어져 오다가 2003년 5월에 고분군 전체에 대하여 추가로 사적 범위가 확대지정 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 2004년 당시 기존의 6차례 발굴조사 결과 65기의 중·소형 봉분을 갖춘 고분군의 현황이 파악되었다. 유구는 주로 봉토 중앙에 중·대형의 횡혈식석실, 또는 수혈식석곽을 배치하고 그 주변으로 수혈식석곽이 자리하는 다곽식 분묘방식으로서 고성지역의 특색 있는 매장습속을 반영하고 있다.
- 출토유물로는 개배, 장경호, 유공광구소호, 수평구연호, 대도, 철부, 청동제방울 등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영락부유대장경호와 유공광구소호 등 출토유물로 미루어 신라 및 백제와 교류했음을 알 수 있어, 당시 내산리 고분군의 주체집단이 고성지방에 존재했던 유력한 가야세력의 한 계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출토유물과 유구의 형식으로 미루어 대체적으로 내산리 고분군의 축조 하한시기는 소가야의 멸망시기와 연관되는 6세기 중엽으로 추정되고 있다.

3) 발굴조사

- 고성 내산리 고분군은 1997년도 1차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까지 총 9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발굴조사된 봉토분은 제8·63·34·1·62·21·28·60·64·65 ·36·37·40·44·46·47호분으로, 총 16봉토분이 조사 완료되었다.
- 1997~2005년까지 1~7차에 걸쳐 소가야의 실제규명과 유적복원 정비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당시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 1999년도의 제3차년도에서는 고분군의 동북편에 입지한 대형봉토분인 34호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고분의 구조 및 출토유물 등에 대하여 정밀학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총 12기와 주변의 소형 석곽묘들을 조사하였다. 고총은 대부분 다곽식구조인데, 매장주체부는 목곽묘 1기·옹관묘 3기·수혈식석곽

1)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고성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묘 56기 · 횡혈식석실분 4기이다. 고분의 축조시기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해당한다. 출토유물 및 지리적 입지로 보아 축조 세력은 남해안을 통해 신라 · 왜 등 대외교역을 담당한 집단의 무덤으로 밝혀졌다.

- 2019년도의 8차 발굴조사는 소가야사의 복원과 고분의 복원정비 방향을 확정하기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강산문화연구원에 의해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은 제40호분 · 제44호분 · 46호분 고총이다. 조사결과 고총 3기 모두 횡혈식석실분으로 확인되었다.
- 2020년도의 9차 발굴조사는 소가야사의 복원과 고분의 복원정비 방향을 확정하기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가야문화연구원에 의해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제47호분 고총과 주변 일원에 대한 시굴조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47호분은 횡혈식석실분으로 확인되었고, 시굴조사에서도 수혈식 석곽묘가 신규로 확인된 성과를 보였다.
- 고성 내산리 고분군 발굴조사 연혁

구분	내 용
1963년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 사적 제120호(1963.01.21.)
1997년도	• 1차 발굴조사 : 고분 분포도 작성, 제5·8호분 주변에서 매장유구 3기 확인
1998년도	• 2차 발굴조사 : 제8호분, 제63호분 발굴조사
1999년도	• 3차 발굴조사 : 제34호분 발굴조사
2000년도	• 4차 발굴조사 : 제1호분, 제62호분 발굴조사
2001년도	• 5차 발굴조사 : 제21호분, 제28호분 발굴조사
2003년도	• 6차 발굴조사 : 제60호분, 제64호분, 제65호분 발굴조사
2005년도	• 7차 발굴조사 : 제36호분, 제37호분 발굴조사 • 내산리고분군 종합정비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실시
2019년도	• 8차 발굴조사 : 제40호분, 제44호분, 제46호분 발굴조사
2020년도	• 9차 발굴조사 : 제47호분 발굴조사

(1) 1차 발굴조사(1997년도 조사)¹⁾

- 조사기관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 조사기간 : 1997년 11월 17일 ~ 1997년 12월 20일
- 개요
 - 1997년의 제1차년도에는 고분군의 분포범위와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현상조사와 구릉지 일부에 대한 탐색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분 60여기가 성산의 남쪽 기슭에 크게 3구획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구역은 32기의 고분이 밀집해 있으며, 2구역은 1구역의 동편으로 약 100m 정도 떨어져 10여기가 분포하고 있다. 3구역은 2구역과는 약 140m의 거리를 두고 20여기가 산재되어 남아있다.

1)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2, 『固城內山里古墳群 I』

- ‘가’지구(1區:1號墳~32號墳) - 북에서 남으로 완만하게 뺨어 내리는 낮은 구릉에 비교적 넓게 분포하는데, 대개는 봉분사이에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완만한 구릉 정상부를 따라 대형분이 위치하며, 그 주변에 중소형분이 분포한다. 이 지역은 낮고 완만한 구릉인 관계로 논과 밭으로 많이 개간되어 있으며, 또한 많은 민묘가 조성되어 있어 유구의 파괴 및 유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1구역은 32기의 고분이 밀집하여 있으며 해발 10m에서부터 25m까지 낮은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더 많은 고분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논, 밭으로 개간되면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상태이다. 전체형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삼각형의 형태를 취하면서 분포하고 있다.
- ‘나’지구 (2·3구역:33號墳~61號墳) - 동서로 뺨은 해발 75m 야산의 남쪽 산록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아래의 논지역과 분리된다. 봉분은 동쪽부분에 밀집 분포하고 있으나 서쪽부분에도 일부 무리를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은 남쪽 산록이기에 많은 지역이 밭으로 개간되었고, 또 민묘의 묘역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지역의 봉분은 대형분(직경 15~20m)과 중형분(직경 10~15m)으로 양분되고 있으며, 소나무들이 밀생하고 있어 더 많은 봉토분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2구역은 1구역의 동편에서 약 100m정도 떨어져 10여기가 분포하고 있는데 해발 10m에서부터 20m까지 둥글게 모여 있으나 논, 밭의 개간으로 인해 많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도 밭에는 봉분이 없지만 삭평된 지역에는 유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구역은 동편 바다쪽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2區와는 약 140m의 거리를 두고 20여기가 산재되어 있다. 해발 7m에서부터 25m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개간 등으로 인해 반만 남아 있는 古墳들도 보이고 있어 더 많은 고분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고성 내산리 고분군 전경 1(1997년)

(2) 2차 발굴조사(1998년도 조사)¹⁾

- 조사기관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 조사기간 : 1998년 05월 18일 ~ 1997년 07월 31일
- 개요
 - 고분군의 서편에 위치한 대형봉토분 중의 하나인 8호분과 63호분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8호분은 주곽 외에 소형석곽 6기와 옹관 2기가 확인되었다. 63호분은 소형석곽 9기와 옹관 1기가 확인되었다. 또한, 제5·8호분 주변에서 매장유구 3기가 확인되었다.
 - 8호분 가까이에서 노출된 주구가 소형석곽들을 감싸듯이 돌아가는 형태이다.
 - 내산리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는 이 지역의 대외교류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태가 양호한 자료들이 다수 확인된다. 8호분 주곽에서 출토된 영락 대부장경호는 신라와의 밀접한 교류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8호분 3곽에서 출토된 유공광구소호는 영산강유역에서 출토된 토기 유형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
- 8호분
 - ‘가’ 지구에서 1호분이 입지하는 해발 25m 높이를 정점으로 형성된 낮은 구릉의 남쪽에 17~18m 높이의 구릉상에 위치한다. 봉분은 지형이 북에서 남으로 완만하게 뺨어 내리는 낮은 구릉에 비교적 넓게 분포하는데, 각 봉분은 서로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완만한 구릉 정상부를 따라 대형분이 위치하고 그 주변에 중·소형분이 분포한다. 8號墳은 5-6-7,9號墳과 봉토가 멸실된 63號墳으로 둘러싸인 모습인데 모두 직경 15m 이상의 대형분들이다. 봉토에서는 주곽 외에 6기의 소형석곽과 2기의 옹관이 확인되었다.
 - 주곽은 봉토의 중앙부분에 거의 남북으로 축조되어 있었으며, 주곽과 나란하게, 혹은 에워싸듯이 남, 서쪽에 주로 축조되어 있다. 8호분에는 주곽을 비롯하여 총 10기의 유구가 함께 조영되어 있다.
 - 우선 조영할 지역을 선택하여 구지표를 걷어내고 일부 적갈색 점질토의 생토층까지 깎아내었다. 이 역시 자연지형을 따라 남쪽과 동쪽지역이 일부 낮게 정리를 하였다. 이 층위에 어떤 의례적 의미가 있는 흑갈색 점질토를 약10~15cm두께로 깔아 정지작업을 하였다. 이 흑갈색 점질토의 정지층도 층위가 남동방향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흑갈색 점질토 층위에 노란 암반편이 혼입된 적갈색 층을 다시 덮어 봉토를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봉토를 조성한 후 주곽을 흑갈색 점질토층까지 다시 파고 조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단면 조사에서 괴상의 회미한 경계선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구릉의 높은 곳으로 이어지는 북쪽과 동쪽 끝부분에서는 구로 보이는 형태가 일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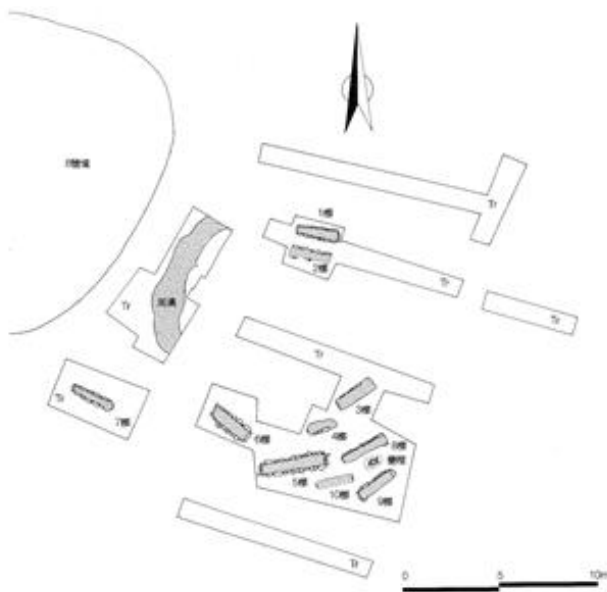
1)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2, 『固城内山里古墳群 I』



고성 내산리 고분군 8호분 전경

▪ 63호분

- 63호분은 8호분의 동남편 밭에 대한 탐색조사에서 다수의 석곽이 원형을 이루 듯이 배치된 것이 확인되었다. 8호분 가까이에서 원형의 구가 일부 확인되고 그 내부에서 다수의 토기편이 수습되어 봉토가 결실된 것으로 판단되어 63호분으로 명명하였다.
- 1997년도에 조사된 1호 석곽이 주구의 반원상 내에서 수습된 바 있다. 1998년도 조사에서 9기의 석곽과 1기의 옹관이 확인되었고, 주구 밖의 범위에서 1기의 소형석곽이 확인되었다.
- 8호분 가까이에서 확인된 주구는 조사에서 노출된 소형석곽들을 감싸듯이 돌아가는데, 구는 중심내부에서 段狀을 보이거나 외부는 경사지게 처리되어 있다. 구 내에서는 개, 고배, 향아리편과 약간의 철기가 수습되었다. 노출 확인된 구의 너비는 약 1.5m, 길이는 약 7m 정도이다. 확인된 구와 석곽들에 의해 봉토의 크기를 추정하여 보면 최소 15m 이상의 직경으로 여겨진다.



고성 내산리 고분군 63호분 유구배치도

(3) 3차 발굴조사(1999년도 조사)¹⁾

- 조사기관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조사기간 : 1999년 03월 22일 ~ 1999년 06월 11일
- 개요
 - 34호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횡혈식석실인 주곽 외에 소형석곽 5기를 확인하였고, 주곽을 에워싸듯이 소형석곽이 축조되어 있었다. 조사는 고분군 내 북동쪽에 위치한 ‘가’ 지구 내의 2구역에 존재하는 34호분 및 주변 경작지에 대한 매장유구 존재 파악에 초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 2구역 배치도 >

< 34호분 현황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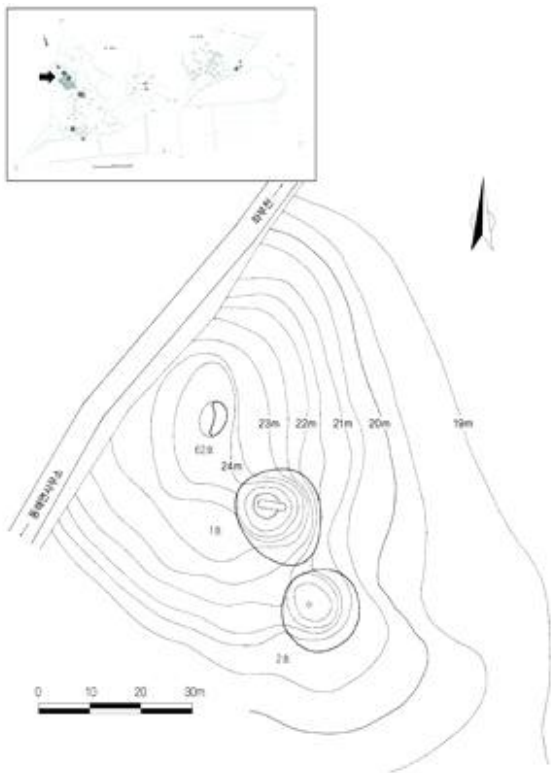
- 34호분
 - 34호분은 내산리에서 외산리로 넘어가는 도로 오른편 구릉에 위치하는 ‘가’ 지구 1구역에서 동편으로 약 100m 정도 떨어진 구릉사면(2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2구역은 해발 9m~20m 이내 구릉사면으로 대략 10여기의 봉토분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논·밭의 개간과 가옥의 건축으로 많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봉분은 없으나 평탄한 지역에는 지하매장유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34호분은 2구역의 5기 봉토분 중 제일 큰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입지적으로도 가장 높은 해발 19~20m 지점에 위치한다. 고분의 서쪽에는 가옥이 한 채 있고 남쪽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남아 있는 봉분의 직경은 동-서 약 16m, 남-북이 약 16m 정도이며, 봉토는 정상부가 볼록한 반구상의 원형 봉토분으로 그 위에 대나무, 소나무를 비롯한 잡목 등이 자라고 있다. 봉분의 동쪽 부분과 남쪽 자락의 밭 개간으로 인해 일부 절토된 상태를 고려한다면 원래 封墳은 직경 약 20m 정도로 추정된다.
 - 34호분은 횡혈식석실인 주구 외에 5기의 소형석곽이 확인되었다. 주곽은 봉토의 중앙부분에 거의 동-서향으로 축조되어 있었으며, 주구의 연도부 쪽인 동쪽과 남쪽을 제외한 북쪽과 서쪽에는 주곽을 에워싸듯이 소형석곽이 축조되어 있었다. 34호분에는 주곽을 비롯하여 총 6기의 유구가 함께 조영되어 있다는

1)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2, 『固城内山里古墳群Ⅱ』

것을 확인하였으나, 봉토의 유실과 도굴 등으로 인해 그 축조 과정을 정확히 밝힐 수 없었다.

(4) 4차 발굴조사(2000년도 조사)¹⁾

- 조사기관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조사기간 : 2000년 10월 06일 ~ 2000년 12월 05일
- 개요
 - 1호분과 62호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1호분은 주곽과 그 주변으로 석곽 5기가 확인되었다. 봉분의 주위에는 주구가 확인되는데 배수를 위한 용도가 아닌 몇 차례 추가장이 있을 때 제사유구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62호분은 경작과 도굴 등으로 훼손되어 유실된 상태이며 소형석곽 2기만 잔존한다. 봉토의 북편과 서남쪽으로 주구가 돌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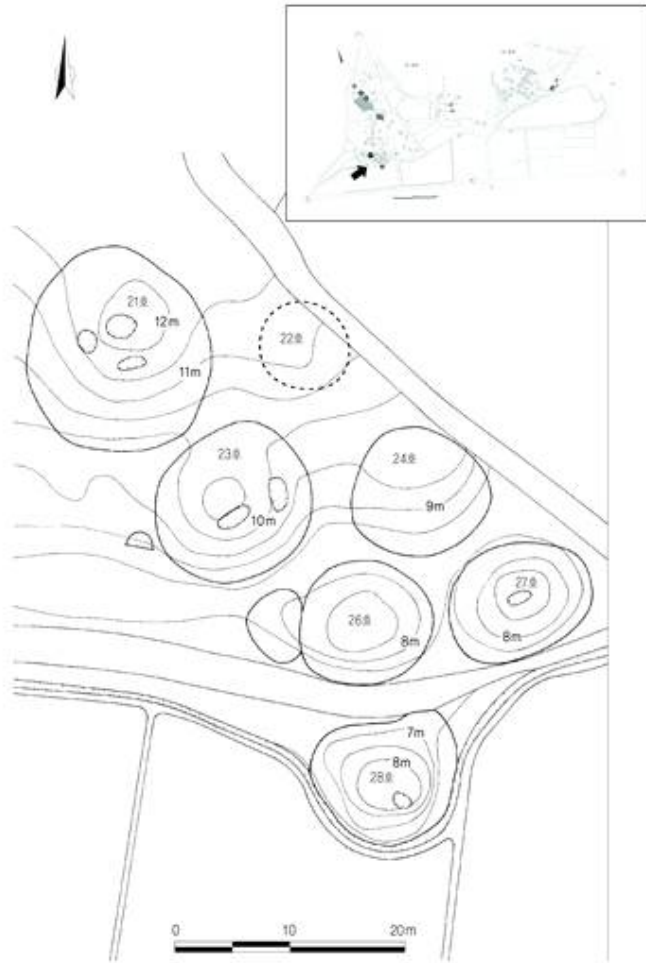
고성 내산리 고분군 4차 발굴조사 현황도

(5) 5차 발굴조사(2001년도 조사)²⁾

- 조사기관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조사기간 : 2001년 03월 22일 ~ 1999년 06월 11일
- 개요
 - 21호분과 28호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21호분은 3m가 넘는 대형수혈식석곽묘 1기와 중소형석곽이 12기, 옹관묘 1기, 목곽묘 1기가 축조되어있다.

1)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2, 『固城内山里古墳群Ⅱ』

2)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2, 『固城内山里古墳群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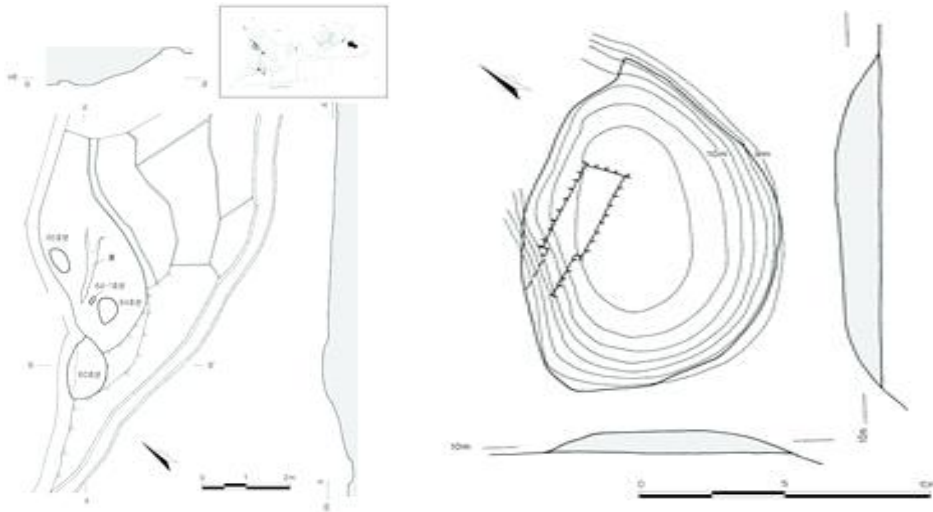
고성 내산리고분군 - 5차 발굴조사 현황도

(6) 6차 발굴조사(2003년도 조사)¹⁾

- 조사기관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조사기간 : 2003년 04월 02일 ~ 2003년 05월 27일
- 개요
 - 60호분과 64호분, 65호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60호분은 봉토 중앙에 1기의 횡혈식석실이 확인되었다. 64호분은 주변이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어 봉분이 거의 파괴된 상태이며, 1기의 횡혈식석실이 확인되었다. 65호분 역시 봉토의 절반 이상이 멸실되었으며, 석실의 절반 정도가 결실되어 정확한 구조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 첫째, 분구묘의 축조 방식이 확인되고 있다. 흑갈색점질토를 일정한 두께로 깔아 다짐한 형태를 보이는 것은 소가야의 특징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整地 또는 辟邪의 의미이거나, 분리된 사후세계의 구분선으로 추정된다. 이는 울대리고분 2호분, 송학동고분 1호분, 내산리 8호분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또한, 봉토의 중앙에 주곽이 존재하고 그 주위에 다수의 소형 수혈식석곽을 배치하는 방식이 내산리고분군에 공존하고 있다.

1)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2, 『固城内山里古墳群Ⅱ』

- 둘째, 평면 장방형의 양수식 횡혈식석실분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백제와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 셋째, 토기의 부장양상은 고배, 수평구연호, 개배, 대부호 등이 중심을 이루어 서부경남의 가야후기 토기의 변화양상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백제 지역과 대가야, 신라지역과 관련한 토기들이 증가함으로 인해 이들 지역과 다양한 교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유물이 매납에 있어 개배가 4조씩 일률적으로 매납되는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재지계 토기의 매납과 더불어 이 집단의 전통성으로 볼 수 있다.
- 넷째, 고분의 입지에서 수혈식석곽을 주곽으로 한 다곽식유구로 최고 해발이 25m인 작은 구릉 정상을 포함하는 고분군 내 ‘가’지역 전면에 분포하며, 횡구식석실분은 해발 75m의 남쪽 구릉으로 바다와 연하는 곳까지의 동쪽 ‘나’지역 하단 사면에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다섯째, 내산리고분군의 축조시기는 대체로 6세기 전반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송학동 고분군이 당시 이 지역 정치체의 중심지로서 그 최고지배자의 분묘였던 것에 반하여, 내산리지역은 해안 교통을 배경으로 활약하면서 그 주변 부심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던 집단의 분묘라고 볼 수 있다.
- 2003년도 발굴조사는 내산리 고분군 중 가장 東端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 일대는 2003년 5월 1일자로 사적구역이 확대지정된 곳이다. 발굴조사는 현재 타조농장의 남쪽에 위치한 3기의 파괴분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고분 중 60호분은 3기 중 규모가 가장 크다.
- 고분의 南편은 급경사 단애면이며, 북편으로는 타조농장과의 사이에 소로가 조성되어 있어 이미 봉분의 상당부분이 유실된 상태였으며, 조사전에도 이미 봉토 상면에 석재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었다. 64호분과 65호분 역시 봉분의 대부분이 경작 등으로 인하여 유실되었고, 주 변에 존재했을 유구들 역시 이미 파괴된 상태임이 짐작되어졌다. 조사 결과 횡혈식석실 3기와 소형석곽묘 1기가 확인되었다. 또한 고분군의 동편 평탄면에는 최근에 배수를 위한 石列이 동서방향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으며, 64호분과 65호분 사이에는 동서방향으로 조성된 溝가 확인되었다.



6차 발굴조사 현황도 고성 내산리 고분군 60호 유구배치도

(7) 7차 발굴조사(2005년도 조사)¹⁾

- 조사기관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조사기간 : 2005년 10월 05일 ~ 12월 28일
- 개요
 - ‘나’지구 2구의 동쪽 끝에 위치한 제36호분과 37호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36호분은 주곽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4기의 매장곽이 배치된 다곽식 유구이다. 조사결과는 네 가지로 나뉜다.
 - 첫째는 내산리고분군이 분구묘의 축조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봉분이 축조된 범위에만 흑갈색점질토를 깔아 다짐층을 만들었는데, 이는 분묘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짐층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평탄화시키는 의미 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상부에 봉토를 조성한 후 다시 그 봉토를 파고 유구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 둘째는 다곽식 묘제이다. 수혈식석곽을 주곽으로 하여 최대 15기의 매장시설이 하나의 봉토에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1호분(5기), 제8호분(9기), 제21호분(15기), 제28호분(2기), 제36호분(5기)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다곽식의 묘제는 추가장 형식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혈연공동체적인 강한 유대 속에서 만들어 졌을 것이며, 이러한 가족 중심의 다곽식 묘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강력한 세력과 영속성을 가진 집단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셋째는 출토유물의 다양성이다. 소가야의 특색이 있는 고배, 수평구연장경호, 대부호 등의 토기류와 신라의 영향력이 짐작되는 영락대부장경호, 단각고배 등과 백제와 영산강유역 세력의 영향력이 있는 개배류, 유공광구소호 등과 왜와의 연관성이 있는 철제등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색깔의 유리구슬들이 출토되었다. 이는 고성 지역의 한 특징으로 여겨진다. 또한, 고배나 개배가 일률적으로 4조씩 매납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1)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2, 『固城内山里古墳群Ⅲ』

- 넷째, 6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동 고분군의 중심연대가 6세기 전반 경으로 한정되고 있다.
- 제36호와 37호는 암반층을 굴착한 뒤 흙을 다져 올려 주곽 등 다수의 석곽을 축조한 분구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출토유물은 개배, 수평구연호, 철촉, 철부, 금동이식, 관옥, 구슬 등이 출토되어 고성 내산리 고분군 기존 출토유물의 범위에 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현재 고성 내산리 고분군은 고성군에 의해 복원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민가와 민묘 등의 철거와 이장이 끝난 후 정비작업이 이루어지면 동 고분군의 전체적인 모습이 드러나 소가야 역사의 한 단면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문화유적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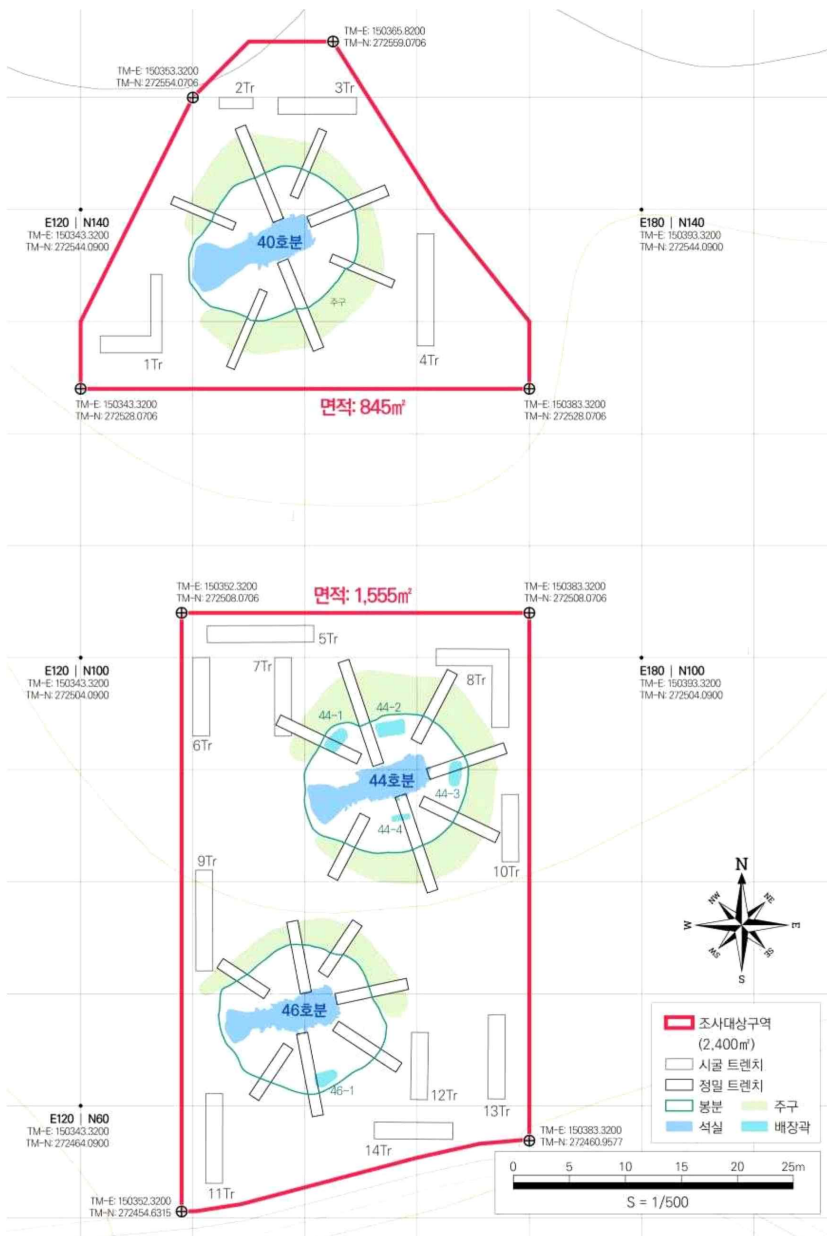
(8) 8차 발굴조사(2019년도 조사)¹⁾

- 조사기관 : 강산문화재연구원
- 조사기간 : 2019년 07월 10일 ~ 2019년 12월 20일
- 개요
 - 고성군에서는 소가야사의 복원과 고분의 복원정비 방향을 확정하기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복원정비가 필요한 고성 내산리 고분군 중 40·44·46호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40·44·46호분은 노인산의 남쪽으로 뻗어내린 단독 구릉의 남쪽 사면 말단부에 입지하며, 경사면을 따라 상부에 40호분, 중앙부에 44호분, 말단부에 46호분이 위치하고 있다. 3기 모두 후대에 도굴 및 삭평된 상태이며, 서쪽으로 묘도부와 연도부를 둔 반지하식 구조의 횡혈식석실묘로 묘도부의 평면형태는 ‘八’자 형이고 추가장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분의 외곽으로는 주구가 둘러져 있다.
 - 40호분은 직경 약 13m, 잔존높이 약 2.1m이다. 묘도 및 연도부는 도굴로 인한 훼손이 심해 정확한 양상을 알 수 없다. 현실은 도굴로 인해 상부가 함몰되면서 개석도 같이 함몰된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벽석은 가로놓혀쌓기와 세로놓혀쌓기를 혼용하여 벽석의 하중이 분산되게 조정하였고, 동단벽의 양모서리를 치석하여 말각처리 하였는데 이는 내산리고분군 석실묘의 특징 중 하나로 추정된다. 시상은 소형 석재를 편평하게 전면에 설치한 후, 자갈과 점성이 강한 암갈색 니혼입사질토를 혼합하여 현실 전면에 시상하였다. 유물은 개, 배, 파배, 경식, 금동제 이식편, 꺾쇠, 관정 등이 출토되었다.
 - 44호분은 직경 약 12m, 잔존높이 약 2.6m이다. 연도의 벽석은 가로놓혀쌓기와 세로놓혀쌓기를 혼용하여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제형의 형태로 축조하였고, 바닥에는 잔자갈을 전면에 깔았다. 특히, 연문주의 양쪽에 덧대어 이암계 석재를 가로놓혀쌓기하여 날개형태로 축조한 문시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내산리고분군 뿐 아니라 소가야 고분군 중에서도 확인된 사례가 없는 독특

1) 강산문화연구원, 2019, 『고성 내산리고분군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40·44·46호분)매장문화재 발굴(정밀)조사 결과보고서』

한 구조이다. 현실의 벽석은 40호분의 양상과 동일하며, 시상은 자갈과 점성이 강한 니혼입사질토를 혼합하여 깔았다. 유물은 단경호, 고배, 개, 방추차, 청동 방울, 소도자, 철촉, 꺾쇠, 관정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석실 주변으로 4기의 배장곽이 확인되었는데, 수평구연호, 유공광구소호, 개배, 장경호, 파배 등이 출토되었다.

- 46호분은 직경 약 11.5m, 잔존높이 약 2m이다. 묘도부 및 연도부, 현실의 벽석 축조상태 등 전반적인 구조는 40·44호분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시상은 40호분의 양상과 동일하다. 유물은 부가구연대부장경호, 유개대부직구호, 고배, 개, 방추차, 청동말방울, 소도자, 철촉, 꺾쇠, 관정 등이 출토되었다. 석실의 남쪽에 배장곽 1기가 확인되는데, 유물은 연질소호, 개, 배, 유공광구소호, 대부장경호, 고배 등이 출토되었다.



내산리 고분군 40·44·46호분 유구 및 트렌치 배치도

(9) 9차 발굴조사(2020년도 조사)¹⁾

- 조사기관 : 가야문화연구원
- 조사기간 : 2020년 05월 19일 ~ 2020년 10월 23일
- 개요
 - 고성군은 소가야사의 복원과 고성 내산리고분군의 ‘나’지구에 대한 고분 복원 정비를 계획한 후 40·44·46호분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하였고, 추가적인 복원정비계획을 위하여 41·42·43·45호분의 시굴조사와 47호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시굴조사에서는 41·42·43·45호분의 매장주체부, 주구 등과 함께 봉분의 범위 및 훼손 정도를 모두 파악하였고, 수혈 1기와 추정 석곽묘 1기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 47호분은 해발 17m 내외에 입지하며 기초사된 44, 46호분의 우측편에 인접하여 위치한다. 규모는 직경 최대 약 15m, 잔존높이 약 1.7m이다. 선행 조사된 내산리 고분군의 소가야 황혈식석실묘와 동일한 구조의 축조 및 조성 양상을 보인다. 후대 도굴 및 삭평으로 인해 봉분의 상부는 상당부분 유실되어 석실 벽석 및 함몰된 개석 일부가 노출된 상태였다.
 - 묘도 및 연도부는 석실의 서쪽에서 ‘八’자상으로 벌어지며 북편에는 석재로 봉토와 구분하여 경계를 두어 구축하였다. 단면조사에서 추가장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연도부 안쪽 방향으로 방형의 대형 판석 1매를 이용하여 연도 벽석에 붙여 폐쇄하였으며 별도의 연도부 문주석은 없다. 연도부 벽석은 길고 편평한 이암계 석재를 가로놓혀쌓기와 세로놓혀쌓기를 혼용하여 축조하였다. 연도부 문지방석 부근에서 단경호, 유공광구호, 대부직구호가 출토되었다.
 - 석실의 벽석은 가로놓혀쌓기와 세로놓혀쌓기를 혼용하여 벽석의 하중이 분산되게 조성하였다. 동단벽의 양모서리는 5단 적석부터 치석하여 말갈처리된 ‘ㄱ’자형 석재를 이용하여 모줄임 방식의 축조를 한 것이 특징이다. 유물은 파수부배, 장경호, 개배, 평저소호, 수평구연장경호 등이 출토되었다. 주구는 47호분의 외곽에서 ‘∩’자 형태로 확인되었다.



- 내산리고분군 47호분 내부 노출 완료 후 전경
- 내산리고분군 47호분 매장주체부 내부 노출 완료 상태 세부 전경

1) 가야문화연구원, 2020, 『고성 내산리고분군 ‘나’지구 시굴조사 및 47호분 시·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1) 사적지 보호 및 홍보를 위한 공간 부재

고성 내산리 고분군은 문화재구역이 50필지, 186,135㎡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은 없는 상태입니다. 소가야는 가야권역에서 유일한 ‘분구묘’ 형태의 다곽식 묘제를 보이는 등 그 중요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현장을 직접 찾는 방문객이 많은 유적이지만 넓은 필지의 문화재구역만 지정되어 있을 뿐, **사적지의 관리 및 홍보를 위한 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문화재구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도로와 떨어져 있어 문화재 구역으로의 진입이 농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문화재 구역이 어디까지인지 쉽게 인지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분군의 가치와 출토유물 등 문화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문화재 안내판만이 설치되어 있는 등 사적지 홍보를 위한 시설 설치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적지를 관리하고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지정구역 인근에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사적지 보호와 가치 홍보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p>고성 내산리 고분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p>	<p>농로를 통해 진입해야 볼 수 있는 안내판</p>
	
<p>사적지 내 유일한 안내판</p>	<p>사적지 내 유일한 쉼터공간</p>

(2) 사적 경관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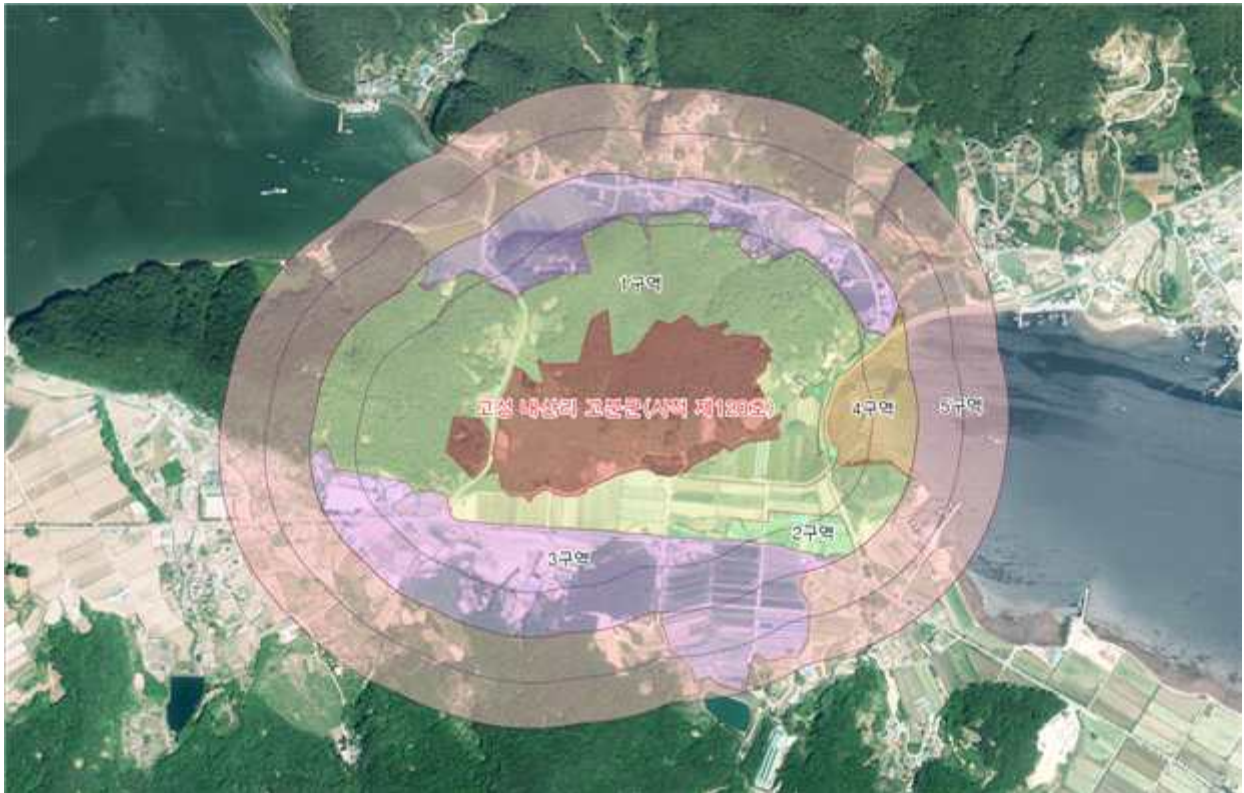
현재 고시된 고성 내산리 고분군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문화재 지정구역 경계는 1구역과 접해있으며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신청한 구간도 1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산리 고분군과 인접한 곳에 당항만 관광단지과 조선특구로 인해 문화재 주변에 상업시설 등이 향후에 들어설 위험이 있는 곳이며, 특히 고성 내산리 고분군으로 들어오는 주진입로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도 농로를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어 사적지 진입 자체가 불편한 상황이다. 따라서 문화재 구역 경관을 보호하고자한다.

고성군은 문화재청과 함께 내산리고분군 종합정비계획을 진행중이다. 사적지의 경관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지정신청 보호구역은 현재 사유지로 시설하우스와 국도변 부지는 상업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상업시설이 들어올 경우 유적 주변 환경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역사·문화적 가치가 상실됩니다. 그러므로 사적지와 인접한 도로변에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고 사적지의 조망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토지 매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구역이 1구역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침해도 상당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현상변경의 허용기준의 변경을 통한 사유재산권리보장의 방법도 있겠으나 이는 위와 같은 경관 저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황



시설하우스·축사·전원주택 등에 둘러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 대상구역

(3) 주변 개발 압력

고성 내산리 고분군 주변은 고성 최대의 관광지 고성 공룡세계엑스포와 당항포관광지와 인접하며 관광지로 향하는 길목으로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즐기기 위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또한, 서부경남KTX 남부내륙선(2022년 착공예정) 개통 고성군 동해면이 도심과 가까워지고 남해안을 바로 보는 주변 조망이 좋아 전원주택을 세우거나 농사를 짓는 등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통행량이 증가되면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1010번 지방도 도로 확장 공사 논의 등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문화재 보호와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높아지는 개발 압력으로부터 내산리 고분군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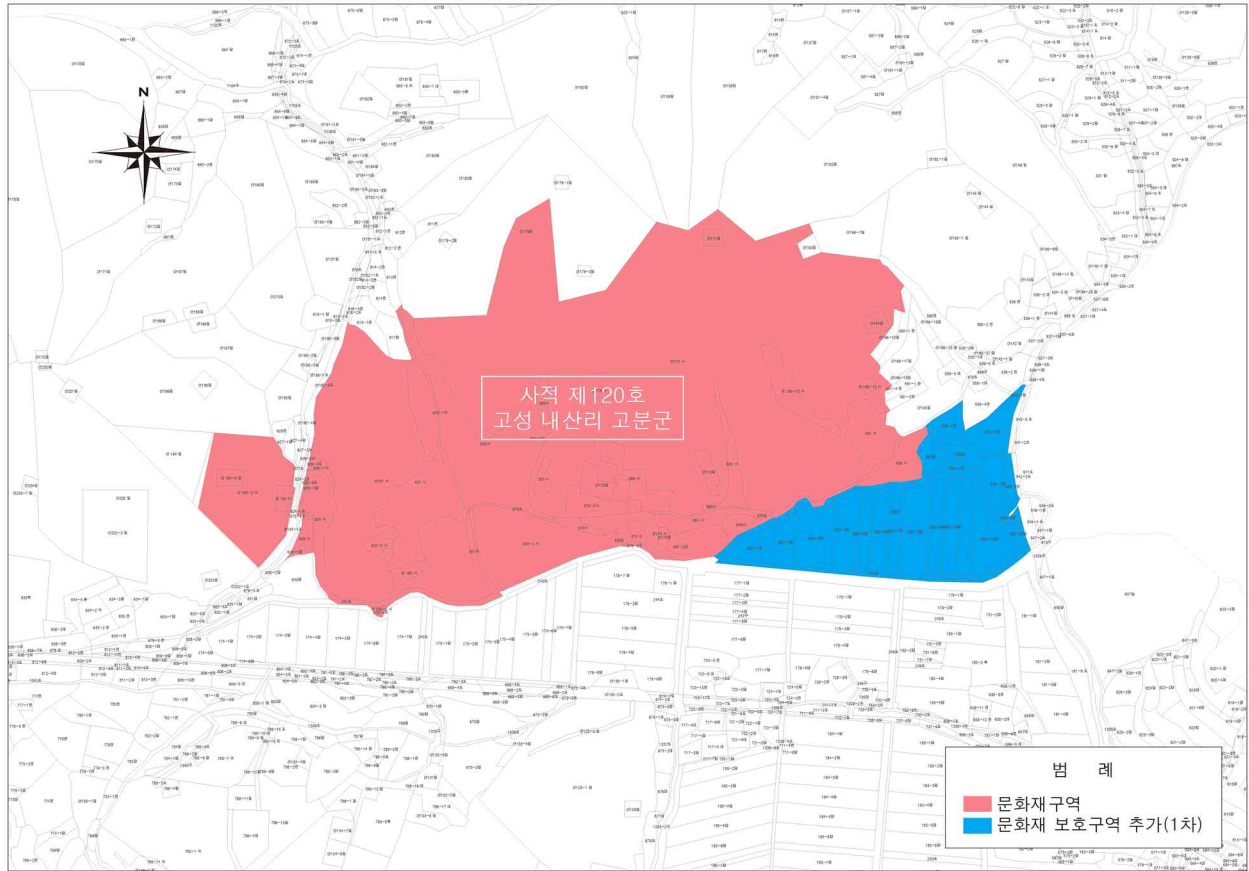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입로 설치예정 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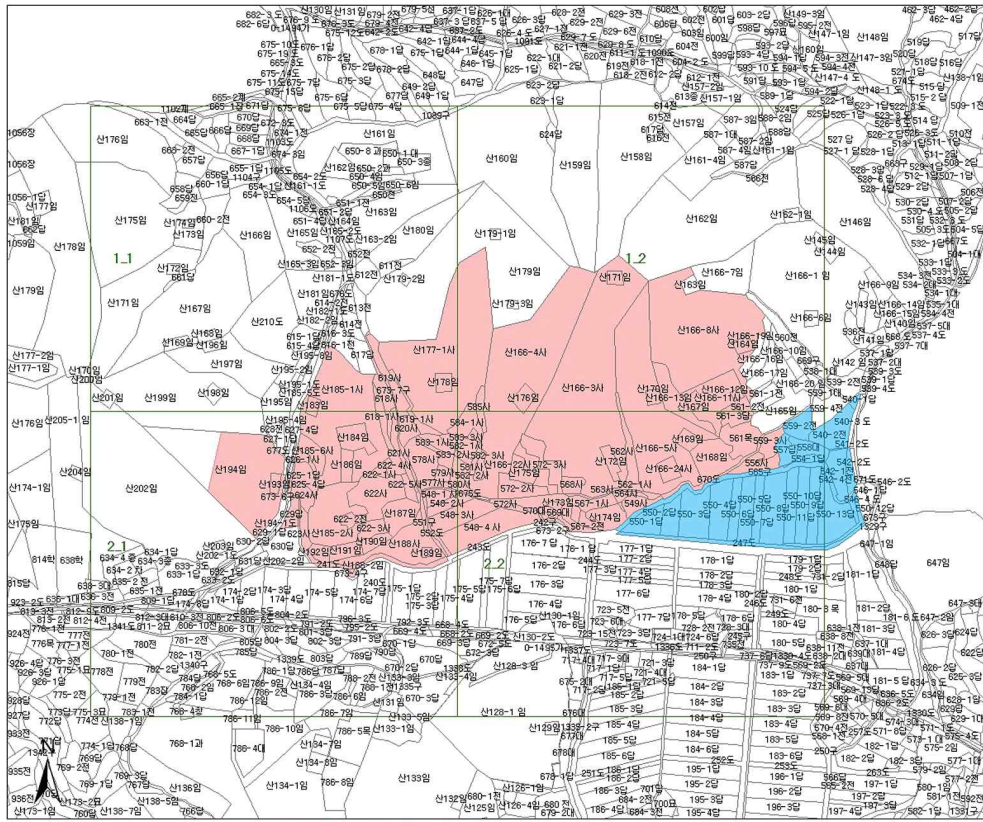
6. 지정 대상 및 범위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보호구역)

보호구역 지정 면적: 20필지 /28,33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542-1	전	1,254	1,254		
2	상동	550-13	답	2,629	2,629		
3	상동	550-11	답	1,322	1,322		
4	상동	557	답	764	764		
5	상동	550-10	답	1,462	1,462		
6	상동	550-9	답	1,438	1,438		
7	상동	554-1	답	289	289		
8	상동	550-8	답	2,654	2,654		
9	상동	565	구거	2,630	2,630		
10	상동	550-6	답	1,488	1,488		
11	상동	550-7	답	947	947		
12	상동	550-5	답	1,001	1,001		
13	상동	550-4	답	1,915	1,915		
14	상동	550-3	답	2,323	2,323		
15	상동	550-2	답	1,013	1,013		
16	상동	550-1	답	1,275	1,275		
17	상동	558	대	840	840		
18	상동	540-1	답	174	174		
19	상동	540-2	전	1,883	1,883		
20	상동	559-2	전	1,031	1,031		





사적 제120호					
고성내산리고분군					
固城內山古墳群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188-10					
범례					
	문화재				
	연속지적				
<table border="1"> <tr> <td>1.1</td> <td>1.2</td> </tr> <tr> <td>2.1</td> <td>2.2</td> </tr> </table>		1.1	1.2	2.1	2.2
1.1	1.2				
2.1	2.2				
축척	1:4,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현황사진



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남→북)



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항공사진 원경)



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남서→북동)



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남서→북동)

□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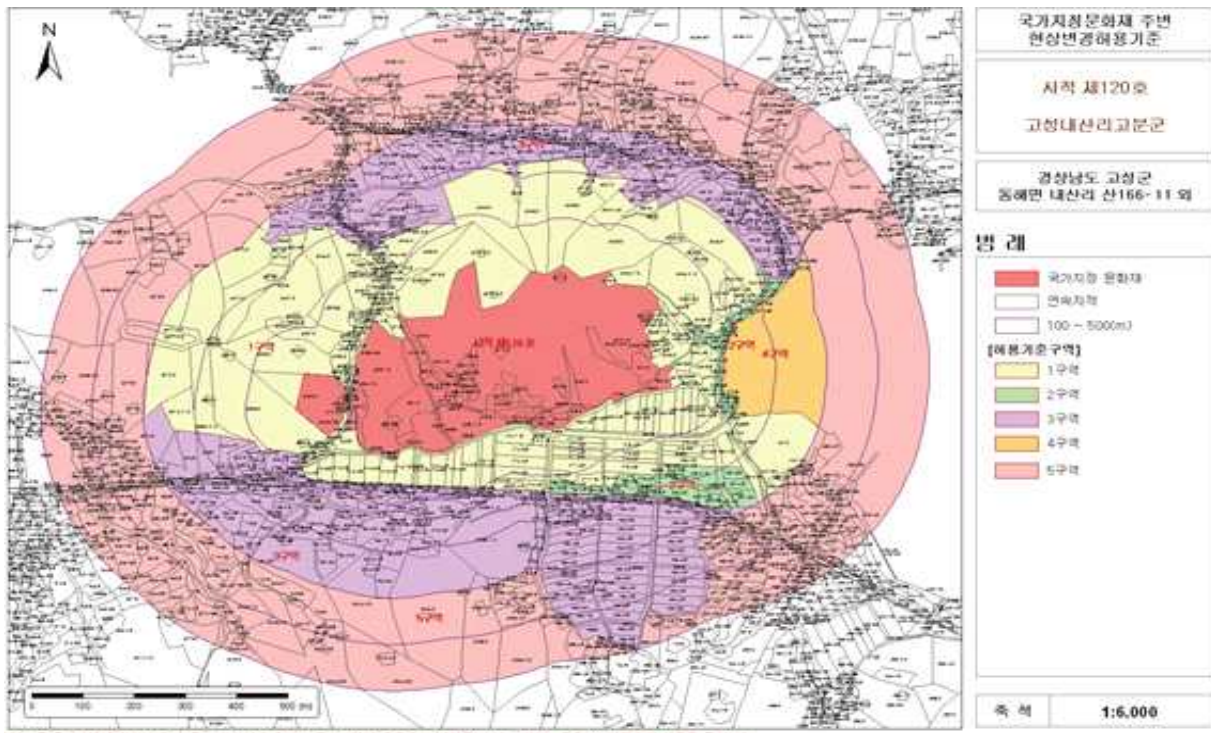
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동→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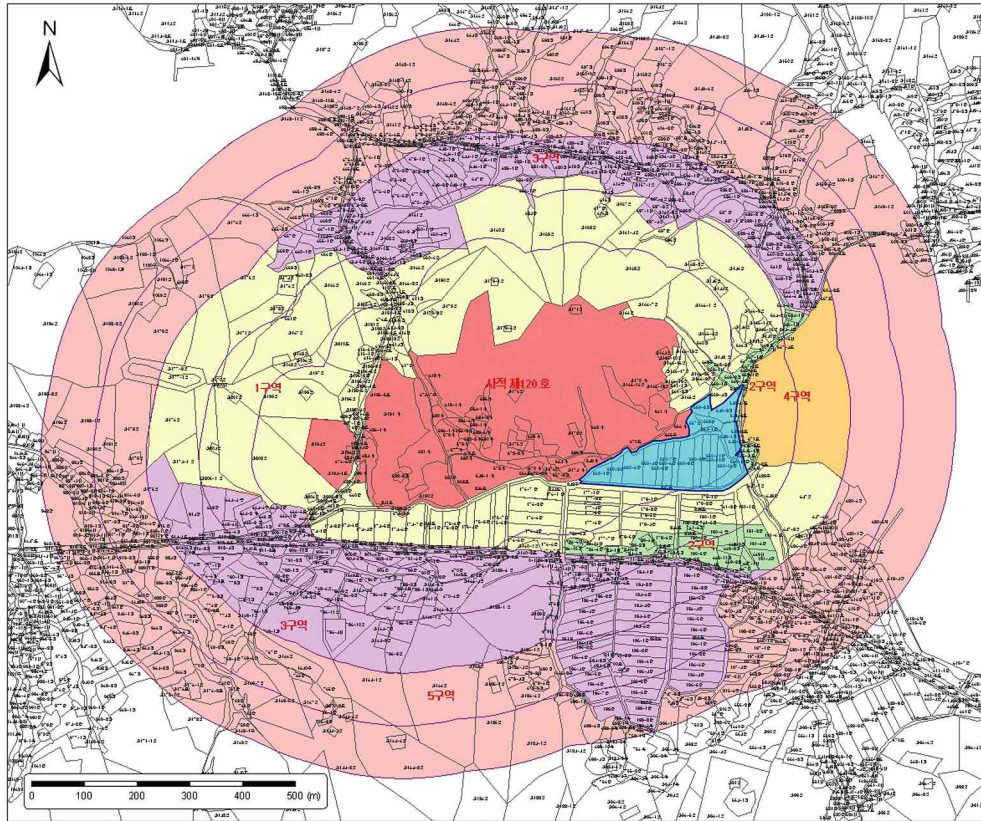
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남→북)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고성 내산리 고분군의 바다와의 일체성이 중요하므로 연접 바다는 개별심의구역으로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성 내산리 고분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고시도면 (기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사적 제120호
고성내산리고분군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산166-11 외

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연속지적
- 100 ~ 500(m)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 3구역
- 4구역
- 5구역

축척 **1:6,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문화재주변 행위기준 설정사유 (구역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구역을 기준으로 동서남북 1구역, 1구역과 접한 동쪽은 2구역, 1구역과 접한 남쪽과 북쪽은 3구역, 그 외 문화재구역에서 벗어난 구역에 한하여 4,5구역, 나머지는 6구역으로 지정 ○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주변지역은 기존 행위기준안과 같이 그대로 존치하고자 합니다. 			
행위기준 기준(안) (문화재청의 유사문화재 고시사항 참고)	[사적 제120호 고성내산리고분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개별 심의 구역		
5구역	○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행위기준도면(안) (별첨가능) *주변 문화재 포함시 표기				
민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요청 필지는 지목상 ‘답’이고 실제 농사에 이용되고 있지만 문화재 구역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농사용 관정 설치 시에도 문화재 조사(입회 등)를 해야하는 등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3년간현상변 경허가사항(해당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건축 - 제2종 생활근린시설 신축 ○ 2020 건축 -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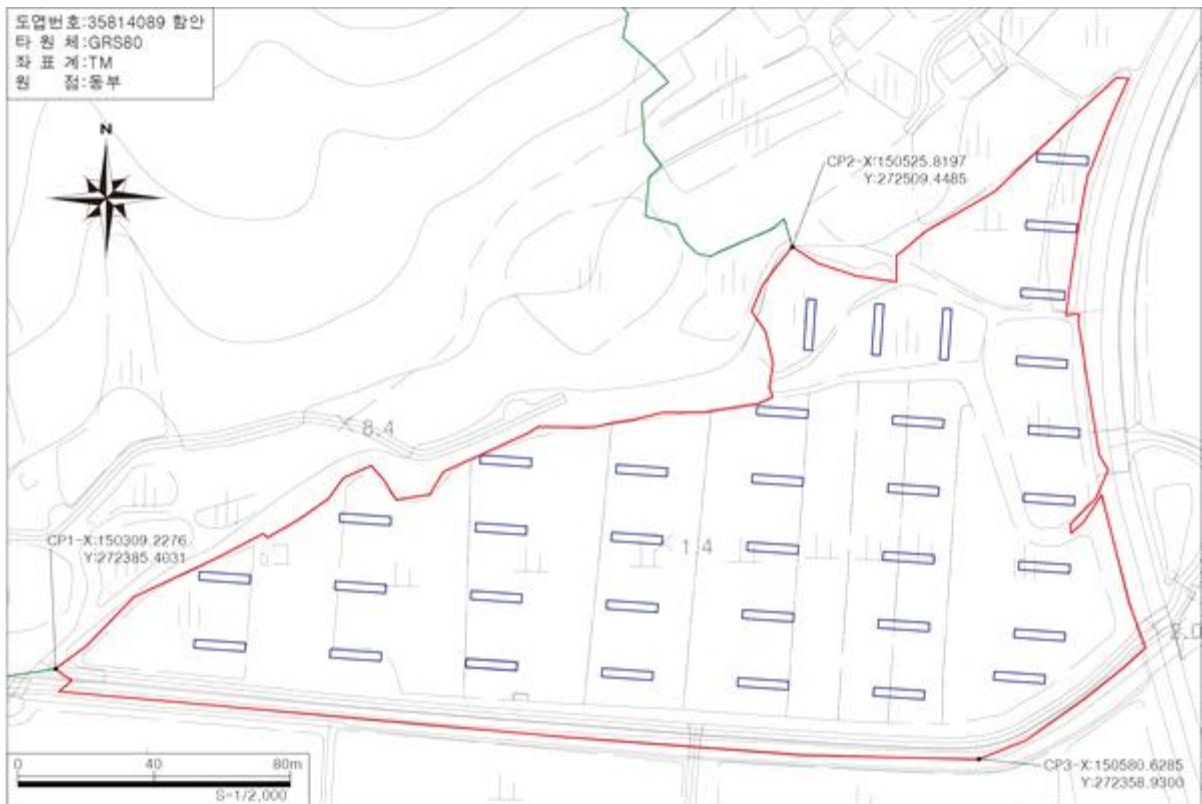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문화재 보존·정비·활용 계획(안)				
사업개요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요 : 고성 내산리 고분군 종합정비 사업 ○ 위 치 :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산 170번지 일원 ○ 면 적 : 186,135m² ○ 사업기간 : 2021년 ~ 2030년 ○ 사업내용 :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부지매입, 전서관 건립, 유적·탐방로·식생정비등 ○ 사 업 비 : 35,400백만원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그간 보존·정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9. ~ 현재 : 토지보상 103필지(사유지 113필지 중 미보상 10필지) ○ '05. 12.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13. 02. : 종합정비계획 승인(문화재청) ○ '18. 04. ~ 12. : 미발굴지역 표본조사 ○ '20. 05. :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 '20. 01. ~ 21. 2. : 내산리고분군 정비공사 수행 			
토지이용 및개발계획	현 내산리 고분군		보호구역	
	현 문화재 지정 구역		보호구역 지정 후 대상지 전체를 자연녹지지역, 보호구역으로 관리계획	
종합정비 계획안에 따른 문화재 학술조사, 정비계획	현 문화재 지정구역 내 문화재 학술조사 계획 없으며, 유구·식생·탐방로 등 정비 계획 수립 완료		토지매입 완료 후 문화재 발굴조사 및 학술조사 계획	
문화재 활용 및 홍보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 활용방안(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한 고분군 탐방을 넘어서 역사문화공원, 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역할 강화 2. 주변 자원과 연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에 산재한 지식묘, 고성 공룡세계엑스포 관광지, 당항포관광지 등과 연계한 역사·환경 탐방코스 마련 3. 기타 연계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역사문화 탐방 활성화 - 고성 시티투어 버스 등 관광코스와의 연계한 활용도 증대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장기)				
사업기간	사업구분	수량	금액	비고
단기계획 (2021~2025년)	학술조사(시·발굴조사)	1식	479,633	매장문화재 조사대가 프로그램 계산
	토지매입	1식	3,599,950	
	고분정비	1식	7,835,600	
	교육시설(고분홍보관건립)	1식	18,500,000	
	휴게시설	1식	1,780,000	
	관리실	1식	1,000,000	
소계			33,195,183	
장기계획 (2026~2030년)	학술조사(시·발굴조사)	1식	146,014	매장문화재 조사대가 프로그램 계산
	토지매입	1식	594,297	
	고분정비	10기	1,500,000	
	역사문화공원 조성	1식	3,000,000	
	고분 활용프로그램 개발	1식	100,000	
소계			5,340,311	
합계			38,535,494	
설계비			269,748	공사비의 7%
감리비			115,606	공사비의 3%
총합계			38,920,848	
기타 참고사항				

■ 추가확대지정구역 학술조사 계획

1) 추가확대지정구역 학술조사의 필요성

- 고분의 보존 및 활용방안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은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유적의 가치를 규명하기 위한 발굴 이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발굴도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최근 이루어진 발굴조사와 더불어 향후 내산리고분군의 범위와 고분축조집단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내산리 고분군의 위치로 보아 남해로 곧바로 이어지는 적포향이 접해 있는 점과 현재 보호구역으로 관리를 받고 있는 평지구간에서 더 넓은 범위로 봉토가 유실된 고분의 실체가 추가로 확인될 수 있으며, 그 아래쪽으로는 축조집단의 마을이 확인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남해로 이어지는 고대 항만시설이 입지하기에도 유리한 곳이다. 향후 체계적인 학술조사를 통해 해양세력으로서의 내산리고분 성격규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지구간에 대한 계획된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추가확대지정구역 시굴조사 예상트렌치 배치도

9. 종합의견

- 고성 내산리 고분군은 삼국시대 소가야의 군집 묘이다. 진해만의 적포만을 끼고 있는데, 城山의 남사면 ‘고래실’로 불리는 얇은 구릉에 밀집 분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9차례의 발굴조사에서 16기의 봉토분이 조사되었는데, 정지 후 봉토를 쌓고 다시 봉토를 굴착하여 석곽을 시설하는 소가야의 전형적인 다곽식 묘가 확인되었다.

구역의 서쪽에는 수혈식이, 동쪽으로 가면서 횡혈식이 조성되어 있다. 소가야 양식의 토기를 비롯하여 대가야계, 신라계, 왜계(일본계)유물도 함께 출토되어, 해상교역을 주로 하던 집단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 현재 내산리 고분군은 고성을 중심으로 국제교류를 통한 해상 소가야 집단으로 알려져 있으며, 내산리 고분군이 위치한 곳도 당항만과 적포만 사이에 해안과 접하고 있는 곳에 위치하여 이러한 특수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신청된 곳은 내산리 고분군에서 해안으로 접하는 곳에 위치하며, 고성 내산리 고분군의 해상교역집단의 일체성과 해안 경관의 보존 관점에서 해안과 접하는 구역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따라서 현 지정 신청된 구역을 포함하여 능선의 밖 해안 쪽으로 확대한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보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22-04-017

1. 경주 월성 내 발굴조사 운영시설 주변 정비사업 계획 보고

가. 제안사항

경주 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주변 정비사업(사적분과 심의 '18.10월)을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은 출토유물 수장·정리 및 전시·활용 등을 위한 시설로서 사적분과 심의를 통해 건립계획('15.10.14.) 및 건립위치 변경계획('18.10.10.), 운영시설 설계안('19.10.2.) 승인을 받고 공사 추진 중이며,
- 운영시설 부대시설 명목으로 건립부지와 함께 문화재 현상변경('18.10월)을 득한 주변 정비사업(주차장 및 조경 조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본설계안이 마련되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월성(사적 / 1963.01.21. 지정),
경주 대릉원 일원(사적 / 2011.07.28.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황남동 407번지 외 19필지
- (3) 신청내용
 - 경주 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개요

구분	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건축	주변 정비사업	비고
대지면적	약 11,650㎡	약 9,200㎡	
연면적	2,370.27㎡	-	
용도	전시동, 사무동, 목재수장고동 (임시가설 건축물)	주차장 및 조경(임시 시설)	

○ 세부용도

< 운영시설 사업 >

- 출토유물의 효율적 **보관·관리** 및 유적·유물에 대한 학제 간 **연구중심센터**
- 월성의 역사적·고고학적 성과를 전시·강연 등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발굴미디어센터**

< 주변 정비사업 >

- 교촌마을 관광객 및 운영시설 전시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주차장)
- 월성에서 발굴된 수종을 적용한 조경 조성 및 이용객 산책로

(4) 신청인 의견(경주시)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일환으로서 중·장기 계획 하에 월성 발굴조사와 연구의 효율적·체계적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
- 운영시설 건립부지는 교촌마을과 재매정에 인접하여 경주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집중이 예상됨. 주차장 조성을 통해 교통혼잡 해소, 숲 조성을 통한 주변 경관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라. 참고사항

(1) 1차 전문가 자문('22.02.18./○○○, ○○○, ○○○)

- 운영시설 직원주차장 전면에 여유공간을 두어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좋겠음
- 주변 정비사업 경관과 월성 및 교촌마을이 어울리도록 주차장보다 숲(나무)가 주가 되는 설계, 조경과 어울리는 주차장 설계가 필요함. 즉 주차장과 도로 사이에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녹지 폭은 완충녹지, 경관녹지 폭의 기준을 적용하여 녹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음
- 발굴조사 결과로 드러난 도로유구 등을 반영하여 옛길을 살리는 계획을 고려하고, 전시동 진입마당에서 옛길로 연결되는 동선 계획이 걱정할 것으로 사료됨.
- 배치도면상 서쪽 조경은 폐쇄적인 공간, 동쪽 조경은 개방적인 공간으로 계획하는 등, 개방 및 폐쇄 공간을 구분하는 설계가 걱정할 것으로 사료됨.
- 수종을 단순화하고 유구가 없는 부분에 식재하여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운영시설 건물을 차폐하기 위한 수고가 높은 수종을 선택하고 수종을 줄이면서 규격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함. 교목 및 관목, 지피식물은 선형식재를 지양하고 면으로 보이게 식재하는 것이 걱정할 것으로 사료됨.
- 친환경 주차장을 염두에 두고 조경공간과 연결되는 공간으로 계획 하는

것이 걱정할 것으로 사료됨.

- 공용주차장 측은 도로 측에 맞추어 차량 통행이 원활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걱정할 것으로 사료됨.
- 주차장 내 전기차 이용시설(충전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 걱정할 것으로 사료됨.

(2) 2차 전문가 자문('22.03.14./○○○)

- 전면의 주차(운영시설) 및 공원과 공원 내 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도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사료됨.
- 전시관 공원의 동선 계획과 공원 내 주차계획의 설정 및 구획은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시설 전시관 진입동선 및 광장(교촌 측)의 바닥마감은 전시관 마감재로 하되 바닥 패턴을 고려한 계획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3) 2차 전문가 자문('22.03.28./○○○)

- 뱃나무 식재하되 당위성이 필요
- 교촌 안길 쪽에 건물의 볼륨감을 줄일 수 있게 볼륨감 있는 식재 두 종을 선정할 필요 있어 보임 → 가능한 낙엽활엽수 교목 식재 요망
- 관목의 식재 패턴을 점 단위가 아닌 면 단위로 연결 할 필요 있어 보임
- 주차장 내부의 교목식재 위치는 교촌 안길에서 조망 시 볼륨감을 느낄 수 있는 위치로 연결 하는 것이 걱정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접수 12명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사적 「홍성 홍주읍성」 내에 솔라판넬 설치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51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홍성 홍주읍성	충남 홍성군	○○○	<솔라판넬 설치> ○ 위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96-6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솔라판넬 설치(가로 50cm×세로 50cm×높이 100cm) - 허가기간 : 2022.03.31. ~ 2023.03.30.까지	허가	'22.03.31.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서울시 송파구	○○○	<다가구주택(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57-106번지(문화재구역과 연결/3권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142㎡ - 건축면적(연면적) : 84.14㎡(253.54㎡) - 규모(높이) : 지상 4층(최고높이 13.78m, 지하 1.2m 이하) - 변경사항 :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반영하여 지하정화조 변경 - 허가기간 : 2022.01.19. ~ 2023.03.27.까지 ○ 허가조건 - 제출한 계획서대로 시행하되, 터파기 시 관계자 입회토록 함.	조건부 허가	'22.03.28.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천안 유관순 열사 유적	충남 천안시	○○○	<p><컨테이너 농막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용두리 414-1(문화재구역으로부터 22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782m² - 사업내용 : 컨테이너 농막 1동 설치 (3m×6m) - 허가기간 : 2022.03.28. ~ 2025.03.23. 까지(3년)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테이너 농막 설치는 허가일로 부터 3년(2022. 03. 28. ~ 2025. 03. 23.) 임시로 허가하며, 허가기간 종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시설로 주거 목적은 불가합니다. - 농막 외관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을 사용토록 하고, 역사문화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나무 패널 등 설치를 권장합니다. - 농막 설치를 위한 농지 성토, 다락 설치, 데크, 난간, 천막, 파고라 등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불가하며, 농막 주변은 항상 청결을 유지합니다. 	조건부 허가	'22.03.28.
사적 고양 행주산성	경기도 고양시	○○○	<p><소로 1-118, 소로 3-335호선 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178-19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420m 이격/4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면적 : 155m/1439m² - 식생축조블럭(H=1.0~5.0m) 설치 : 92m 등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지역은 행주서원지(문화재자료) 2구역과 중첩되므로 도로개설 등이 행위허가 대상인 경우 별도 허가를 득할 것 	조건부 허가	'22.03.11.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고양 행주산성	경기도 고양시	○○○	<p><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신축 부지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13-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20m 이격/4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330㎡ - 블록식 보강토 옹벽(H=4.0m) 설치 : 20m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지역은 매장문화유존지역이므로 매장문화재는 매장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할 것 	조건부 허가	'22.03.22.
사적 강화산성	인천시 강화군	○○○	<p><체육시설 개보수(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225-1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m 이격/1구역) ○ 변경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화공설운동장 그늘막 및 관람석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늘막 설치: 최고높이 4.7m(중 0.2m), 폭4.11m(감 0.89m), 길이 96.2m(감 3.8m)(차양판재질 : 막구조 ⇒ 경량 알루미늄복합시트) - 관람석 의자 설치: 3열(감 3열), 96.2m(감 3.8m) 2. 운동기구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운동시설 철거 및 복구(사업 제외) - 신규운동시설 설치(사업 제외) 3. 게이트볼장 조성 및 음수대 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이트볼장 조성(신규): 인조잔디 포 장 414㎡(23×18), 울타리 설치 (2m×41m×1.5m(H)) - 음수대 이설(신규) : 1개소 	허가	'22.03.28.
사적 강화산성	인천시 강화군	○○○	<p><단독주택 신축 부지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광화읍 남산리 474-13번지 외 1필지(문화재구역으로 부터 450m 이격/7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659㎡ - RC 옹벽(H=0.0~4.0m) 설치 : 70m 	허가	'22.03.25.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강화산성	인천시 강화군	○○○	<p><농업용 컨테이너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305-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동수 : 1동 - 설치 규격 : 3m(B)×6m(L)×3m(H) - 정화조 매설(1조) : 1.3 m(W)×1.55m(H)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할 것 	조건부 허가	'22.03.25.
사적 강화산성	인천시 강화군	○○○	<p><단독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159-7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2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540㎡ - 건축면적/연면적: 107.79㎡/107.79㎡ - 건축규모/최고높이 : 지상1층(1동) /5.88m(경사지붕) - 건축구조 : 경량철골구조 	허가	'22.04.04.
사적 강화 외성	인천시 강화군	○○○	<p><소규모 유량수압 감시설비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81-2번지 외 1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량계실 설치 굴착규격 : 5m(L)×3m(B)×2.2m(H), 유량계실 규격(철구조물) : 2m(L) ×2m(B)×1.8m(H) - 부속관1 설치 굴착규격 : 3m(L)×0.7m(B)×1.25m(H), 전기·통신선 규격 : D50mm - 부속관2 설치 굴착규격 : 1.6m(L)×1.17m(B)×1.25m(H), 상수관로 규격 : D 200mm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할 것 	조건부 허가	'22.03.24.
사적 강화 외성	인천시 강화군	○○○	<p><단독주택 신축 부지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68-20 외 1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70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566㎡ - 석축(H=0.0~4.4m) 쌓기 : 61.07m 	허가	'22.03.25.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강화 외성	인천시 강화군	○○○	<p><단독주택 신축 부지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68-21 외 1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56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481㎡ - 석축(H=0.0~4.0m) 쌓기 : 43.35m 	허가	'22.03.25.
사적 강화 외성	인천시 강화군	○○○	<p><더리미항 어구보관소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시정리 12-34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40㎡ - 어구보관소 설치규격 : 6.0m(L)×3.0m(B)×2.1m(H) - 설치구조 : 큐브블럭디자인벽돌쌓기 - 전석쌓기(H=0.0~1.5m) : 13m 	허가	'22.03.31.
사적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경기도 오산시	○○○	<p><단독주택(9동) 신축 및 진입로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332번지 외 1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33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6,837㎡(도로 1,267.0㎡ 포함) - 건축면적/연면적 : 1,026.28㎡/1,260.64㎡ - 건축규모/최고높이 : 지상1~2층(총9동)/7.9m - 타입별 세부 규격 (건축면적/연면적/건축규모/최고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타입(총 1동) : 117.75㎡/178.08㎡/지상2층/7.9m · B타입(총 2동) : 219.90㎡(1동당 109.95㎡)/333.60㎡(1동당 166.80㎡)/지상2층/7.9m · C타입(총 5동) : 557.20㎡(1동당 111.44㎡)/557.20㎡(1동당 111.44㎡)/지상1층/5.445m · D타입(총 1동) : 131.43㎡/191.76㎡/지상2층/7.9m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L형옹벽설치(H=0.3~3.0m) : 767.2m - 절토량/성토량 : 4,505㎡/2,923㎡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 전 시굴조사를 선행토록 함 	조건부 허가	'22.03.23.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양주 회암사지	경기도 양주시	○○○	<p><자동차 관련 시설(운전학원) 부지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280번지 외 6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24m 이격/4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20,662㎡ - 식생옹벽(H=0.5~4.8m) 설치 : 198.0m - 보강토옹벽(H=0.2~4.8m) 설치 : 463.7m - L형옹벽(H=0.8~2.2m) 설치 : 36m - 성토량/절토량 : 11,996.0㎡/10,980.0㎡ 	허가	'22.03.23.
사적 양주 회암사지	경기도 양주시	○○○	<p><보호구역 내 주차장 확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299-1번지 외 13필지(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사업면적 : 3,112.6㎡(주차면적 822.5㎡, 67대) 2) 세부 사업내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차장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면적 : 1,974.4㎡(주차면적 387.5㎡, 31대) - 마감 : 기존 황토콘크리트포장 위 아스팔트콘트리트 덧침 포장) 나) 주차장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면적 : 418.1㎡(주차면적 172.5㎡, 15대) - 마감 : 잔디블럭 포장 다) 주차장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면적 : 720.1㎡(주차면적 262.5㎡, 21대) - 마감 : 잔디블럭 포장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할 것 	조건부 허가	'22.03.25.
사적 연천 전곡리 유적	경기도 연천군	○○○	<p><관정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2-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77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정설치 개소 : 1개소 - 관정 구경/심도 : 150mm/100mm 	허가	'22.03.24.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연천 은대리성	경기도 연천군	○○○	<p><차탄천 하류 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717-8번지 외 20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95m 이격/6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4,081㎡ - 도로개설(B=8.5m) : 308m - 교량 설치(B=9.5m) : 142m(1개소, 최대높이 18m(상부형고(2.1m)+하부교대(15.9m)) - 보강토 옹벽설치(H=1.125~4.125m) : 30.86m - 관로 이설/기존 세월교 철거 : 123m /1개소 	허가	'22.03.29.
사적 연천 호로교루	경기도 연천군	○○○	<p><작물재배 및 임시창고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0-1번지(문화재보호구역과 연결/1구역) ○ 사업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컨테이너 설치(변동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동수 : 1동 - 설치 면적 : 24㎡ - 설치 규격 : 8m(L)×3m(B)×2.5m(H) 2) 비닐하우스 설치(신규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동수 : 1동 - 설치 면적 : 36㎡ - 설치 규격 : 9m(L)×4m(B)×3m(H) 	조건부 허가	'22.03.31.
사적 여주 고달사지	경기도 여주시	○○○	<p><비닐하우스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408번지(문화재보호구역과 연결/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동수 : 1동 - 설치규격 : 11m(L)×4.5m(B)×4.5m(H)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테이너 및 비닐하우스는 2년간 임시 허가하며, 설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허가기간 만료 전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함 	허가	'22.03.25.
사적 여주 고달사지	경기도 여주시	○○○	<p><농업용 컨테이너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151-1번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6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동수 : 1동 - 설치 규격 : 3m(B)×6m(L)×2.65m(H) - 정화조 매설(1조) : 1.3 m(W)×1.55m(H) 	허가	'22.03.28.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여주 고달사지	경기도 여주시	○○○	<p><기존 수목 별채 후 식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174-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61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454.0m² - 기존수목 별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종 : 리기다소나무 외 3종 · 주수/재적 : 55주/15.77m³ - 수목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백나무(H=4.0m) : 15주 · 측백나무(H=2.5m) : 23주 · 반송(H=0.6m) : 90주 	허가	'22.04.04.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p><단독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유사리 380-1번지 외 4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470m² - 건축면적/연면적 : 110.22m²/89.96m² - 건축규모/최고높이 : 지상 1층(1동) /6.1m(경사지붕)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허가	'22.03.29.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p><단독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62-3(문화재구역으로부터 3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448m²(도록 58m² 포함) - 건축면적/연면적 : 101.70m²/149.01m² - 건축규모/최고높이 : 지상 2층(/7.5m)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허가	'22.04.06.
사적 남한산성	경기도 광주시	○○○	<p><이동식컨테이너(간이매점)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32-10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71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29m² - 설치동수 : 1동 - 설치규격 : 5.6m(L)×2.8m(B)×2.9m(H) (한옥형태 경사지붕) 	허가	'22.03.29.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용인 심곡서원	경기도 용인시	○○○	<p><판매시설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형동 166-8번지 외 1필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6m 이격/1구역) ○ 변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6,960㎡(증 201㎡, 잔여지 포함) - 건축면적 : 1,344.34㎡(증 206.29㎡) - 연면적 4,997.75㎡(증 123.0㎡) - 층수 : 지하2층, 지상2층(변동없음) - 최고높이 : 15.35m(증 0.25m, 지표면 가중평균선 변경에 따른 높이 변경)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구조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추진토록 함 	조건부 허가	'22.04.05.
사적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	<p><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로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북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770-1, 883-1(문화재구역으로부터 115m 이격/4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면적 : 756㎡(건축부지 656㎡ / 도로부지 100㎡) - 연면적 : 54㎡ / 건축면적 : 54㎡ / 높이 : 5.109m - 성토 최고높이 : 1.74m / 옹벽(식생블록) 높이 : 2.4m 	허가	'22.03.16.
사적 익산 쌍릉	전북 익산시	○○○	<p><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옹벽 및 진입로 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북 익산시 석왕동 158-221, 158-222(문화재구역으로부터 439m 이격/4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면적 : 1,794㎡(건축부지 1,550㎡ / 도로부지 244㎡) - 연면적 : 190.65㎡ / 건축면적 : 174.45㎡ / 높이 : 8.7m(2층) - 옹벽(식생블록) 최대높이 2.7m, L : 68m, 최대높이 3.3m, L : 140m - 성토 최고높이 : 1.0 ~ 5.1m / 도로개설(콘크리트 포장) 폭 6m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을 위해 식생블록 위에 목재 안전휀스를 설치한다 	조건부 허가	'22.03.16.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공주 석장리 유적	충남 공주시	○○○	<p><단독주택 및 진출입로 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60-2번지 외 6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5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면적 : 1,205㎡(부지 472㎡ / 도로 733㎡) - 건축면적 : 68.22㎡ , 높이 : 4.65m - 보강토옹벽 : [H=0.2~1.0m] L=31m, [H=0.2~0.3m] L=23m - 역L형 옹벽 : [H=2.0~4.0m] L=32m - 성토 : 높이 0.3m~1m 미만 - 도로높이: 높이 0m~0.3m 이하 	허가	'22.03.16.
사적 경주 동궁과 월지	경북 경주시	○○○	<p><학교시설(화장실) 증축(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인왕동 571-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24m 이격/3구역) ○ 변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 지상 4층 15.85m, 변경 : 지상 4층 16.42m 	허가	'22.03.11.
사적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경북 경주시	○○○	<p><공장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 169-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51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 : 일반철골조 / 샌드위치 판넬마감 - 최고높이 : 12.3m - 건축규모 : 지상1층 - 연면적 : 643.5㎡ [토목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공 : 현재 지반 현상변경 없이 정지작업 - 식생옹벽 : H=1.0~5.0m L=72m - 배수공 : 우수관 D300mm L=150m, 집수정 5개소, 저류조 1개소 - 절성토고 : 없음 ○ 허가조건 : 선 시굴조사 후 시행 	조건부 허가	'22.03.22.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경주 낭산 일원	경북 경주시	○○○	<p><보문 능지탑 안길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보문둔 976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 흙 콘크리트포장 B=3m, L=100m, 면적 A=301m² - 토공 : 터파기 101m³, 되메우기 16m³, 사토운반 83m³ - 구조물공 : 석축(깁잡석) H=1.1m, L=27m - 포장공 : 흙 콘크리트포장 B=3m, L=100m, 접속포장 1m² 	허가	'22.03.22.
사적 경주 남산 일원	경북 경주시	○○○	<p><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반동 1003-4 외 2필지(1004-5, 1004-6)(문화재구역 으로부터 25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 지상1층, 2동(한식목구조) - 대지 면적 : 1,237m² - 건축면적/연면적 : 216.09m²(주1동 116.64 m², 주2동 99.45m²) - 높이 : 주1동 6.4m, 주2동 6.3m [토목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구수로관 0.3×0.3 40.0m/집수정 0.7×0.7 2개소/PE이중벽관∅0.3 16.0m 설치 ○ 허가조건 : 선 시굴조사 후 시행 	조건부 허가	'22.03.30.
사적 경주 남산 일원	경북 경주시	○○○	<p><휴게공간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남산동 922-1번 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쉼터 1개소, 벤치 2개소, 산책로 포장(W=1.2m, L=217m) - 순환산책로 경관조명 설치(투광등 8EA, 블라드등 16EA) 	허가	'22.04.01.
사적 경주 불국사	경북 경주시	○○○	<p><가설건축물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1-2번 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68m 이격/1 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면적 : 1295m² - 바닥면적 : 18.85m²(가로 6.5m, 세로 2.9m, 높이 2.3m) 	허가	'22.04.01.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경주 명활성	경북 경주시	○○○	<p><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보문동 371-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74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면적 : 18㎡(가로 6m, 세로 3m, 높이 2.6m) * 당초허가기간 : '21.7.1~'23.6.30 ○ 허가조건 :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3년(2022.04.01.~2025.3.31) 	조건부 허가	'22.04.01.
사적 통영 삼도수군통 제영	경남 통영시	○○○	<p><통영국제음악제 콘서트 공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남 통영시 세병로 27(세병관 앞 마당)(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음악 공연 - 규모 : 의자 100개, 천막 3동(3m×6m), 음향 장비 1식 - 행사일 : 2022.3.31.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시행하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관리단체의 지도하에 안전관리대책 및 문화재 훼손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할 것 	조건부 허가	'22.03.25.
사적 창녕 화왕산성	경남 창녕군	○○○	<p><사찰 일주문 단청 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3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67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전통사찰 도성암 일주문 가설 공사 및 단청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단청 : 137.9㎡ - 금모로단청 : 55.68㎡ - 타분 : 193.58㎡ - 색긋기 : 21.48㎡ - 먹긋기 : 15.05㎡ - 뇌록가칠 : 227.82㎡ - 석간주가칠 : 56.06㎡ - 바탕면포수(아크릴에멀존) : 283.88㎡ - 면담기(바탕면만들기포함) - 신축 : 283.88㎡ - 벽화-복잡 : 4.31㎡ - 문양모사도-금단청 : 8.20㎡ - 문양모사도-금모로단청 : 2.20㎡ - 한식단청공편수(문화재직종) : 12.9인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대책 및 문화재 훼손 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 할 것 	조건부 허가	'22.03.25.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고성 송학동 고분군	경남 고성군	○○○	<p><봉축탑 설치 및 점등식 봉행 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70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설치기간 및 봉행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축탑 설치 : '22.4.9.~5.22. · 점등식 봉행 행사 : '22.4.16. - 시설물 설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축탑 설치 : 3층(가로 9m×세로 9m×높이 10m) · 봉행 행사 : 텐트 2개(가로 6m×세로 3m×높이 2m), 의자 90개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대책 및 문화재 훼손 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 할 것 	조건부 허가	'22.03.25.
사적 김해 구지봉	경남 김해시	○○○	<p><보호구역 내 점등탑 설치 및 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남 김해시 구지로 95(문화재 보호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등탑 설치 : 4m×4m×10m(높이) - 점등기간 : '22.4.7~5.8. - 점등법회 : '22.4.10. - 기타 : 전기인입 및 전기조명, 전기콘센터 설치, 안전관리 수시점검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시행하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관리단체의 지도하에 안전관리대책 및 문화재 훼손 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 할 것 	조건부 허가	'22.03.25.
사적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전북 고창군	○○○	<p><행사개최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536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개최(시농대제) - 천막 1동, 제단 1기, 씨앗나무 1기 설치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용수, 밴드의 공연장소는 도로와 가까운 평지로 이동(지석묘와 최대한 이격) 	조건부 허가	'22.03.31.
사적 해남 전라우수영	전남 해남군	○○○	<p><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서상리 215-1(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6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철근콘크리트조, 92.88㎡, 평지붕 최고높이 4.8m 	허가	'22.03.31.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완도 청해진 유적	전남 완도군	○○○	<p><보호구역 내 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145, 143-5(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지 변경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145 → 장좌리 145, 143-5 - 건물높이 조정 : 6.865m → 6.715m - 기타 변경사항 : 주택 위치 조정, 진입로 변경, 주택 주변 담장 설치 → 난간 설치 	허가	'22.03.24.
사적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제주도 제주시	○○○	<p><울타리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145-1(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야생동물 침입 방지 울타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 : 300m, H : 2m / 지주+그물망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대 설치 작업시 매장문화재 존재 확인을 위한 참관조사 시행 	조건부 허가	'22.04.07.
사적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제주도 제주시	○○○	<p><울타리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995-1, 997(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야생동물 침입 방지 울타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 : 320m, H : 2m / 지주+그물망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대 설치 작업시 매장문화재 존재 확인을 위한 참관조사 시행 	조건부 허가	'22.03.18.
사적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제주도 제주시	○○○	<p><울타리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1066(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야생동물 침입 방지 울타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 : 260m, H : 2m / 지주+그물망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대 설치 작업시 매장문화재 존재 확인을 위한 참관조사 시행 	조건부 허가	'22.03.18.
사적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제주도 제주시	○○○	<p><울타리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1062(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야생동물 침입 방지 울타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 : 340m, H : 2m / 지주+그물망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대 설치 작업시 매장문화재 존재 확인을 위한 참관조사 시행 	조건부 허가	'22.03.17.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제주도 서귀포시	○○○	<p><도로 개선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453-18 외 8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30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회전 차로 설치(W=3m, 기존 32m → 79.5m) - 도로포장(W=2~3.5m, L=107m) - 보도 포장(W=2m, L=136m) - 우수 계획(우수관 설치-관경 0.6m×0.6m, L=115m) - 기존 식수대 철거 후 무단횡단 방지웬스(130m) 설치 	허가	'22.03.17.
사적 부안 진서리 요지	전북 부안군	○○○	<p><양어장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북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7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58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동, 건축면적 262.4㎡, 지상 1층, 비닐하우스(강파이프조), 5.1m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파기 시 매장문화재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한 참관조사 시행 	조건부 허가	'22.03.17.
사적 속초 조양동 유적	강원도 속초시	○○○	<p><근린생활시설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51번지 1호(문화재구역으로부터 310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지 면적: 414.2㎡ - 건축면적: 206.05㎡ - 건축연면적: 593.82㎡ - 층수 / 최고높이 : 지상3층 / 15.2m - 구조 : 일반철골구조 	허가	'22.03.23.
사적 삼척 준경묘·영 경묘	강원도 삼척시	○○○	<p><가설창고 추가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318(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가설컨테이너 2동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지 면적 : 24.6㎡(증 6.6㎡) - 설치내용 : 가설 컨테이너 2동(증 1개동) - 규격 : 폭3.0m×길이6m 1개동, 폭3.0m×길이3.3m 1개동 	허가	'22.04.08.

다.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접수 12명